금주의 법구–〈법구경〉
위험은 욕망의 숲에서 생긴다
욕망의 숲을 자르고
욕망서 벗어난 자가 되어라.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20호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12월 27일) 2023년 1월 18일 수요일



조계종은 1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로비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신년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제37대 집행부 출범 이후 첫 신년기자회견으로, 향후 4년간의 종단 로드맵의 방향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사진=박재완 기자

"사회 소통 강화로 불교중흥 이끌겠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신년기자회견

첫 신년회견… 4년 로드맵 담아
'조계종 명상프로그램' 개발 천명
사찰 순례길 통한 불교문화 향유
요양병원 인수해 승려복지를 강화
'천년을 세우다'로 성장동력 결집
상월 순례 연계 韓-印 교류행사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2023년 신년기자회견 첫 일성은 '사회적 소통 강화' 였다. 조계종 표준 선명상 프로그램과 사찰 순례길 개발 보급을 통해 불교 수행과 문화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나가겠다는 것이다.

조계종은 1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로비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신년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제37대 집행부 출범 이후 첫 신년기자회견으로, 향후 4년간 종단 로드맵의 방향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진우 스님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조계종 제37대 집행부는 신뢰받는 불교, 존중받는 불교, 함께하는 불교를 구현하겠다"면서 이를 위한 핵심과제로 △사회적 소통 강화 △승려복지 강화 △한국불교 문화 자긍심 고취를 발표했다.

'불교의 사회적 소통 강화' 는 부처님 가르침을 현대적 언어로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종단 내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조계종 명상 프로그램' 과 사찰 순례길을 개발하고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각종 대사회 위원회 활동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진우 스님은 "국내외 수행프로그램의 현황을 파악하고 종단 내 전문가들이 이를 검토해 '조계종 명상프로그램' 을 개발해 보급하겠다. 종단이 설립하는 명상센터에서 자신의 단계에 맞는 수행프로그램을 체험하면 국민 정신복지 차원에서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며 "사찰 순례길마다 스토리텔링을 강화하고 코스와 주변 경관, 생태 · 문화자원의 정보를 모바일 앱으로 제작하고 템플스테이 프로그램과 연계해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통의 현장마다 찾아가 함께 기도하고 실천하는 사회노동위원회 활동을 확대 강화하겠다"면서 "사회 실천 활동과 관련한 종단 기구와 위원회를 정비해 현장에서 활발히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들의 노후 안정은 수행공동체의 안정"임을 천명한 진우 스님은 '승려 전문 요양병원' 운영을 통해 승려복지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스님은 "지난해부터 '승려 전문 요양병원' 운영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처님오신날 이전에 병원 개원식을 봉행할 계획"이라며 "종단과 교구, 동국대 의료원, 요양시설 등과 연계해 의료적 보살핌이 필요한 스님들이 안정적이고 전문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진우 스님은 '천년을 세우다' 사업을 통한 '한국불교 문화적 자긍심 고취' 를 강조했다. '천년을 세우다' 사업은 과거 천년과 미래 천년을 이어내는 것을 골자로,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와 교구특성화, 미래세대 인재 양성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된다.

진우 스님은 "신라 불교문화의 정수인 마애부처님이 일어서면 국민이 평안하고 국운이 융창한 새 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 종단의 제안에 따라 각계가 호응하고 있고, 관련 기관의 기술적 검토가 마무리되고 있다"며 국민들의 관심을 요청했다.

이어 "명상과 미래세대 인재 양성, 교구 특성화 연구 사업을 통해 새로운 천년을 세우겠다"면서 △교구 특성화 전략 △범종단적 출가 장려 △전통문화 관련 국제제도 개선 △전통문화 홍보 강화 △불교장례문화 확산 △전통과 현대가 조화로운 승가교육 확립 △포교콘텐츠 개발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것을 밝혔다.

종단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과 계획도 내놨다. 지난해 연말에 국회에서 사찰문화재관람료 관련 지원 예산 421억 원이 반영된 것에 대해 진우 스님은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의 관리 비용을 사찰이 관람료 징수로 충당해 온 잘못된 관행이 바로 잡히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현재는 국민 서비스 개선과 확대를 위해 전면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월 9일부터 3월 23일까지 진행되는 상월결사 인도순례에 대해서는 "前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주요 스님과 사부대중 108명이 부처님 성지 1167km를 43일에 걸쳐 직접 도보로 순례하는 것은 일찍이 없었던 전인미답의 길"이라고 평가하며 "순례가 안전하게 원만회향돼 인도 부처님 성지를 잇는 '붓다로드' 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이어 진우 스님은 3월 20일 인도 기원정사에서 열리는 순례 회향식에 직접 참석할 계획을 밝히며 "한국과 인도의 수교 50주년을 맞아 인도 델리에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다양한 문화교류행사를 주인도 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과 함께 진행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3면〉

질의응답

"문화재관람료 전면 폐지 목표"

신년회견 질의응답서 밝혀
포교 강화 통해 출가 증진
"서울 명상센터 부지 확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국민들과 갈등을 빚어온 사찰문화재관람료를 궁극적으로는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로비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찰문화재관람료 개선에 대한 질의에 대해 진우 스님은 "국가문화재는 본디 국가가 당연히 보호관리할 문화유산이지만, 스님들이 신앙적 차원에서 관리해왔다. 이제는 국가도 인식을 달리하고 있는 만큼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5월부터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되면 사찰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게 된다. 향후 전면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가자 감소에 대한 해법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포교 활성화' 와 '승려복지 강화' 라는 방안을 제시했다. 포교를 통해 젊은 세대에 불교적 관심을 늘리고, 승려복지를 통해서는 완벽한 수행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진우 스님은 "젊은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불교를 알리려고 한다. 군포교를 비롯해 유치원, 초중고, 대학 등 계층포교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종책을 펼치겠다"면서 "승려복지 강화를 통해 완벽한 수행환경을 조성한다면 출가자 감소에 대한 해결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주요 공약이기도 했던 명상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서울권 명상센터 건립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모든 천년고찰이 사실은 명상센터"라고 밝힌 진우 스님은 "다만 시대에 맞춰 접근성이 좋은 명상센터가 필요해 우선 서울도심권에 명상센터를 만들고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명상을 연계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며 "서울도심권 명상센터는 현재 부지가 확보됐고,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단계에 있다. 또한 제주와 전라, 경북권의 지자체에서 관심을 보이는 곳이 있어 관련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탄소중립에 대한 종책 방향에 대해서도 밝혔다. 진우 스님은 "탄소중립을 위해 '1사찰 1과제' 실천 등을 추진하려 한다"면서 "국토의 산림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찰림을 불교계가 잘 보존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평가와 정부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화합을 근본으로 소통하라”

조계종, 1월 9일 통도사 설법전서 신년하례법회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가 불기2567(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종단 화합과 자비를 강조했다.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는 1월 9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개최된 신년하례법회에서 계묘년 새해 가르침을 전했다. 성파 대종사는 “자주 나는 새는 그물에 걸리기 쉽고 가벼이 날뛰는 짐승은 화살에 맞을 위험이 있다(數飛之鳥忽有羅網之殃 輕步之獸 非無傷箭之禍)”라는 야운 선사의 자경문 말씀을 상기시키며 “항상 조심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세로 자비 문중의 본분을 다하고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근본으로 삼을 것”을 교시했다.

성파 대종사는 “계묘년에는 무엇보다 화합을 근본으로 삼고 대화하고 소통해야 한다. 동체대비 사상을 공고히 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문중으로 이 시대의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한다”며 “이 시대는 자신의 말과 행동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불통과 혐오의 시대로 코로나 시대 못지않는 어려움에 처해있다. 대화합의 자세로 이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가르침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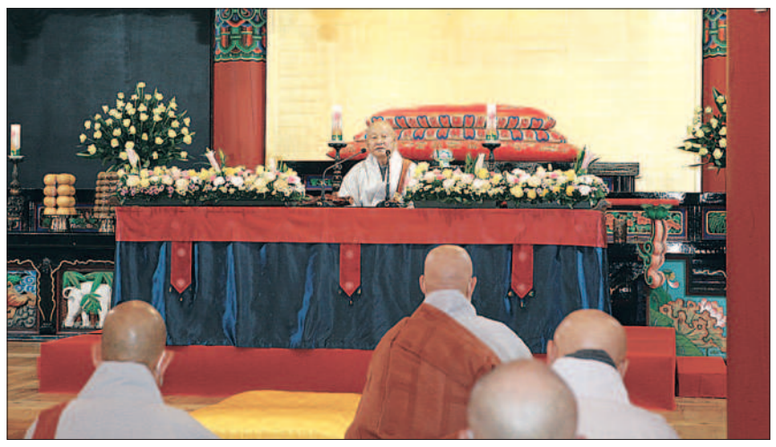
성파 대종사는 “조선시대 억불정책과 전쟁의 어려움 속에서도 불교는 자비문중의 자세로 불교를 지켰다. 전쟁의 어려움 속에서 민중을 구하기 위해 불살생의 계를 어겨도 승병을 일으켜 호국불교의 역할을 또한 다했다. 지금 우리 불교는 동체대비의 자세와 민족을 위한 자세로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파 대종사는 민족 문화 중요성을 강조하고 수호하는 자세를 요구했다. 대종사는 “나라가 망해서 없어져도 민족의 문화가 살아있으면 회복 할 수 있다. 민족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배워야 한다. 우리 불교계는 민족 문화와 정신을 지키고 발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종정예하 자비 화합 주제 법어
“불교, 동체대비 실천 나서야”
민족문화 수호자 역할도 강조
진우 스님 “종단 화합에 최선”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종정 예하의 가르침을 받들고 종단 화합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진우 스님은 “종단의 모든 소임자는 종정예하와 원로 스님들의 가르침을 받들어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한국불교의 자긍심을 드높여 종단 발전과 새로운 천년의 중흥을 위해 진심으로 소통하고 신심으로 포교하며 공심으로 원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가 1월 9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열린 신년하례에서 신년 법어를 내리고 있다.

스님은 “세계적으로 종교에 대한 의지가 약화 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고 보고 불교 또한 위기를 직감하고 있다. 이러한 때 제37대 종단 집행부는 간절하고도 절박한 심정으로 제2의 불교 중흥이라는 중차대한 도전에 혼신의 힘을 다 쏟고자 한다”면서 “그 일환으로 1000년 전에 조성되어 넘어져 계신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반듯이 일으켜 세움으로서 불교 중흥의 발판으로 삼아 미래 천년을 세우는 계기로 삼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과 코로나 감염병이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또한 기후위기와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소외된 이웃들의 고난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 모두 ‘증오와 분노로 거칠어진 마음 밭을 인내와 용서하는 화해의 덕성으로 인간의 뜰을 소생시키라’는 종정 예하의 신년 법어를 마음 깊이 새겨 조속히 전쟁이 끝나고 모든 인류가 평안해지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신년하례법회에는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원로의장 학산 대원 대종사를 비롯해 무봉 성우 대종사, 두산 일면 대종사, 상월 보선 대종사, 지공 철웅 대종사, 자광 원행 대종사, 불영 자광 대종사, 익산 도후 대종사, 삼이 우경 대종사, 보륜 성오 대종사, 대궁 종상 대종사, 여산 정여 대종사 등 원로 대덕 스님들이 자리했다. 또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호계원장 보광 스님, 교육원장 혜일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을 비롯해 교구본사 주지 스님과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이 참석했다.

‘천년을 세우다’ 불사 대장정 첫걸음

조계종 제37대 집행부 주요 종책사업인 경주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와 명상센터 건립 불사를 추진하기 위한 대장정이 시작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은 1월 11일 서울 HW컨벤션센터에서 ‘천년을 세우다’ 추진준비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천년을 세우다’는 조계종 37대 집행부의 핵심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슬로건으로 ‘과거 천년’을 세워서 ‘미래 천년’을 열어가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과거 천년’은 열암곡 마애불을 바로 모시는 불사를, ‘미래 천년’은 진우 스님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명상센터 건립과 미래세대 포교 등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미래 동력을 결집하는 불사를 의미한다.

이날 발족한 추진준비위원회는 추진위원회가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마애불 입불과 명상센터 건립 불사의 범불교적 원력과 동력을 결집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1월 11일 발족식… 추진위원 등 위촉해
진우 스님 “마애불 입불, 성스러운 불사”
불사 동력 결집해 4월 19일 추진위 출범

추진위원회 증명은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가, 추진위원장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맡았다. 자문위원으로는 불국사 관장 종상 스님, 은해사 회주 돈명 스님, 직지사 회주 법등 스님, 고운사 회주 호성 스님이 위촉됐으며, 추진위원에는 교구본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주요신도단체장, 문화재 전문가, 교계 언론 대표, 불자대상 수상자 등이 참여한다.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추진단장은 불국사 주지 직무대행 종천 스님과 문화부장 탄원 스님이, 명상센터 건립 추진단장에는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 지역불교 활성화 추진단장에는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 미래세대 인재 양성 추진단장에는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이 각각 위촉됐다.

또한, 추진준비위원회는 교구본사 주지, 중앙종회 의장단 · 상임분과위원장, 재가대표 등 10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추진위원회 출범의 준비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부처님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며, 우리 모두의 본성을 회복하는 성스러운 불사”라며 “열암곡 부처님을 일으켜 세움은 자연스럽게 중생의 고통을 여의는 아란야 명상센터를 건립하는 불사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그것은 지역불교활성화이며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사업과도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세우기 추진을 위해 모이신 사부대중은 한국불교의 중흥과 뭇 생명의 평안과 행복을 구현하는 공동체의 원력보살”이라며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를 통해 ‘종단중흥과 국민행복’의 시대를 상징하는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일으켜 세우고, 미래 천년을 위한 불사 회향의 그 날까지 함께 정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추진준비위원회 발족식 이후 조계종 미래본부는 본격적인 동력 결집에 들어간다. 미래본부에 따르면 1월 25일부터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앞에 매일 기도 정진에 들어간다. 기도는 도감 본오 스님을 중심으로 경북 5개 · 경남 3개 본사 스님들이 참여하는 기도법사단이 구성돼 기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올해 중으로 열암곡 마애불 보존관리 방안 연구용역 세미나를 열고, 내년 입불 실대형 모의실험을 거쳐 2025년 마애불 입불을 추진한다는 게 조계종의 복안이다.

또한 순례기도 프로그램 개발, 모연방법 등 대중사업 내용 준비, 사회각계 인사 추진위원 섭외 등도 이뤄진다. 미래본부는 이 같은 동력 결집을 통해 오는 4월 19일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를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은 1월 11일 ‘천년을 세우다’ 추진준비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추진위원회 자문위원에 불국사 관장 종상 스님, 은해사 회주 돈명 스님, 고운사 회주 호성 스님, 강창일 前 주일대사를 위촉하는 모습.

진우 스님 “사찰림 보존 협력하자”

1월 12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 예방서 강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사찰림 보존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예방에서 진우 스님은 “국립공원 내 종단 사찰이 340여 곳이 있고, 사찰 소유 토지가 공원 내 면적의 7%에 달한다”면서 “이런 사찰림이 지금까지 잘 보존될 수 있던 것은 스님들의 노력과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사찰림의 역할은 더 확대될 것”이라며 “사찰림 보존과 활용에 대한 종단과 정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기회로 불교계가 그간 상당 부분 (보존과 관리에)기여해 온 점을 알 수 있었다”며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이날 예방에는 총무원 기획실장 성화 스님과 사회부장 범종 스님,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배연진 환경부 자연공원과장,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김도헌 국립공원공단 기획예산처장 등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세종 전통문화체험관 · 대통령기록관 MOU

문화프로그램 공유 약속

세종 전통문화체험관(관장 동환)과 대통령기록관이 교류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월 11일 세종 전통문화체험관 문화체험실에서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은 견학 · 체험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와 기관 간 상호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기록관과 세종 전통문화체험관 공동 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협력과 지원, 교육 · 전시 · 홍보 · 연구 및 이를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상호 교류 협력, 양 기관의 각종 정보와 결과물의 공유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두 기관은 중장기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동시에 공동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계획의 일환으로 대통령기록관에 방문하는 연간 2000여 명의 전국 학생들에게 세종 전통문화체험관에서 문화프로그램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와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기록물의 전시와 공개 열람, 교육, 홍보까지 겸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이다. 세종 전통문화체험관은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에서 시민의 문화 여가 생활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세종시 세종동에 2022년 8월 개관한 문화체험관이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2023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안내

옥천범음대학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고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불교의식, 불교음악, 불교무용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반인 및 학승을 모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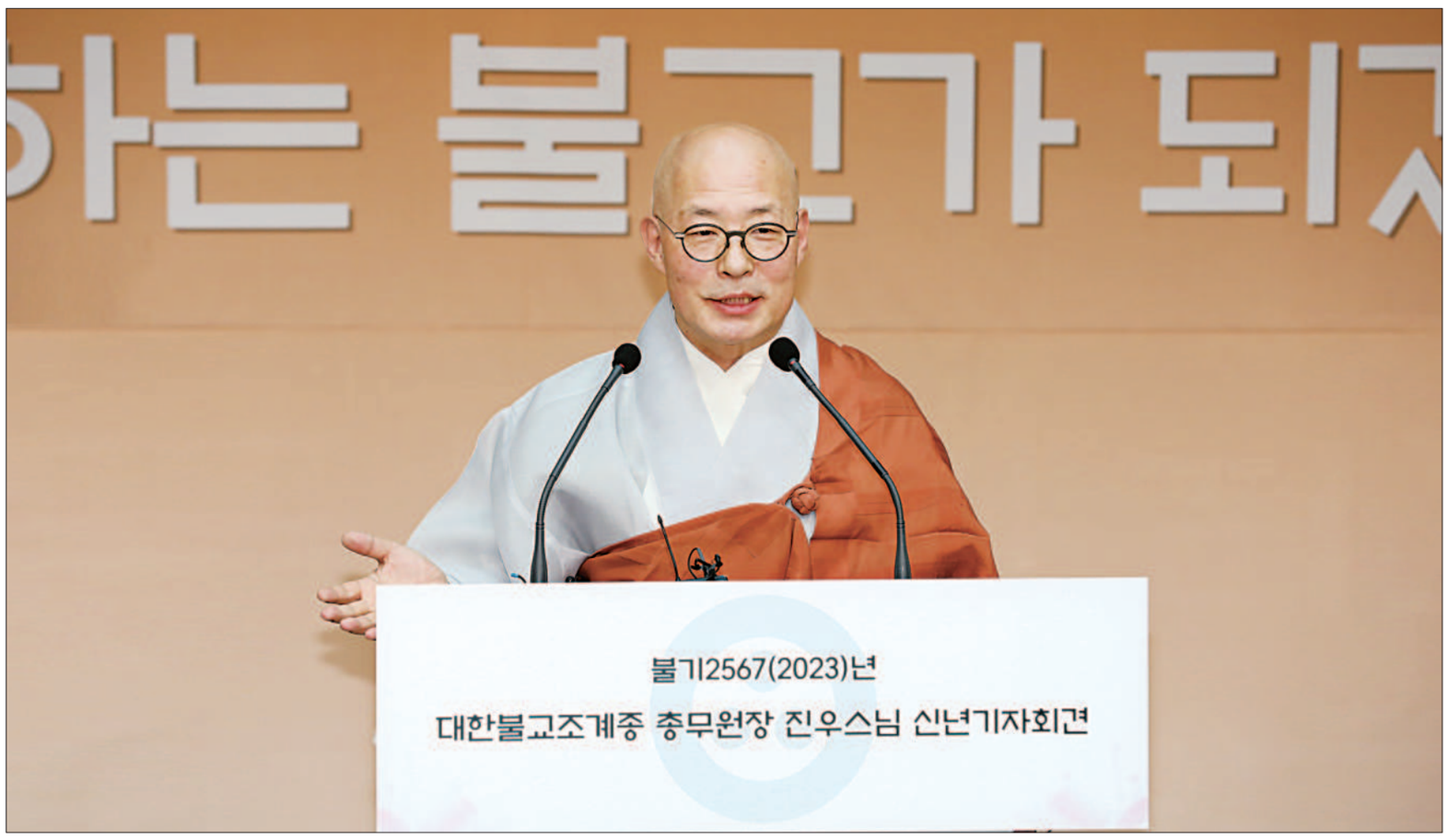
교 과 과 정

학 과		교육 내용	요일	시간	모집인원	담당교수
1학년	상주권공	상주권공	월	오후1시~5시	○○	김태호 스님
2학년	각 배	각 배	수	오후1시~5시	○○	조인각 스님
3학년	실 기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불공, 시식	목	오후1시~5시	○○	이기봉 스님
4학년	영 산	영 산 재	금	오후1시~5시	○○	마일운 스님
불교의식 이론		영산재의 불교예술적 특징	화	오후1시~4시	○○	심만춘 스님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 | 수 료 과 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 무용과) 등 일반인
편입학과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 제출서류 | 수 료 과 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 전형일정 | 2023년 1월 1일 ~ 2월 28일
■ 개 강 | 2023년 3월 첫째주 월요일(3월 6일)
※개강 이후 3월 중 입학신청 가능
■ 전 형 료 | 50,000원(학생회비)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교학처 및 전화 접수 홈페이지 접수
■ 특 전 | 1.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
2.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 혜택 부여, 국내외 공연시 우선 선발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장 김태호 합장
037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Tel : 02)392-3234 Fax : 02)392-3239 홈페이지 : www.okchunbud.kr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1월 11일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소통 · 복지 · 문화로 성장 동력 세운다

키워드로 본 진우 스님 신년기자회견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 이후 첫 신년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발표된 기자회견문을 살펴보면 진우 스님이 이끄는 제37대 집행부의 방향성을 읽을 수 있다. "신뢰받는 불교, 존중받는 불교, 함께하는 불교를 구현하겠다"고 밝힌 진우 스님은 △불교의 사회적 소통 강화 △승려복지 강화 △한국불교 문화적 자긍심 고취를 주요 핵심 과제로 꼽았다.

소통 강화 진우 스님이 밝힌 첫 핵심 과제인 '불교의 사회적 소통강화'는 주요 공약이었던 명상센터 건립 등을 골자로 한다.

명상센터는 서울 용산에 들어서며, 어느 정도의 진척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에서 진우 스님은 "서울도심권에 명상센터를 만들고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명상을 연계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며 "서울도심권 명상센터는 현재 부지가 확보됐고,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단계에 있다. 또한 제주와 전라, 경북권의 지자체에서 관심을 보이는 곳이 있어 관련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명상센터에서 사용될 프로그램 개발도 이뤄진다. 오는 2월에 조계종 명상프로그램 기획위원회가 구성되며, 2024~2025년 명상프로그램을 완성 및 검증과정을 거쳐 2026년 조계종 명상프로그램을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의제 실천과 대사회 소통을 위해 각종 위원회들이 강화되는 점도 눈여겨볼만 하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사회부 관련 위원회의 역할을 분석하고 재정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해 활동하는 사회노동위원회의 활동 역량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탄소중립 소위원회 구성도 추진된다.

승려복지 강화 승려복지 강화는 안정적인 승가공동체를 구현하는 데 필수적 요소로, 스님들의 초고령화에 대한 대비이기도 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진우 스님은 종단 직영 요양병원 인수 · 운영 계획을 밝혔다. 인수할 요양병원은 의료법인 인덕원이 운영 중인 파라밀 요양병원으로 경기도 안성에 소재하고 있다. 인수 절차는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조계종은 1월 4일 '대한불교조계종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령'을 입법예고 했다. 이를 살펴보면 의료법인 명칭은 '의료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이며 승려복지 관련 의료시설 설치 · 운영을 비롯해 승려 의료복지 연구조사, 홍보, 자원봉사센터 사업 등을 시행토록 명문화됐다.

입법예고를 거쳐 종령이 제정되면 오는 1월 20일 의료법인 인덕원과 인수인계 협약 체결이 이뤄지며, 5월 중 개원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승려노후복지를 위한 종합적 복지시스템 구축도 추친된다. 올해 중 승려복지회를 중심으로 승려복지 현황과 모범사례 조사가 이뤄지며, 이를 토대로 2025년까지 승려복지 통합지원 서비스가 구축될 예정이다. 또한 2026년까지 승려복지 제도 및 법령 개선, 전산프로그램 운영 등 승려복지 관련 시스템 전반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불교 문화 진우 스님이 제시한 '한국불교 문화적 자긍심 고취'는 경주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 불사를 주요 골자로 한다. 이는 '천년을 세우다'라는 슬로건 하에 추진되며 조계종은 1월 11일 '천년을 세우다' 추진준비위원회를 발족하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다.

추진준비위원회는 교구본사주지, 중앙종회 의장단 · 상임분과위원장, 재가대표 등 10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추진위원회 출범의 준비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추진위원회는 오는 4월 19일 출범할 예정이다.

또한 1월 25일부터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앞에 매일 기도 정진이 이뤄지며 전국 사찰에서 축원도 진행된다. 조계종은 올해 중으로 열암곡 마애불 보존관리 방안 연구용역 세미나를 열고, 내년 입불 실대형 모의실험을 거쳐 2025년 마애불 입불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통 강화
서울 용산에 명상센터 건립
'조계종 명상프로그램' 개발
사회노동위 역할 강화될 듯

승려복지
안성 파라밀병원 인수 추진
의료법인 설립 시행령 입법
통합지원 서비스 구축 계획

불교 문화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
연구 거쳐 2025년까지 완료
오는 4월 19일 추진위 출범

국제포교사회장 정혜 스님 취임

조직 강화 및 해외포교 활성화 추진 내걸어



국제포교사회 제13대 회장으로 정혜 스님<사진>이 취임했다. 국제포교사회는 1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신년법회 및 정기총회를 열고 국제포교사회장 이취임식을 거행했다.

제12대 회장에 이어 13대 회장으로 취임한 정혜 스님(현 고창 마하사 주지)은 국제포교사회 창립 이후 첫 스님 회장으로, 임기는 2023년 1월 1일부터 2년간이다.

정혜 스님은 회장 취임사에서 "국제포교사회 창립 이래 회장단과 모든 회원들이 쌓아온 업적을 계승하여 더욱 발전하는 국제포교사회를 만들겠다"며 "부처님 한 분 성불해 불교가 전 세계로 퍼져 나갔듯이 국제포교사 한 사람의 발심이 온 세계 사람을 발심시킬 수 있다는 원력으로 매일 매 순간 발심하고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스님은 우선 내부조직을 강화하고, 해외포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2명의 수석부회장(국내 및 국외) 체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호남제주지부와 해외지부를 신설하여 조직을 확대하고 국내외 포교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제포교사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국제 포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부 내 위원회를 두어 양성과정을 전문화하고, 교재를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일관성 있는 교육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동국대 학생들 "새터민 학우 쾌유 기원"

불의의 사고 당한 북한 출신 학생위해
동국대 구성원들 기도법회, 모연 활동

불의의 사고를 당한 북한 출신 동국대 학생의 안타까운 사연에 동국대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장학생 및 학생대표들과 교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소정의 병원비를 모금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는 1월 11일 교내 정각원 법당에서 동국대 재학생이자 새터민 A학생의 완쾌 발원 기도법회를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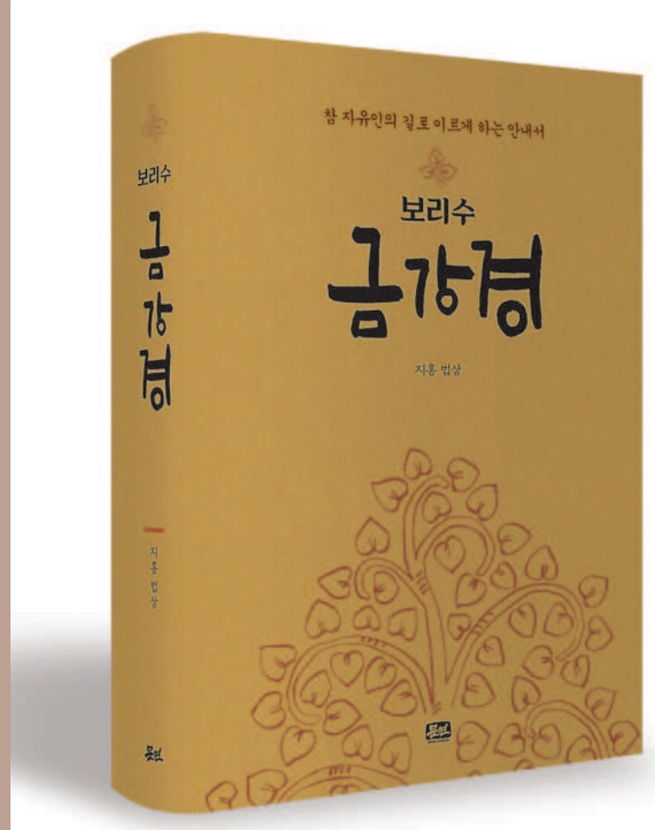
법회에는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 윤성이 동국대 총장, 곽채기 교무부총장, 정각원장 진명 스님과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학생 대표들과 건학위원회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학생들도 함께 참석해 학생의 완쾌를 기원했다.

A학생은 북한 출신 동국대 재학생으로 지난달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다. 늦은 나이에 탈북하고 현재 가정을 이루고 있으며, 학업의 꿈을 포기할 수 없어 2021년 동국대에 입학했다. 금전적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 생활에 적응해 공무원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6월로 지난달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다. 늦은 나이에 탈북하고 현재 가정을 이루고 있으며, 학업의 꿈을 포기할 수 없어 2021년 동국대에 입학했다. 금전적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 생활에 적응해 공무원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6월 동국대 건학위원회가 추진 중인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사업의 장학생으로도 선발된 바 있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우리 대학 재학생이자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학생인 A군이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압록강을 건너왔던 의지처럼 지금의 어려운 순간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1월 11일 교내 정각원 법당에서 동국대 재학생이자 새터민 A학생의 완쾌 발원 기도법회를 봉행했다.



참 자유인의 길로 이르게 하는 안내서!

반야의 묘지를 전하는 금강경,
금강의 활과 반야의 화살로 사상의 과녁을 깨뜨려라

금강경은 수행자에게 공혜(空慧)로써 체(體)를 삼고, 무상(無相)으로 종(宗)을 삼아 모든 법이 무아(無我)임을 일러주신 경이다. 그런 점에서 금강경은 부처의 길로 이르게 하는 안내서이다.

금강경의 본지는 파이집 현삼공(破二執 現三空)으로, 파이집(破二執)은 아집(我執)과 법집(法執)을 깨트리면 아공(我空)·법공(法空)·구공(俱空)이 드러나게 된다는 가르침이다.

불법은 광대한 바다와 같아서 믿음으로 증입(證入)할 수 있고 지혜로 건널 수가 있으므로 여기서 여시(如是)라는 것은 바로 믿음이다. 중생들의 마음속에 청정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사람은 불법에 증입할 수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법에 증입할 수가 없다.

보리수 금강경

920쪽 | 55,000원



지홍 법상
김해 정암사 주지. 2021년부터 현재까지 법보신문에 〈사찰에서 만나는 주련〉을 연재하며 『사찰에서 만나는 주련』과 『불교 재齋의례 게송』(2022년 문학연대)을 출간하였다.

문연 Literary Solidarity 주식회사 문학연대는 사람의 삶에 서정을 입히고, 장르를 넘어서는 문학의 세계를 꿈꾸는 출판 기업입니다.

30주년 앞둔 생명나눔, 2023년은 '도약 원년'

1월 10일, 본부서 신년 간담회
조혈모 세포 실기증 당부 위한
'약속' 캠페인 전개…배지 배포
일면 스님, 선한 영향력 발휘로
"불교 대표 법인 발돋음" 발원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내년 출범 30주년을 앞두고 올해를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4년 출범 30주년을 앞둔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가 2023년을 시작하며 캐치프라이즈로 '생명나눔 도약의 원년'을 내걸고 적극적인 활동에 나선다.

생명나눔은 1월 10일 서울 본부 사무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3년 활동계획을 밝혔다.

이날 이사장 일면 스님은 "부처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1994년 설립된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시대에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목표로 장기 및 조혈모세포 희망등록사업, 환자치료비 지원사업,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사업, 불우이웃돕기 사업 등을 전개하며 29년간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는데 진력해 왔다"면서 "30주년을 앞두고, 29년이 되는 올해를 불교계를 대표하는 공익법인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올해 △정기 후원자 1만 명 추가모집 △연간 후원금 50억 달성 △환자치료비 연간 5억 원 지원 △불우이웃 돕기 연간 1억 원 지원 △동아리 장학금 연간 5000만 원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신년계획에 앞서 공유된 2022년 사업성과에 따르면 생명나눔은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 속에서도 장기기증 희망등록 사업 목표의 100% 이상을 달성, 3182명을 모집하는 성과를 얻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동국대 등과 협력, 적극적인 캠페인과 홍보를 벌인 결과다. 2021년 대비 캠페인 횟수는 297%, 2020년 대비 457% 상승했다.

조혈모세포 희망등록의 경우도 70여 차례의 캠페인을 통해 2250명을 모집하며 달성율 100%를 달성했다. 그 결과 지난해에만 51명의 백혈병 환자들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 이밖에도 환자 치료비 지원의 경우 44명에게 1억2302만 9900원을 전달했으며 기초생활수급 400가구에게 1600만원 상당의 이불과 식품키트를 후원하기도 했다.

올해 생명나눔은 지난해 상승세를 이어받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더욱 긴밀히 협연, 전국 복지관에서 직원을 넘어 내방객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확대 실시할 뿐 아니라 종립학교와 사찰, 대학 등으로 외연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반응이 좋았던 고양국제꽃박람회 등과 같은 지역행사에도 적극 참석, 홍보 및 포교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또 질병관리청과의 업무 연계를 통해 운전면허시험장 내 홍보 부스도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조혈모세포 실제 기증자를 늘리기 위한 '약속' 캠페인도 전개한다. 생명나눔실천본부에 따르면, 백혈병은 조혈모세포를 기증받는다면 70% 이상 완치 가능하다. 그러나 희망등록자 중 50%만이 기증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이에 생명나눔은 실제 기증자를 늘리기 위해 전국 대학들과 협의, 접수 및 교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캠페인에 동참한 이들에게 약속 배지를 지급, 기증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실제 기증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일면 스님은 기자간담회 말미, 익명의 후원자들을 소개해 간담회를 훈훈하게 했다. 일면 스님은 "지난해 연말, 신문 인터뷰 보도 후 익명으로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들이 10여명, 금액으로는 1000만 원이 넘는다"면서 "돼지저금통과 손편지를 두고 황급히 본부 사무실을 나간 이름 모를 후원자들의 뜻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올해도 생명나눔은 열심히 전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계사를 세계 1위 도량으로 만들겠다"

조계사, 제27대 신도회 출범식
1월 10일 이승현 신도회장 취임
"신명나는 도량 만들겠다" 다짐



이승현 조계사 신임 신도회장은 27대 신도회 출범식에서 "조계사를 신명나는 도량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국불교 1번지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의 신임 신도회장으로 이승현(법명 무애) 인팩코리아 대표가 취임했다.

조계사는 1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제27대 신도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이승현 대표를 제27대 신도회장으로, 전임 김의정 신도회장을 명예회장으로 부촉했다.

이날 취임한 이승현 조계사 제27대 신도회장은 삼성맨 출신 중견 기업가다. 1958년 해남 땅끝마을 건너 아름다운 섬 어룡도에서 태어난 이승현 신임 신도회장은 거북선을 만들고자 한 꿈을 이루기 위해 학교 졸업 후 조선소에 취업해 설계 등을 담당했다.

삼성이 반도체 · 통신 사업을 본격화했을 때 삼성전자로 옮겨 1992년부터 약 10년간 일본 주재원으로 근무했다. 2006년 삼성을 퇴사한 후 스마트폰, 디지털 TV, 자동차 등의 핵심부품인 수동소자류와 GPS안테나를 제조해 삼성전자와 LG에 공급하는 인팩코리아를 경영하고 있다. 2022년부터 조계사 신도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신행활동을 해왔다.

지현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신도회 임원으로 위촉된 신도들에게 자긍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신도회 임원)여러분은 모두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조계사의 얼굴로 활약하게 될 것"이라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조계사의 새로운 역사가 될 것이다. 그러니 제일 먼저 임원으로써 자긍심과 자신감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조계사는 한국불교 총본산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신도조직과 내실을 갖춘 신도 교육, 믿음과 실천이 함께 어우러지는 신행의 모범도량을 구현해 나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승현 신임 신도회장은 조계사를 '세계1위 도량'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이 신도회장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각 단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라며 "앞으로 소임을 보다 보면 막대한 부담감과 책임감으로 힘들고 지칠 것이다. 그럴 때 저를 찾아달라. 작은 힘이지만 앞장서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우리 조계사가 더욱 활기찬 도량 아름답고 신명나는 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조계사를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1위 도량으로 바꿔놓겠다"고 다짐했다. 신성민 기자

포교원, 경주·부산·원주 순례길 개발

순례길 3곳 안내 팜플렛 발간
지역특성 · 스토리텔링에 주안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이 경주, 부산, 원주 등 경북, 경남, 강원지역 스토리텔링을 겸한 순례길을 담은 팜플렛 3종을 공개했다.〈사진〉

이번에 발간된 '경주 천년미소의 길', '부산 해수관음길', '원주 치악산 사유의 길'은 경북, 강원 지역의 사찰에 관한 이야기를 곁들인 순례길 안내서다.

먼저 '경주 천년미소의 길'은 경주의 주요 유적지와 산책로를 연결하여 불국토를 꿈꾸었던 신라인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경주 순례길은 분황사에서 출발하는 두 코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코스는 분황사와 알천자전거길을 거쳐 불국사 문화회관에 이르는 길이고, 제2코스는 분황사를 출발하여 황룡사지, 첨성대, 월정교, 인왕동사지 등을 거쳐 다시 분황사에 도착하는 길이다.

'부산 해수관음길'은 넓은 부산 앞바다가 펼쳐진 해파랑길을 걸으며 해동용궁사의 관음신앙을 느낄 수 있는 길로, 해월정사를 출발하여 해동용궁사를 거쳐 해광사에 이르는 해안 산책로를 따라 순례하는 길이다.

마지막으로 '원주 치악산 사유의 길'은 구룡사와 국형사에 전해오는 전설을 되새겨보고 치악산의 정기를 받으며 신행과 수행에 관한 사유를 할 수 있는 길로, 구룡사에서 치악산 둘레길을 통해 국형사로 이어지는 순례길이다.

포교원 측은 "지속적으로 순례길을 개발하여 우리 사찰의 아름다운 길에 기억에 남을만한 스토리를 담아 국민들과 함께 힐링하고 사유할 수 있는 수행공간으로 활용해 나갈 예정"이라며 불자대중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조계종 포교원은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지혜의 숲길' 순례프로그램 개발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신행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2022년에는 '허응당 보우의 길', '창원 용지호수의 길'에 이어 '제주 관음순례길'을 발간한 바 있다. 노덕현 기자

美국무부 장학생들 K-불교 매력에 빠지다

문화사업단, 1월 8~9일 백양사서 템플스테이 개최



미국 국무부에서 선발된 우수 장학생들이 한국불교와 사찰음식 매력에 흠뻑 빠졌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명, 이하 문화사업단)은 1월 8일~9일 전남 장성 백양사에서 미 국무부 선발 우수 장학생 및 관계자 28명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사진〉

이번 템플스테이는 뉴욕주립대학 한국학연구소에서 실시한 '미국 국무부 선발 우수 장학생 방한 프로그램'으로 하버드대학을 비롯해 프린스턴대학, 콜린대학 등 미국 명문대 학생 24명과 손희정 뉴욕주립대 교수 등 관계자 4명이 참여했다.

백양사 템플스테이에서는 사찰음식 명장인 천진암 정관 스님과 함께 사찰음식에 담긴 내용과 음식을 대하는 마음 자세까지 배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 학생들은 "사찰음식 시연프로그램이 너무 흥미롭고 재밌었다, 교육적이고 유쾌했으며 값진 경험의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불자는 아니지만 사찰에서 스님들의 일상을 보는 것도 흥미로웠으며, 새벽예불은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행운이었다"며 "걷기명상은 누구나 인생에서 적어도 한 번은 경험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번 기회에 불교와 사찰에 대해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참가 소감을 전했다.

문화사업단은 "위드코로나 시대에 사회적, 정신적 건강한 삶을 되찾기 위한 템플스테이는 한국의 불교와 전통문화로, 사찰음식은 건강한 채식문화로 생명존중을 함양하는 한국의 대표 문화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소중한 체험을 통해 사찰음식과 전통문화를 많이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의 미래를 리드하는 동방불교대학이 새로운 인재를 기다립니다.

동방불교대학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 공고

Ⅰ. 모집요강

1. 본교는 본 종단의 종법(교육법 제19조/22조)이 정한 기본교육기관으로서 출가득도자의 의무교육기관이다.
2. 본 종단의 합동득도 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및 정사(재가승)는 본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승적취적 및 법계 등 각종 자격고시 응시자격을 부여받는다.
3. 본 종단으로 전종하여 입적할 승려는 본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한다.
4. 범패학과 신입생은 매년 1학년 입학을 원칙으로 한다.(편입학 불가)
5. 본교가 개설하고 있는 모든 학과 공히 출가자(사미·사미니 포함)와 재가자 모두 응시 가능하다.
6. 본교는 한국불교태고종이 설립한 종도양성 의무교육기관으로서 정부당국의 인가여부와 무관하다.

Ⅱ. 모집인원 및 편제

학 과	모집인원	편 제	비 고
불교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범패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 접수인원 미달 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Ⅲ. 전형일정

구 분	날 짜	장 소
원서교부 및 접수	2022. 12. 26(월) ~ 2023. 02. 10(금)	· 총무원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 인터넷 교부. 접수 :www.dongbang.org
서류심사 결과 및 합격자 발표	2023. 02. 17 (금)	·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공고 ※입학식 및 학사일정 추후 공지

*입학전형의 서류심사는 학사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Ⅳ. 지원자격

◎ **본교 지원자는 공히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1. 본 종단의 합동득도 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및 정사(재가승)로서 교육이수 의무대상자
2. 본 종단으로 전종하여 입적한 승려로서 교육이수 의무대상자
3.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불교교학·불교의식을 수학하고자 하는 자
4. 본 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불교교학·불교의식을 수학하고자 하는 자

♣ 특전: 본종 승려가 동방불교대학 졸업 시 선덕 법계 품수

Ⅴ.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학 과	제출서류	접수방법
공 통	1.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필수) 2.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필수) 3. 기본증명서 1부(필수) 4. 사진: 반명함판 2매(필수) (득도수계자는 가사·장삼 수한 모습) 5.수계증 사본 1부(해당자) 6. 승적증명서 1부(해당자) 7. 종단간부 추천서 1부(해당자)	1.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직접 방문 및 이메일(dongbang2030@naver.com), 우편 접수 ※ 문의 :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T. 02-745-2030, 010-3089-9983

Ⅵ. 교육비

■ 전형료 : 5 만원
■ 입학성금 : 20 만원
■ 등록성금 : 학기당 70 만원 농협 301-0212-6468-11 예금주/한국불교태고종 동방대불원

▣ 입학문의

한국불교태고종총무원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 www.dongbang.org
우)0306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 31(사간동112)
TEL: 02-745-2030, 010-3089-9983,
FAX: 02-733-0728



월우 스님은…1978년 천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석암 스님에게 사미계를, 자운 스님에게 비구계를 수지했다. 해인사승가대학과 중앙승가대를 졸업하고 경희대에서 행정학 석사, 건국대에서 행정학 박사, 중앙승가대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12, 13, 14, 16대 중앙종회의원, 중앙승가대 총무처장, 제22교구 본사 대흥사 주지, 학교법인 정광학원 이사장,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사진=노덕현 기자





1월 12일 중앙승가대 본관에서 봉행된 취임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주요 인사 700여 명이 참석, 취임을 축하했다. 총동문회 등에서는 교육불사 기금을 전달하며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기원했다.

“승가교육 요람…사회공헌 인재육성”

인터뷰 중앙승가대학교 제9대 총장 월우 스님

김포=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을 대표하는 승가교육기관인 중앙승가대학교 제9대 총장에 월우 스님이 취임했다.

우수 교수진 초빙, 글로벌 인재 양성, 지역사회 봉사 등 대내외 성장을 위한 비전을 제시한 월우 스님은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을 수립, 승가교육의 요람으로서 사격을 일신한다는 방침이다.

월우 스님은 1월 12일 취임법회에 앞서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중앙승가대는 삼보정재로 설립해 불가전통을 계승하는 한편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기관”이라며 “인재불사가 잘 이뤄져 종단과 사회에 부처님 가르침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Q 총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취임 소감을 말씀 주신다면요?

지난해 12월, 총무원장 진우 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이후 승가대학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위한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단 스님들과 교직원, 학인스님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충분히 귀담아 듣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총장으로서 중점을 둔 중장기적인 발전방향과 학교 운영계획이 궁금합니다.

승려전문교육기관으로서 교수들의 연구역량을 키우고, 한국은 물론 세계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수행자를 길러내는 것이 제일의 목표입니다. 훌륭한 교수와 연구원을 영입해 학문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도록 격려하고 강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국내외 학자들을 중심으로 연구업적을 쌓아온 우수한 인재들을 선발, 교육현장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학인들은 열심히 수학해서 수행자로서 품성을 갖추고 글로벌 인재로서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대학은 교수와 학생이 주축이돼야 합니다. 교수들은 활발한 연구로 학술적인 성과를 이뤄나가고, 학인들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한다면 대내외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Q 몇 년 사이 출가자가 감소하면서 기본교육기관마다 학인 모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려움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보완책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난 40여년 간 한국불교의 선지식을 양성하며 한국불교를 대표했던 중앙승가대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여러가지 어려움에 직면해있습니다. 물론, 연간 전체 출가자 수에 비춰보면 우리 중앙승가대 입학생 수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옛 명성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저는 우리 승가대학이 도전해야 할 몇 가지 과제에 집중해 교육체계의 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본교 교육이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창의적이고 확고한 승가교육의 패러다임을 만들고자 합니다.

Q 다양한 주체의 참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지금까지는 스님들에게만 개방된 학교 운영에서 저변을 확대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종단에서 포교사가 1년에 수백 명 배출됩니다. 포교사들과 대학원 과정을 함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승가대학이라는 특수성이 있기에 원칙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종립 고등학교 등 학생들과 함께 ‘단기출가’ 제도를 진행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출가자의 삶을 체험하는 동시에 대학생활도 가능합니다. 대학진학과 함께 승가문화를 경험하면서 출가가 삶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직접 느끼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중앙승가대에서의 단기출가는 대학생으로 승가와 불교문화를 체험해본다는 취지에서 새로운 출가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수 교수 초빙·지역봉사 등
대내외 성장 위한 비전 제시

종단과 소통 동문 지혜 모아
“승가교육의 발전 이루겠다”

Q 총장 스님과 중앙승가대학교와의 인연이 궁금합니다.

22년 전, 10여년 간 학교에서 총무처장 소임을 봤습니다. 제3~4대 총장 종범 큰스님을 모시고 대학원 설립에 힘썼습니다. 또 종단의 주요 행사뿐 아니라 세계여성불자대회와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 다양한 시도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대학의 대소사를 원만히 회향했다고 자부합니다. 모교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소임을 마무리하고 본사인 대흥사 주지 소임과 종단 행정의 중요한 직책을 보면서도 항상 마음은 학교를 향해 있었습니다. 이것이 원력이 된 것인지 다시 인연이 돼 학교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Q 애교심이 대단해 보이십니다. 스님의 학창시절은 어땠나요?

승가대가 막 개교해 교육부 미인가 상태였음에도 전국 각지에서 학인들이 몰려왔습니다. 400여 명이 함께 공부할 때였죠. 신심에 불탔고, 신나게 공부하며 책값을 마련하겠다고 탁발도 불사했습니다. 어른 스님들께 꾸중을 듣기도 했지만 그때의 뜨거운 열정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총장이 된 지금 강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40년 간 성장한 학교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중책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동문으로서 모교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Q 대학은 교육, 연구활동 못지않게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포교와 문화 등 대사회적인 활동을 위한 계획이 있을까요?

중앙승가대가 위치한 김포 풍무동은 인천과 일산 등의 경계에 있습니다. 600~700만 인구가 집중돼 있죠. 지리적 강점을 적극 활용하려 합니다. 김포시민은 물론 대학과 인접한 지역주민들의 열린 공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중앙승가대에는 이미 출중한 교수들이 포진해있는 만큼 시민들을 위한 불교문화, 특히 명상 강좌 등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행과 명상, 치유가 되는 문화 교육으로 사회에 이익이 되고 행복의 길을 선도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특강도 준비 중입니다. 문화, 인문, 철학 등 방면에서 명사를 초청, 강연을 열 계획입니다. 특강은 교내 구성원들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도 공개됩니다. 이를 통해 폭넓은 지식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려 합니다.

Q 중앙승가대는 스님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만큼 동문의 역할도 중요해 보입니다. 동문 스님들의 후원이나 장학기금 유치에 대한 계획 등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중앙승가대 출신 스님들이 종단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사회적인 책임도 큽니다. 그동안 학교가 질적 양적으로 성장한 만큼 2000여 승가인이 합심,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다면 학교위상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승가대 동문들과 함께 ‘마중물’이라는 후원회를 운영중입니다. 한 달에 조금씩 모연된 것으로 장학금 등 다양한 곳으로 회향됩니다. 십시일반의 힘이죠. 우수한 신입생을 확보, 선지식이 꾸준히 배출되기 위해서는 동문들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재정안정을 통한 인재불사와 승가교육 발전을 위해 보시공덕에 동참해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Q 마지막으로 종단과 종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계묘년 새해 중앙승가대학교 총장으로 소임을 시작함에 있어서 토끼 같은 지혜를 발휘해 지금의 역경을 잘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단의 교직자 스님들과 항상 소통하고 동문 선후배 스님들과 지혜를 모아 재가 신도들의 외호 속에서 한 힘 한 뜻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후원을 다시 한 번 바랍니다.

중앙승가대학교 제9대 총장
무생 월우 스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중앙승가대학교 동문 일동
총동문회장 석산 성행 스님

인류를 위하여 연꽃을 피우는
중앙승가대학교 총동문회

경기도 김포시 승가로 123 (중앙승가대학교 자비관 3층) 전화 031-980-7895 팩스 031-980-7891

대불련 부산 '2023년 1080배 참회기도'

1월 6일, 부산 진흥사 무량수전서
동문 · 대학생 5시간 1080배 참회
불자 대학생 포교 · 봉사활동 다짐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가 1월 6일 부산 진흥사 무량수전에서 '2023년 계묘년 1080배 참회기도'를 개최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지부장 장남주, 이하 대불련 부산)가 1월 6일 부산 진흥사 무량수전에서 '2023년 계묘년 1080배 참회기도'를 봉행하고 수행과 포교로 더욱 성장할 것을 다짐했다.

1080배 참회기도에는 진흥사 주지 정법 스님과 장상목 부산교수불자회 회장, 전정순 대불련 총동문회 부산지부장, 최은희 前 대불련 총동문회 부산지부장, 장남주 대불련 부산지부장과 대학생 20여 명이 참여했다. 대학생들은 부산대, 부경대, 동아대, 인제대, 동명대, 대동대, 해양대 등 7개 대학생 불교동아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했으며, 입재식은 삼귀의 및 반야심경과 절 수행 설명 및 격려사 순으로 이어졌다.

절수행에 앞서 진흥사 주지 정법 스님과 장상목 지도교수, 대불련 총동문회 선배들이 인사말로 격려했다. 정법 스님은 "절 수행을 통해 먼저 하심을 배울 수 있다. 그리고 정신과 육체를 단련하고 인내심을 배울 수 있는 수행"이라며 "하심하는 인격과 인내심을 배우고 부처님의 가피를 얻는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상목 부산교수불자회 회장은 "절수행을 하는 학생들을 보니 진심으로 보람을 느낀다"며 "자신을 마주하고 이겨내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오늘 경험을 통해 성공의 자신감을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정순 대불련 총동문회 부산지부장은 "오늘 절 수행을 하는 후배 여러분들이 너무나 대견하고 자랑스럽다"고 말했으며, 최은희 前 대불련 총동문회 부산지부장은 "과거에 우리들도 절 수행을 했었다. 어려운 수행이지만 성장을 하는 귀한 시간이다. 여러분들도 해낼 수 있다"고 격려했다.

대학생들은 1080배 참회기도에서 절수행을 안내하는 영상과 기도문에 맞춰 절을 하기 시작했다. 굳은 결심을 보이며 힘차게 절을 하던 대학생들은 시간이 흐르자 한두 명 두꺼운 겉옷과 목도리를 벗기 시작했고, 법당에 가득 찬 뜨거운 열기로 닫아두었던 법당문까지 열어야 했다. 좌복에 깔아둔 흰 수건에는 땀방울이 떨어졌고 잠시 멈춰서는 학생들도 눈에 띄기 시작했다. 멈춰 선 학생들은 이내 선배들의 절 속도에 맞춰 다시 절을 하며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다.

절을 시작한 후 5시간이 넘게 흘렀고 마침내 마지막 1080배를 마치자 학생들은 "해냈다"고 박수를 치며 서로를 격려했다.

김대원(대동대) 학생은 "지금까지 108배는 해봤지만 1080배는 처음"이라며 "도반들과 함께했기에 가능했고 이번 한 해 스스로를 이겨내는 마음과 부처님의 가피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다. 뿌듯하다"고 말했다.

김도영(동명대) 학생은 "불교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해서 기쁘고 2023년에 도전하고픈 계획들이 있다. 잘 되었으면 좋겠고 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장남주 대불련 부산지부장은 "요즘 학생들은 지레 겁을먹거나 포기하는 일이 있다"며 "이번 절수행은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고 해낼 수 있다는 용기를 얻고 2023년 힘찬 출발을 기원하기 위해 기획했다. 절수행을 해낸 우리 모두가 대견하고 2023년 모두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는 부산대, 부경대, 동아대, 인제대, 동명대, 대동대, 해양대 등 7개 대학교 학생 250여 명이 참여 중이며 매년 부처님 오신날을 비롯한 불교행사 봉사와 템플스테이, 학교 내 포교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부산불교聯 · 총연합신도회 신년하례회

2030부산엑스포 유치협력 MOU 체결도



부산불교연합회(회장 보운)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회장 박수관)는 1월 6일 부산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불기 2567년 부산 불교계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신년하례회를 통해 부산불교연합회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는 승가와 재가의 화합과 결속을 다짐하고 부산 불교 중흥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발원했다.

행사는 △개회선언 △삼귀의 △내빈소개 △신년하례 △2030부산엑스포 MOU체결 △공로상 시상 △신년사 △격려사 △내빈축사 △축가 △축하떡 나누기 △건배제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신년하례회에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보운 스님, 수석부회장 영제 스님, 상임부회장 현강정사, 마나 스님, 前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 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 원허 스님,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 부산지역 각 종단 대표 및 부산시 구 · 군 연합회 회장단 스님, 조계종부산연합회 임원진 스님 등 여러 대덕 스님들과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서병수 국회의원, 서은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부산 불교계 지도자 및 부산시 각 행정기관 대표자 등 사부대중 600여 명이 동참했다.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보운 스님은 신년사에서 "우리 모두는 불자라는 공통점을 가진 동시에 부산이라는 지역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우리의 원력은 곧 불교의 중흥을 이루고 부산의 지역발전을 성취하는 것"이라며 "그간 부산불교의 역사와 정신을 이어온 여러 대덕스님들의 정신을 받들어 한국불교중흥에 앞장서는 부산불교연합회가 될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발원했다.

박수관 총연합신도회장은 "승가와 재가 할 것 없이 현실을 되돌아보고 역할과 책임에 소홀함이 없도록 불교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일반 시민을 감동시키고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진정한 수행자 정신으로 종교적 본분을 다해 사회적 고통과 마음을 치유하는 불교가 되자"며 "저희 불자들은 불교계의 화합과 소통을 위하여 각 종파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과 사찰이 참기도 도량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신년사를 전했다.

이어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축사를 통해 부산발전과 화합에 힘써온 부산불교계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부산불교계와 부산시가 '2030부산엑스포 MOU체결식'을 가지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에 부산불교계가 적극 동참하기로 협의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사단법인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백명숙)와 남다른 열정으로 각종 신행 활동으로 정진한 장병주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사무총장이 부산시장상을 수상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대운사, 혜욱 대선사 20주기 추모다례재

서칠교 작가, 학생 등 일해장학금 수여



부산 송정 대운사(주지 주석)는 1월 7일 경내 법당에서 일해당 혜욱 대선사의 원적 20주기를 추모하는 '일해당 혜욱 대선사 열반 20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성 스님(前 범어사 주지), 성정 스님(前 법주사 수정암 감원), 진범 스님(문경 봉암사 주지), 주석 스님(대운사 주지), 일해 선사 문도 스님들을 비롯해 신명환 대운사 신도회장, 박대건 다라니회 회장, 최대경 쿠무다 이사 등이 참석했다. 다례재는 △명종 △삼귀의 △반야심경 △헌화 △행장소개 △장학금 수여 △인사말 △추모사 △추모 법어 △추모 공연 △사홍서원 등으로 이어졌다.

대운사 주지 주석 스님은 인사말에서 "평생을 수행자로서 부처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시며 부족한 저희 후학들을 이끌어주셨던 은사스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 20년이 됐다"며 "다례재를 맞이하여 조금 더 옷깃을 여미고 조금 더 정진하며 조금 더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새해를 맞아서 이 도량에서 더욱더 열심히 정진해 나갈 것을 발원하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 마음의 합장을 올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경선 스님은 추모 법어에서 "일해 스님의 전법의 뜻을 이어받아 한국불교에 있어서 새로운 포교 바람을 일으키는 주석 스님께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선사께서 열반에 드시고 20년이 흐른 지금, 선사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신가"라며 "지금 소소히 듣고 있는 여러분 마음의 주인공을 붙잡고 가는 것이 불심으로 사는 것이며 그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며 진정으로 선사를 만나는 길"이라고 정진을 당부했다.

일해당 혜욱 대선사의 유지를 이어 조성된 '일해 장학금'은 쿠무다 명상문화센터 콘서트홀 부처님과 대운사 법당 내 해수관세음보살상을 조성한 서칠교 작가와 초 · 중 · 고학생 등 총 5명에게 전달됐다. 이어 조윤성 재즈피아니스트와 바리톤 성승욱 씨의 추모공연이 진행됐다. 일해당 혜욱 선사는 1931년 경남 합천에서 출생, 1949년 속리산 법주사 수정암에서 쾌유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제방 선원에서 평생 수좌로 정진했으며 2001년 경남 합천 해인사 고불암에서 원적에 들었다. 선사의 상좌인 주석 스님은 지난 2019년부터 혜욱 대선사의 추모다례재를 봉행해 왔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광성사 주지 게시 소남 걀첸 스님 라뙤사원 제7대 방장에 임명



티베트 제14대 달라이 라마가 구랍 30일 인도 보드가야에서 한국티베트불교사원 광성사 게시 소남 걀첸 주지 스님을 남인도 라뙤사원(Rato Dratsang) 제7대 방장으로 임명했다.

광성사는 1월 8일 광성사 법당에서 게시 소남 걀첸 스님의 취임을 축하하는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취임법회는 등공양으로 시작해 달라이라마께 올리는 만다라 공양, 기도문 낭독, 법문 및 라뙤사원 설명 순으로 진행됐으며, 법문 후 신도들은 티베트 카다(Khata, 흰색천)를 게시 소남 걀첸 주지 스님의 목에 걸어주며 축하했다.

소남 스님은 "남인도 라뙤사원은 1000여 년 동안 오랜 전통을 이어오며 현재 130여 명의 대중스님이 공부하고 있는 대가람"이라며 "달라이 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며 방장으로 임명받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포교하라는 말씀을 받들어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뙤 사원은 14세기 중앙 티베트에 창건된 겔룩파의 주요 사원이다. 매년 겨울 한 철 동안 티베트 전역의 스님들이 모여 집중적으로 불교 논리학을 연찬하고 대론하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1983년 인도 카르나타카주 문드고드에 사원이 재건된 후 달라이 라마 존자가 직접 지원하는 몇 안 되는 사원 중 하나로 겔룩파 내에서 중요한 사원이다.

게시 소남 걀첸 스님은 1971년 티베트 라싸에서 태어나 1986년에 인도로 망명하고, 인도 남부 라뙤사원에서 출가해 달라이 라마 존자로부터 사미계를 받았다. 이후 데뿡사원에서 5대 경을 수학하며, 1992년 다람살라에서 달라이 라마 존자로부터 비구계를 받았다. 1995년부터 3대 사찰인 쎄라 · 데뿡 · 간덴사원에서 게시 학위 공부를 시작하여 2000년에 5대 경 중 인명학에 관한 논문을 제출해 게시 하람빠 학위를 받았다. 1993년부터 10년 간 라뙤사원에서 인명학, 반야학, 중관학 등을 강의하며, 2001년 규뙤 밀교사원에서 밀교를 수학하고, 2004년에 밀교 시험을 통과해 낙람빠 학위를 받았다. 2004년 8월 부산 광성사 초청으로 한국에 입국해 〈람림(보리도차제론)〉과 〈입보리행론〉 등 여러 경론을 강의하며 티베트불교를 전하고 있다.

현재 게시 소남 걀첸 스님은 능숙한 한국어로 나란다 전통의 불교 교학을 2044회에 걸쳐 강의했으며, 해당 법문은 유튜브 채널 '광성사 한국티베트불교사원'에서 시청할 수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맑고향기롭게 박수관 회장 자비나눔

유기농 백미 10kg 2260포 기부
고향 여수에 1억 5천만 원 기부



박수관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 회장(YC TEC회장)은 1월 6일 부산진구청 소회의실에서 '2023년 설맞이 이웃돕기 성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달식에서 박수관 회장은 총 7000만 원 상당의 유기농 백미 10kg 2260포를 부산진구청에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박수관 회장과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임원진,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 관계자를 비롯해 김영욱 부산 진구청장이 참석했다.

박수관 회장은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신데 기부라고 내놓은 것이 너무 미미해서 미안하고 죄송스럽다. 쌀 한 톨 한 톨이 모여서 한 가마가 되듯이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결실을 이룬다. 저의 작은 기부가 일상에서 누구나 쉽고 자연스럽게 동참하는 기부문화를 만드는 데 조그마한 도움이 될 수 있길 희망한다"며 "이런 자리가 많이 이뤄져서 사회기부활동이 보편적으로 이뤄진다면 조금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김영욱 부산 진구청장은 "2018년부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년 명절 때마다 저희 구청에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박수관 회장님께 감사드린다. 설을 맞이해 소외된 곳 없이 두루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날 전달된 쌀은 부산진구청을 통해 부산진구 내 각 동사무소에서 독거노인과 저소득 세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도움이 필요한 가정 2260세대에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박수관 회장은 설 명절을 맞아 고향 여수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1억 5천만 원을 기부했다. 박 회장은 법정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장학금과 환우 수술비, 사회복지성금 등 40년 이상 나눔과 봉사를 꾸준히 실천해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범어사, 계묘년 안전기원 사천왕재 봉행

1월 6일 천왕문서
새해 복덕과 안전 기원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보운)가 불기 2567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1월 6일 천왕문에서 사천왕재를 봉행했다.

범어사는 2010년 12월 방화로 소실된 천왕문을 새롭게 불사한 후 매년 화재예방과 부산시민의 안전을 기원하는 사천왕재를 봉행하고 있다. 범어사는 2012년 3월 천왕문 완공 후 매년 음력 12월 보름, 저녁 예불 후 사천왕재를 봉행했으나 올해는 사시예불 시간에 맞춰 진행했다. 오전에 봉행된 사천왕재에는 불자뿐 아니라 오고 가는 관광객 및 참배객이 함께 합장하며 안전한 부산과 행복한 계묘년의 새 출발을 기원했다. 사천왕재에는 주지 보운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으며 불공과 주지 스님 인사말씀 순으로 진행됐다.

주지 보운 스님은 "그동안은 밤에 사천왕재를 봉행했는데 올해는 새롭게 사시예불 시간에 맞춰 불공을 드렸다"며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바라며 복덕이 가득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천태종 광명사, 계묘년 신년하례법회 봉행

포교에 주력하는 한 해 소망



부산 천태종 광명사(주지 춘광)가 1월 8일 지관전에서 2023년 계묘년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주지 춘광 스님을 비롯해 거창 창덕사 주지 갈웅 스님, 향전 스님, 이재동 신도회장, 하진홍 신도부회장, 신행단체 대표와 회원 등 400여 명의 불자들이 동참했다.

신년하례법회는 광명천태차문화보존회 소속 불자들의 육법공양에 이어 갈웅 스님의 인사말, 춘광 주지 스님 법문 순으로 진행됐다.

춘광 스님은 "새해 첫 신년법회에 이렇게 많은 불자들이 참석해 감사하다. 이는 바로 불자 여러분들의 불심이 증명된 것"이라며 "인구감소와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불자가 갈수록 줄고 있어 미래불교가 걱정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어린이와 청년포교에 힘쓰고, 가족 포교에 더욱 앞장서야 한다. 또 매달 한 명씩 포교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춘광 스님과 이재동 신도회장은 신년하례법회에서 신도로 등록한 신도 5명과 생일을 맞은 35명의 불자에게 장미꽃과 불교 서적을 선물하고 축하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포교사단 부산, 동안거 대중공양

1월 10일, 대중공양 100인 분



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단장 송재린, 이하 포교사단 부산)이 1월 10일 범어사에서 '2023년 동안거 법화경 독송 수행 회향'을 기념하는 동안거 대중공양을 올렸다.

포교사단 부산은 80일 간 동안거 법화경 독송 수행을 이어왔으며 1월 15일 회향한다. 법화경 동안거에는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단원 630여 명 40개 팀 전원이 동참했으며 〈법화경〉 10권 전권을 독송했다. 동안거 기간 동안 포교사단은 십시일반으로 보시금을 모았고 매년 수행 기간 동안 대중공양을 올리고 있다.

대중공양에는 송재린 단장을 비롯한 정분남 자문위원, 주태돈 부단장, 최정자 총괄팀장, 강태산 사무국장과 김현이 범어사 포교사회 회장과 임원들이 동참했으며, 공양 메뉴는 겨울철 특식인 찐빵과 김밥, 유부초밥, 과일 등 100인 분을 마련했다.

송재린 단장은 "동안거 기간 동안 포교사들이 〈법화경〉을 독송하고 대중공양으로 회향해 의미가 남다르다"며 "앞으로도 수행하고 실천해 행복한 포교사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한마음선원 청년회, 제13회 전국연합수련회

1월 6일 ~ 9일, 진주 지원 및 지리산 둘레길서 열려
4년 만에 개최…"내 근본 자리에 감사함과 믿음 채워"



진주=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나' 라는 관념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정진하며 걸어가야 하는지 순간순간 배우며 채우고 알아가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너무나도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본원 김성언)

"내 생각들을 내려놓은 2박3일 간은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건 피곤하고 부담스럽다는 마음조차 내려놓고, 분별하는 마음도 내려놓고 대신 그 자리에 웃음과 충만함을, 내 근본에 대한 감사함과 믿음을 채워놓을 수 있었습니다." (본원 구자영)

한마음선원은 본원과 전국 지원 청년회를 대상으로 1월 6일부터 9일까지 '자유인이 되리라' 는 주제로 진주지원 및 지리산 둘레길 일원서 연합수련회를 개최했다. 2년마다 개최되는 전국청년연합수련회는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올해로 4년 만에 열렸다. 1월 6일 첫날 입재식은 진주지원에서 시작됐다.

이 자리에서 진주지원장 혜근 스님은 법문을 통해 "내 마음이 부처면 처처가 모두 부처이다. 여러분들은 내 마음의 근본과 더불어서 같이 간다고 하면 모두가 부처의 자리인 겁니다. 그러니 그 에너지가 얼마나 좋고 이익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크게 발전하는 것도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발전으로 두루 이익 되게 하는 그러한 지혜를 이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게 아주 감격스럽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고 말했다. 이어 혜근 스님은 "실천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해 보지 않으면 자기 지혜가 안 생깁니다. 아무리 큰 스님 법문이 좋고 감흥이 온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해봐야지 진짜 맛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지혜가 생깁니다.



한마음선원은 본원과 전국 지원 청년회를 대상으로 1월 6일부터 9일까지 진주지원 및 지리산 둘레길 일원서 연합수련회를 개최했다.

그러한 실천을 더불어서 하면서 마음 기른다는 생각으로 이번 수련회를 임하시면 나를 바꿀 수 있죠. 그게 우리 공부의 핵심입니다. 나를 바꾸면 내 인연이 다 바뀌는 겁니다. 내 자신의 벽을 넘기는 게 어렵겠지만, 자기를 넘어가야지 자기 근본과 하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는 운전면허증을 따야 진짜 운전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이런 마음을 저마다 세우시길 바랍니다"고 덧붙였다.

이어 둘째 날에는 지리산으로 자리를 옮겨 '내 마음과 만나는 시간, 길 위에서 나를 만나다' 라는 주제로 각 청년회 지도법사 스님들과 200여 청년회원들은 둘레길 걷기에 나섰다.

이번 수련회의 하이라이트는 저녁의 촛불재였다.〈왼쪽 작은 사진〉 참가자들에게는 청년들이 갖고 있는 고뇌를 함께 나누고, 본래 밝은 내면의 근본 자리를 지켜보며 자기 자신은 물론 모든 일체 생명들이 다 밝아질 수 있도록 마음을 내는 시간이 되었다. 마지막인 셋째 날은 다시 진주지원으로 이동해 지원장 혜근 스님의 법문을 끝으로 청년 연합 수련회를 회향했다.

변지영 한마음선원 청년회원은 "몸을 다 던져서 공부하신 지원장스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얼마만큼 공부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지역청소년에 장학금

천곡중 · 호계고에 600만 원
사찰 경내 조경사업 설명회도
2025년 12월 불사 완공 예정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이 지역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지원장 혜안)이 지역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은 1월 8일 대웅전에서 개최한 장학금 전달식에서 울산 천곡중학교 3학년 안은영 학생 등 천곡중학교 학생 15명과 울산 호계고등학교 3학년 배혜령 학생 등 3명에게 각각 20만 원과 각각 1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울산지원장 혜안 스님, 지원 스님, 천주현 신도회장, 윤건우 명예회장 ,울산 호계고등학교 한현숙 교장, 울산 천곡중학교 임복룡 교감, 설영자 학교운영위원장, 선법합창단 및 불자들이 참석했다.

혜안 스님은 법문을 통해 "장학금은 한마음선원에서 한마음으로 마음을 모아 선원의 어린이 학생회 청년회 등 젊은이들이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음을 내어 십시일반 기금을 마련했다"며 "그 마음의 은혜로 어려움과 외로움, 아픔을 극복 하고 마음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어디서나 훌륭한 사람이 되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천곡 중학교 장학생을 대표해 장학금을 받은 안은영 학생은 "이번에 장학금을 받은 것을 계기로 더욱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되고 한마음도리를 공부해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학생이 되고 큰 사람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지난해 송년법회 때 코로나로 인해 취소되었던 어린이회공연이 이어졌다. 김수인 학생의 오라버니 노래에 이어 어린이회 노래 달팽이의 하루, 댄스셀럽이 되고 싶어, 학생회 노래 꿈꾸지 않으면, 댄스 나팔바지공연이 이어졌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의 장학금은 대행 큰스님 생전 소아암 환자돕기행사 때 '신심을 챙겨라' 는 말씀과 함께 울산 북구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을 제안한 이후 울산지원에서는 스님과 신도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성금과 바자회, 팥죽 나누기 등 여러 가지 행사로 보시금을 모아 장학금을 마련해오고 있다.

한편, 이날 울산지원 경내 조경 불사 설명회도 열렸다. 울산지원 조경불사 사업은 택지개발로 2만 4000㎡의 부지에 계절감을 느끼도록 40여 가지의 다양한 나무를 심어 조성될 예정이다. 조경사업은 2025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운문사승가대학, 졸업식 · 명성 강백 전강식



청도 운문사(주지 진성)는 1월 6일 경내 청풍료에서 제59회 운문사승가대학 졸업식, 제11회 한문불전승가대학원 전문과정 졸업식, 제2회 한문불전승가대학원 연구과정 졸업식, 제7회 법계 명성 강백 전강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 주지 진성 스님, 율주 일진 스님, 강주 진광 스님, 학장 운산 스님, 전강제자 및 졸업생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전강식에서는 원경 현견, 원견 정운, 원성 송운, 원서 현서, 원공 성법, 원덕 동우, 원철 동호 스님이 명성 강백으로부터 전강의 증표인 전강첩과 발우, 가사를 받았다.

전강제자 대표 현견 스님은 고불문을 통해 명성 강백을 모시고 전강법회를 봉행하게 되었음을 부처님께 고하고, 스승의 수행과 정진을 본받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며, 바르게 전하기 위해 물러남 없는 정진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

명성 스님은 전강제자들에게 각각 법호와 전강의 증표를 내리고 "대강백이 되어 불교발전에 이바지해달라"고 당부했다.

학감 영덕 스님의 학사보고에 이어 제11회 한문불전승가대학원 졸업식과 제59회 운문사승가대학 졸업식이 봉행됐다. 한문불전승가대학원 연구과정 원각 스님, 전문과정 현묵, 혜철, 동암, 도현, 정현 스님이 졸업장을 받았으며, 명환 스님을 비롯한 23명의 스님들이 운문사승가대학 졸업장을 받았다.

배철완 대구지사장

'성불선원 제석천도' 울산시 유형문화재 지정



울산 '성불선원 제석천도' 가 울산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됐다. 울산 성불선원(원장 혜안)은 구랍 15일 조선 후기 불교회화의 시대적 특성을 보여주는 '성불선원 제석천도' 가 울산시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성불선원 제석천도' 는 세로 112cm, 가로 55.8cm의 크기로 비단천에 채색됐다. 화기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전체적인 작품의 도상과 사용된 안료의 색감으로 미뤄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 경상도 지역에서 제작돼 봉안된 불화로 추정된다.

전체적인 화면 구성은 중앙 의자에 앉아 연꽃 줄기를 들고 있는 제석천을 크게 부각시키고, 앞에는 좌우에 공양물이 든 쟁반을 들고 있는 보살형 천녀 2명과 그 옆에 일월관을 쓰고 홀을 든 제왕형 천자 2위가 시립해 있다. 화면 상부 제석천의 좌우에는 번을 들고 있는 천녀 4위가 배치됐고, 그 뒤로 병풍을 세워 배경을 모두 채웠다.

울산시는 "작품은 안정된 구도의 화면과 유려한 필선, 세필로 그려진 문양의 공교함 등이 잘 드러나 있다"며 "다른 존상도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존상태 또한 양호해 울산시 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로 지정 ·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지정 사유를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지리산 화엄사, 신년하례법회 봉행



지리산 화엄사(주지 덕문)는 1월 7일 화엄원에서 '계묘년 신년하례 및 화엄법회' 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덕문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제19교구 본말사 스님들과 신도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덕문 스님은 법문을 통해 "계묘년 새해에는 자비와 인욕을 실천해야 한다. 세상 모든 것에 자비의 마음을 갖는 것이 불자의 기본이고, 자비도 인욕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덕문 스님은 최근 BTS 멤버 RM과 차담 내용이 기사화 된 것에 대해 "화엄사가 배려가 부족했고, 편하게 쉬게 하지 못했다"고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이어 "굉장히 좋은 생각과 맑은 마음을 갖고 있어서, 오랜 세월 동안 좋은 음악을 통해 마음의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축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화엄사는 전통미술공예학과 이준수, 허윤 학생에게 사회단체 후원증서와 후원금 500만 원을, 류현우, 박소정, 이선주, 허금강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사사자삼층석탑 효사랑 사진 콘테스트 시상식도 진행했다.

특히 이날 화엄사는 '천년의 역사를 지난 화엄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새로운 천년을 맞아 화엄사가 준비해야 할 것' 에 대한 영상을 상영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불교연, 진우 스님 초청 법회



광주불교계가 코로나19 이후 첫 연합법회를 개최하고 코로나 이후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도성)와 광주불교단체는 지난 1월 6일 광주광역시청 대강당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법사로 초청해 성도재일 연합법회를 봉행했다.

진우 스님은 법문을 통해 "세계적으로 종교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지고 있다"며 "불교는 한국의 1700 역사와 함께했다. 근래 들어 불교도 전통문화적인 것 외에도 부처님의 진리를 가슴속에 담고 살아가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 우리 국민이 정체성을 찾고 삶의 행복과 이고득락을 위해서는 불교를 아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을 빛낸 주인공에 대한 시상식과 기금전달식도 진행됐다. 매년 광주지역 불교를 위해 가장 많이 헌신한 재가불자를 대상으로 하는 2022불자대상에는 광주불교연합회 양행선 사무국장이 선정됐다.

이어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혜월)의 불교회관 건립 기금 1000만 원과 조계종 승보회 장학금 전달식도 열렸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고성 가야명상문화원 개원

1월 7일 개원식, 본격 운영



건강한 삶을 위한 심신치유 복합명상문화 공간인 가야명상문화원이 문을 열었다.

가야명상문화원(원장 서병찬)은 1월 7일 경남 고성군 마야면 현지에서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개원식에는 고성 불교사암연합회장 약수암 수운 스님, 통영불교사암연합회장 용화사 종묵 스님, 옥천사 마가 스님, 경주 황룡사 도연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한국불교상담학회장 안영규 교수 등 불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개원식을 가진 가야명상문화원은 소리치유명상, 울림체험, 촛불명상, 행복찾기 절 명상, 숲 명상체험, 오감 명상 혼례체험, 임사체험, 마을 고택체험의 프로그램으로 3월에 개강할 예정이다.

개원식에서는 서병찬 원장의 저서 〈치유명상이 답이다〉 출판 기념식도 함께 열렸다. 또 가야명상문화원은 한국불교상담학회, 상락정사, '연' 힐링명상원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명상치유문화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선운사 성원 대종사 41주기 추모재 봉행



고창 선운사는 1월 10일 대웅보전에서 운기당 성원 대종사 41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 추모재는 죽비 3배에 이어 행장소개, 종사영반, 분향 및 헌다, 입정, 문도인사말, 공지사항의 순으로 진행됐다. 문도를 대표한 혜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은사스님의 41주기 추모재를 준비한 경우 스님을 비롯한 선운사 대중스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은사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더욱 수행정진하겠다"고 말했다.

1898년 고창군 해리면에서 출생한 운기 스님은 석전 영호스님의 법제자이자 전강제자로 선운사 주지와 백양사 강원 강주를 역임하는 등 후학의 교육에 헌신했다. 1982년 세납 84세, 법랍 68세로 입적했다.

한편, 성보박물관에서는 조계종 24교구 선운사 불기 2567년 1차 교구종회가 열렸다. 총무국을 비롯한 교구의 현황 보고에 이어 2022년 결사 및 2023년 예산서에 대한 심의를 거쳐 의결했다. 또 최근 사의를 표명한 교구 선거관리위원에는 무등 스님이 선출됐다. 기타 안건으로는 교구 성지순례에 대한 안건토의와 말사 포교지원비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삼론종, 1월 9일 신년법회 봉행



대한불교삼론종은 1월 9일 계묘년 신년 새해를 맞아 종정 혜승 대종사 주석처인 경기도 포천 보문정사에서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비롯해 종회의장 지경 스님 등 50여 명이 참석해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 종정 혜승 대종사는 "우리 스님들 자신부터 수행자로서의 자세와 우리 삼론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며 "천리길을 가기 위해선 첫걸음이 중요하듯이 종단 시무식으로 계묘년을 시작하는 첫 날,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며 초발심을 강조했다.

이어 총무원장 해불 스님도 인사말을 통해 "교종의 시조인 우리 삼론종의 교육체계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신년 초에 대한불교삼론종 불교대학을 개설하게 되었다. 모두 한마음 한 뜻으로 교종의 유전자를 맘껏 뽐내며 교육을 통한 종단의 재도약을 이뤄내자"고 계획을 밝혔다.

이어 해불 스님은 "토끼와 같은 번쩍이는 지혜를 함께 공유해 화쟁과 번창으로 거듭나는 삼론종이 될 수 있도록 종도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주일 기자

스리랑카 최초 비구니 아라한 사리탑 발굴

사리와 함께 비문 발굴
여성 출가자에 큰 의의
유적 현장에 박물관 건립
비구니승가 재건 기대도

박영빈 객원기자



발굴조사가 진행중인 아눌라 장로니의 사리탑(좌), 사리탑에서 출토된 아눌라 장로니의 사리(우). 사진출처=부디스트 도어 글로벌

스리랑카에 최초로 불교를 전한 포교단으로 아쇼카 대왕의 왕자와 공주였던 마힌다 장로와 상가미타 장로니에 대한 이야기는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스리랑카 최초의 비구니 스님들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지난 1월 4일 해외 불교 뉴스 전문 매체인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 은 스리랑카 최초의 비구니로 아라한과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진 아눌라 장로니(Anula Theri) 스님의 사리탑이 공식적으로 발굴됐다고 보도하며, 스님의 사리도 함께 출토됐다고 전했다.

기원전 2세기, 마힌다 장로와 상가미타 장로니를 대표로 하는 아쇼카왕의 불교 포교단이 스리랑카에 상륙한 이래 스리랑카는 명실상부한 불교국가로 지금까지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상가미타 장로니는 스리랑카에 최초의 비구니 승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테라와다 교단에서 비구니계 맥이 단절 되면서 오랜 세월 비구니 아라한들에 대한 전승과 기억은 잊혀졌다.

1926년, 아누다라푸라 근교의 미힌탈레산에 있는 불탑 유적지가 고고학 유적지로 지정되고, 비문 해독과 발굴조사가 이어지면서 이 불탑이 상가미타 장로니의 제자이자, 스리랑카 최초의 비구니이며 아라한과를 증득한 아눌라 장로니의 사리탑임이 밝혀졌다. 비문에 따르면 아눌라 장로니는 아쇼카 대왕의 포교단이 상륙한 당시 스리랑카의 왕세자비였다. 그러나 마힌다 장로의 설법을 듣고 불교로 개종한 후, 출가하여 완전한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상가미타 장로니의 지도를 받아 결국 아라한과를 증득했음이 확인됐다. 비문을 해석한 연구팀은 이것은 당시 인도 밖의 나라에서 아라한과를 증득한 최초의 비구니를 뜻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 유적지가 아눌라 장로니가 다른 비구니들과 함께 머물며 삼장을 연찬하고 설법한 곳이며, 이 탑이 세워질 당시 이곳에는 500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머물렀음도 비문을 통해 확인됐다.

그러나 오랜 세월 유적과 사리탑이 방치되면서 빈번한 도굴과 자연재해 등에 의해 훼손이 이어지면서 2008년, 정부가 직접 보호하는 유적으로 지정하여 지난 2021년 12월부터 공식적인 탑의 발굴 및 복원작업이 개시됐다. 발굴팀은 "탑의 최상층에선 수정상자에 담긴 게송이 새겨진 비문이 출토됐다. 중간부에는 석함과 함께 다양한 유물이 출토됐는데, 석함에서 발굴된 사리는 현재 상가미타 장로니의 사리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굴팀은 최종적으로 지난해 12월 24일 사리탑의 최심부의 사리공에 도달했다. 발굴팀은 "귀금속 장신구들을 포함해 500점 이상의 유물이 출토됐으며, 사리탑의 주인인 아눌라 장로니의 사리도 출토됐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발굴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아눌라 스투파는 고대 비구니 아라한 중 한 명에게 봉헌된 것이 명확하게 증명된 유일한 사리탑으로 발표됐다. 인도 바이샬리 유적지에도 다른 비구니 아라한인 마하파자파티의 사리탑이 있기는 하나, 아눌라 스투파처럼 명확한 증거나 비문 없이 잠정 추정인 상태다.

지난해 12월 26일 발굴팀은 "장차 유적지 현장에 박물관을 세워 사리를 비롯한 유물들을 상시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점차적으로 근처에 다른 장로니 스님들의 사리탑으로 전해지는 불탑과 유적지들에 대한 발굴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부디스트 도어는 "2022년은 세계적으로 여성 출가자들의 활약이 돋보인 해였다. 그러한 해의 마지막에 스리랑카 최초의 비구니 아라한의 사리가 출현한 것은 비구니 승가의 지속적인 재건과 활성화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日, 드론 타고 나는 불상 화제

현대적 재현 '아미타 내영도'
불상 주위로 9구 보살 떠올라



소형 드론에 실려 법당 안을 비행하는 '드론불'. 사진출처=야후재팬 뉴스

최근 일본 SNS에서 '반드시 봐야할 현대 아미타 내영' 이라는 문구로 공개된 영상이 화제다. 소형 드론을 탄 불상이 빛을 내면서 비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은 현재 2.7만회 이상의 '좋아요' 를 받는 등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1월 2일, 일본의 '야후 재팬 뉴스' 는 신비롭고 근미래적인 '드론불' 에 대해 보도했다.

'드론불' 은 2018년부터 일본 불상 조각가 미우라 요잔 씨의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다. 미우라 씨는 "불교에서는 아미타부처님과 보살들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망자를 극락정토로 내려가는 '내영(來迎)' 이라는 신앙이 있다. 일본에서는 고대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내영신앙 모습을 그린 '내영도' 가 많이 남아 있다"며 드론불의 영감은 아미타 내영신앙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미우라 씨는 "나는 오랫동안 '내영의 세계를 입체적으로 재현하고 싶다' 는 생각을 가져왔다. 그렇기에 불상을 공중에 띄우거나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를 계속 모색해 왔다"며 프로젝트의 시작을 설명했다. 이후 미우라 씨와 의기투합한 이케구치 스님이 법회를 겸하여 자신이 주지로 있는 사찰에서 드론불을 띄울 기회를 마련해주면서 지금까지 발전과 개선을 거듭해 왔다.

미우라 씨는 "현재 드론불에 사용하는 드론은 100g이하의 소형타입으로, 적재하중의 제한이 크다. 최초에는 최대한 가벼운 소재의 목불을 드론에 올렸으나 최근에는 내가 조각한 목불을 모델로 불상을 3D프린터로 출력하면서 속이 빈 형태의 무게 약 12g의 '3D프린트 불상' 을 사용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한 대씩 컨트롤러로 조작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프로그래밍을 이용해 편대 비행을 실현시켰다" 고 전했다.

프로그래밍 편대 비행은 사전에 프로그램을 설정함으로써 사람의 조작 없이 컴퓨터로 조정하는 것이다. GPS가 잡히지 않는 실내에서 세밀한 비행 프로그래밍에 난관이 있었으나, 드론불 프로젝트에 흥미를 보인 드론사업체의 도움을 받아 프로그래밍을 완성 시켰다. 이번 프로그래밍을 통해 드론불 편대는 처음으로 아미타불상을 중심으로 9구의 보살을 공중에 띄울 수 있었다.

편대 비행하는 드론불은 이케구치 스님의 절인 류간지(龍岸寺) 법당에서 봉행된 염불법회에서 공개 됐다. 스님과 참가자들이 목탁을 두드리며 염불을 하는 가운데 드론불이 날아올라 프로그래밍 비행으로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는 모습이 SNS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다. 현재 미우라 씨와 함께 드론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팀은 "우리의 최종 목표는 아미타 내영도에 등장하는 아미타불과 25보살의 불상을 드론으로 띄워 내영도를 현실에 구현하는 것으로 오는 봄에 다시 금 개선을 거듭해 대중에 공개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대만 '자재공덕회', 25년째 빈곤 구제

97년 난민지원 시작…25주년
요르단 의료 · 교육 지원 나서



야지드 라시드(6세)가 자재공덕회의 의료지원을 통한 수술 후 회복 중이다. 사진출처=자재공덕회

대만에 본원을 둔 세계적인 자선단체이자 인도주의 단체인 '자재공덕회' 는 최근 요르단 빈곤 구제와 피난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한 지 25주년을 맞이했다고 발표했다. 1월 6일 불교 전문매체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 은 자재공덕회의 요르단 빈곤구제 및 난민지원 25주년 기념성명을 전했다.

자재공덕회는 "97년 계절농장 노동자들의 식량지원으로 시작한 요르단 자선사업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식량지원을 통해 그들이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지원규모가 커졌다. 지난 2022년 기준 11개 농촌, 19개 배급소에서 1,600여명의 취약가정을 지원했다"며 자선사업의 역사와 현재 상황을 전했다.

인구가 1100만 명에 불과한 요르단은 이라크, 레바논, 팔레스타인 등 인근 국가의 분쟁과 박해를 피해 도망치는 사람들의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약 3백만 명에 달하는 이 난민들 중 대다수는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약 150km 떨어진 거대한 난민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다.

자재공덕회는 "난민들이 급증한 2016년부터 요르단에 의료지원 필요성이 급격히 증가했다. 편도선 제거와 같은 경미한 경우부터 개심 수술, 탈장 수술, 담석 제거 등 1000건 이상의 수술로 난민 아동과 성인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자재공덕회는 지난 6년간 155명의 시리아 청소년과 30명의 시리아 대학생, 30명의 요르단 대학생들의 교육을 후원했다. 또한 중고목재를 이용해 가구를 만들거나 헌옷에 그림을 그려 예술과 수공예품으로 활용하는 업사이클링 제품 교육센터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학생들에게 지구의 유한한 자원에 대한 인식과 지역 공동체의 협동심을 기르는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자재공덕회는 "이슬람교도가 대부분인 요르단에서 타종교인 불교 자선단체의 선행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여준 요르단 사회와, 원조를 받는 난민, 전 세계의 기부자 등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전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英, 요크 도심 포교원 확장 이전

개원 2년 만에 확장 이전 재개관
점심시간 활용한 명상수업 인기



확장 이전한 요크 불교센터에서 불자들이 예불을 드리고 있다. 사진출처=더 프레스

영국 잉글랜드 요크시 길리게이트에 개원한 도심 불교 포교원 '요크 불교센터' 가 개원 2년 만에 확장 이전했다. 1월 6일 영국 일간지 '더 프레스' 는 요크 불교센터의 확장 이전 소식을 전했다.

요크 불교센터는 2020년 8월 요크시 중심지 길리 게이트에 개원, 지난해 여름 7월 같은 지역에 확장이전을 결정한 후 10월 공식 재개관했다. 기존 프로그램인 불교교리와 명상 수업이 증설됐으며, 직장인들을 위해 점심시간을 활용한 명상수업도 개설했다. 요크 불교센터는 매주 승가의 밤과 불교입문강좌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포교원장인 샤캬파다(Shakyapada) 는 "요크 불교센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 확장이전을 결정했다. 지속적인 성장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이들의 행복을 찾길 바란다"며 재개원 축사를 전했다.

현재까지 요크 불교센터는 세 번의 수계법회를 봉행했으며 2명이 새롭게 수계를 받았다. 샤캬파다 원장은 "이곳에서는 마음챙김과 같이 현대적인 불교 가르침을 기반으로 더욱 깊이 수행한다. 부처님은 예언자나 전지전능한 신이 아닌 철학자에 더 가깝다"면서 "부처님께서는 대중들의 행복을 바랐고 행복의 비밀을 발견하고 가르쳤고 이 가르침은 내 삶을 변화시켰다. 불만이 가득했지만 가르침을 통해 나는 있는 그대로의 것을 받아들이고 삶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을 배울 수 있다" 고 전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www.boryeon.com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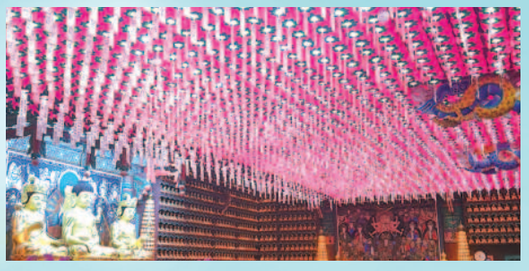
도량장엄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등자동승강장치
원불전, 인등, 위패
각종 시설물 제작·시공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89번길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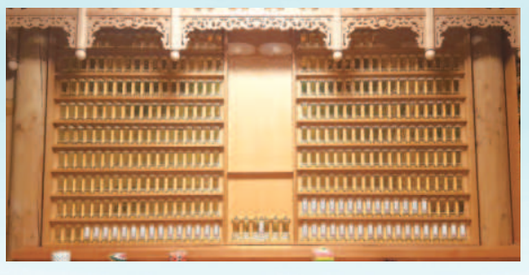
도 량 장 엄 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 등 자 동 승 강 장 치


원 불 전


인 등

위 패


토끼의 지혜·복덕으로 힘껏 뛰는 한 해 기원

원주 명주사 고판화박물관 특별전
'토끼 그리고 부적' 展
1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판화·목판·자료 등 70여 점 공개
한중일 등 토끼 판화·부적 전시
3국의 토끼 관련 자료 비교 기회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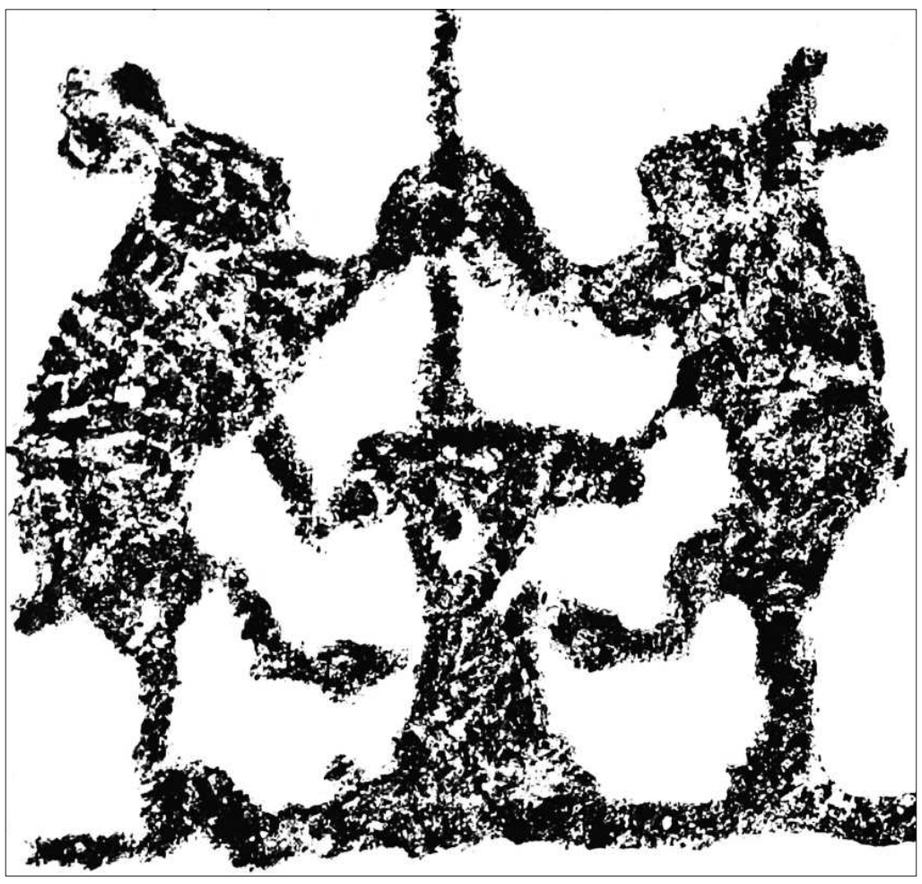
계묘년 설날을 앞두고 토끼 관련 판화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부적관련 판화 자료 등을 소개하는 전시가 열린다. 원주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은 1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개관 20주년 기념 설맞이 특별전 '계묘년 소원성취 기원 : 토끼 그리고 부적'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중국·일본 등지에서 목판화로 제작된 토끼 관련 판화와 판목, 탁본, 우키요에를 비롯해 동 아시아인들이 새해를 맞아 사용했던 소원성취 액막이 부적 판화 등 70여 점을 선보인다.

지혜와 복덕의 상징인 토끼를 의인화한 판화는 집안의 대문에 붙이거나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각종 재난을 극복하고 소원을 성취하는 수호신의 역할을 담당했다.

△한국 작품으로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화조도 채색판화인 '달과 토끼'를 비롯해 문자도 '치(恥)' 자에 표현된 토끼, 김유신장군과 진성여왕묘의 12지신에 등장한 토끼 탁본, 호랑이에게 담배대를 들어주는 토끼 목판화와 석판화 등이 소개된다. 부귀다남수복강령 세화에 등장하는 토끼 등도 눈여겨 볼만하다.


한국-김유신장군묘12지신토끼 탁본


.중국- 화상전 탁본(토끼부분)

△중국판화로는 항아의 전설이 담겨있는 태음성군 목판화와 정초에 집안이나 대문에 붙여 소원성취를 빌었던 중국세화인 년화 중에서 불교와 도교의 모든 신들을 한 목판에 담은 전신도 판화 중 낮과 밤을 표현하는 일 월 성신 중에 월을 토끼 문양으로 표현한 작품과 중국 고대 한나라 때 만들어진 화상석과 화상전에도 토끼 관련 전설을 표현한 작품 등이 소개된다. 화상전에는 절구를 찧는 옥토끼 한 쌍이, 화상석에는 옥토끼와 달 두꺼비가 절구를 찧는 모습이 표현되어 눈여겨 볼만하다.

△일본 판화로는 불교의 12천 중에 월천을 표현한 목판화와 목판화를 아름답게 채색한 월천의 손 위에 달 속의 토끼를 들고 있는 작품과 손오공과 토끼가 그려진 우키요에 판화도 소개돼 한·중·일 삼국의 토끼 관련 자료들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다.

이 밖에도 설날과 입춘에 많이 사용됐던 한·중·일 3국의 부적판화도 소개된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정초에 목판화로 부적을 만들어 대문이나 집안에 붙이거나 몸에 지니고 다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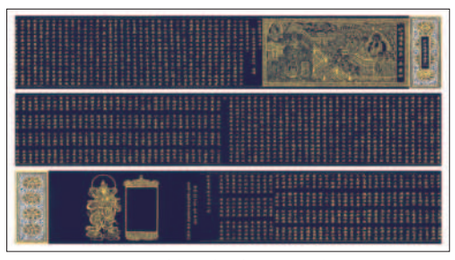
한국인이 가장 애용했던 부적판화는 삼재극복 부적으로, 주로 호랑이와 매를 결합해 그린 판화다. 종교부적으로는 불교의 아미타부처님이나 관음보살을 부적화하여 사용했으며 도교에서는 도교의 창시자인 장도릉을 의인화한 천사진택(부적)이 많이 사용됐다. 사업성취를 위한 칠성부 등을 비롯하여 장원급제를 위한 등룡부가 많이 사용됐다. 재난방지용으로 화재방지부와 도적침범부가 만들어졌으며, 소원성취용 종합부적인 '백살소멸만복부'가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색깔로 만들어진 중국세화는 다색 년화와 관음보살부적도 전시되며 일본의 종합부적도 소개된다.

올해로 개관 20주년을 맞이한 명주사 고판화박물관은 '토끼 그리고 부적' 展을 시작으로 다양한 20주년 기념특별전을 통해 인쇄문화의 꽃인 고판화의 매력을 많은 대중에게 알릴 계획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고판화의 또 다른 매력을 많은 대중에게 알릴 예정이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고판화의 또 다른 매력인 디자인성을 부각하여 많은 전문가들과 대중이 4차 산업시대의 중요한 콘텐츠인 고판화의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한선학 관장은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코로나 19를 이겨내고 자유로운 일상이 도래하는 계묘년에 지혜와 복덕의 상징인 토끼의 기운으로 힘껏 뛰는 한 해가 되어 온 세계가 우려하는 경제 한파를 이겨내는 데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번 전시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많은 대중이 관람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회 기간 전시교육 프로그램으로 토끼와 함께하는 템플스테이와 다양한 전통판화 교육도 진행된다. 박물관은 또 새해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토끼와 부적 판화 인출체험도 관람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순자 금니사경 묘법연화경 최대 규모 인정


최대 규모 금니사경(金泥寫經) 묘법연화경

1월 11일 인증서 수여식에서
한국기록원 공식 인정서 전달

폭 33cm 총 길이 800m 금니
묘법연화경 20년 걸쳐 완성해

사경가 이순자의 사경작품 '금니사경 묘법연화경'이 한국기록원으로부터 최대 규모를 인정받았다. 이 작가는 1월 11일 서울 종로구 수운회관에서 진행한 인증서 수여식에서 인증서를 받았다.

이 작가는 2002년 5월 1일부터 약 20년 동안 폭 33cm 총 길이 800m 이상의 고려장지 위에 순금으로 〈묘법연화경〉을 사경했다. 이 작품은 1세트에 7권, 총 8세트로 구성되어 있고 총 글자 수만도 56만 자에 달하는 역작이다. 특히 이 작품은 조계종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가 30년 전에 재현한 고려감지로 작업한 작품으로, 〈묘법연화경〉을 금니로 쓰고 그려서 대중에게 불교를 널리 알리고 경전의 가르침들이 지친 대중을 위로하기 위한 불사라고 할 수 있다.

한국기록원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최고 기록을 인증하고 미국 World Record Committee (WRC/세계기록위원회) 등 해외 기록 인증 업체에 도전자를 대신해 인증 심의를 요청하는 최고 기록 인증 전문 기관으로, 이순자 작가의 '금니사경 묘법연화경'이 전 세계로 알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인증식에서 '금니사경 묘법연화경'을 전시함으로써 불자는 물론 일반 대중에게도 불교의 종교적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됐다.

이순자 작가는 "정성을 다해 제작된 사경 작품이 많은 분들에게 진정성 있게 전달되어 일상에서 평온을 찾는 뜻깊은 시간을 만들어 주고 싶었으며, KRI 한국기록원 공식 최고기록 인증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재완 기자

국립중앙박물관 1월 큐레이터와의 대화

매주 수요일 야간개장(오후 6~9시) 때
'불교조각실·조제불상…' 등 다양 구성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윤용성)은 2023년 한 해도 매주 수요일 야간개장시간(오후 6시~9시)에 큐레이터의 상세한 해설을 들으며 전시품을 관람할 수 있는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운영한다.

△상설전시관 2층 기증 I 실 '나눔의 가치를 발견하다'에서는 기증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

△선사고대관 신라실의 '신라와 황금 이야기'에서는 황남대총에서 출토된 금관 등 금속공예품을 자세히 살펴보고, 백제실의 '사비 백제의 건축 장식'에서는 치미 등 백제의 건축 장식과 이에 얽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중근세관 고려 I 실의 '삼국사기, 고려 사회의 삼국 역사 인식'에서는 당시 고려 지배계층의 역사관을 살펴볼 수 있다. 조선II실의 '조선의 지도'는 혼일강리역대국도에서부터 대동여지도에 이르기까지 조선시대 지도 전통을 이해하는 시간이다.

△조각공예관 청자실의 '상형청자'에서는 비색 청자 중 연꽃을 표현한 국보 '청자 투각 칠보무늬 향로'와 '청자 사자모양 향로' 등을 자세히 살펴본다. 불교조각실의 '도제불상-흙으로 구워 낸 부처님'에서는 도제 불상의 제작 기법을 소개한다.

△특별전시실 '외규장각 의궤, 그 고귀함의 의미'에서는 의궤 하나하나를 흥미롭게 소개한다.

△그 밖에도 중국실의 '중국 청동 예기', 서화실의 '전통장황과 현대장황', '어린이박물관 미륵사지 교육상자 소개' 등 박물관 곳곳에서 다양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박재완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1~1/17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정혜결사문:선정과지혜로세상을밝혀야	보조지눌/원순 역해	법공양	6	보리도차제광론2(나란다불교학술원총서2)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2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7	우리는늘바라는대로이루고있다:선지식의크신사랑(개정판)	김원수 지음	청우당
3	체계불학:신념체계로서의불교학	김성철	오타쿠	8	에리히프롬과불교(대원불교학술총서04)존재양식과깨달음	박찬국운주사	
4	성자와범부가함께읽는금강경	김원수 지음	청우당	9	통도사승가대학의불교철학강의:서양철학교수가통도사에간까닭은	홍창성운주사	
5	아비담마길라잡이(1)아비담맛타상가하*전정판	아누룻다/대림,각묵	초기불전연구원	10	중의학이론과도가역경:인체는작은우주다	남회근	마하연

책세상

당신께 하고 싶은 말은…"살아있어서 고맙다"



바람에게도 고맙다
김재진 지음
김영사 펴냄/1만 5800원



▲저자 **김재진**은?

1976년 〈영남일보〉 신춘문예에 시, 1993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같은 해 〈작가세계〉 신인상에 중편소설이 당선되며 40년이 넘는 시간 글을 썼다. 글을 쓰면서도 문단과는 멀리 있고, 세속에 살면서도 세속과는 거리를 둔 은둔자로서의 삶을 추구해온 그는 우연히 듣게 된 첼로 소리에 끌려 첼리스트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음대에 입학하기도 했다. 젊은 시절 방송사 PD로 일하며 방송 대상 작품상을 받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던 중 돌연 직장을 떠나 바람처럼 떠돌며 인생의 신산(辛酸)을 겪었고, 오래 병석에 누워 고독한 시간을 보내던 어머니가 벽에 입을 그려달라고 청한 것을 계기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갑자기 전시회를 열고, 첫 전시회의 그림이 솔드 아웃 되는 이변을 낳기도 했다. 시인으로 널리 알려진 그는 시집 〈누구나 혼자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 〈삶이 자꾸 아프다고 말할 때〉 〈산다고 애쓰는 사람에게〉 장편소설 〈하늘로 가는 강〉 어른을 위한 동화 〈잠깐의 생〉 〈나무가 꾸는 꿈〉 〈엄마 냄새〉 산문집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나의 치유는 너다〉 등을 펴냈다. 현재 파주 교하에 있는 작업실 '민들레 행성'에서 그림 그리기와 글쓰기에 전념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깊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달을 향해 걷는 시인 김재진. 자신의 그림 속 달을 향해 나아가는 인물처럼 때로는 시로, 때로는 소설로, 때로는 그림으로 삶의 슬픔에서 발견한 아름다움을 그려내어 수많은 이들을 위로해온 그가, 자신을 위로해준 상처와 위안의 기록을 담은 그림 에세이 〈바람에게도 고맙다〉를 출간했다. 시인은 오래 간직한 하고 싶은 말을 직접 그린 그림을 통해 전하며,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로도 고맙고 벅찬" 순간들을 노래한다. 고요히 날아올라 묵직하게 내려앉는 시인의 독백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깨달음이 되고, 서로를 일으키는 사랑의 마음이 된다. 정목 스님, 유경희 미술평론가가 추천의 글을 붙였다. 정목 스님은 추천사를 통해 "세상에 저 혼자 살 수 있는 생명이 어디 있으며 서로 도움 받지 않고 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눈을 감고 숨 쉬어 본다. 온몸이 더 먼저 느낀다. 존재한다는 것의 고마움을."이라고 평한다.

김재진 시인에게 슬픔과 상처는 아름다움과 그리 멀리 있지 않다. 그는 1976년 〈영남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되고, 1993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작가세계〉 신인상에 소설이 당선되며 40년이 넘는 시간 글을 썼다. 삶의 상처를 가장 간결하고도 아름답게 길어 올린 그의 작품은 많은 이들의 마음 깊은 곳을 파고들며 '가장 오랜 시간 읽히고 사랑받은 시집'으로 꼽히기도 했다.

이후 벽에 입을 그려 달라는 임종을 앞둔 어머니의 청을 계기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시인은 첫 개인전을 열어 '삶을 위로하는 그림'이라는 찬사를 받았고, 전시한 그림이 전부 판매되는 기록을 세웠다. 이 책은 시인이 쓰고 그린 134편의 글과 45점의 그림을 섬세하게 담아낸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 "무구한 아이처럼, 맹렬한 청년처럼 그림과의 사랑에 푹 빠져" 그려낸 그의 그림은 한계 없는 상상력과 자유로움을 증명하듯 눈부신 색채를 뽐내며 우리의 마음을 오랜 시간 일렁이게 한다. 슬프기도 때로는 그저 기쁘기도 했던 삶에게 고마움을 담아, 자신과도 닮은 자유로운 바람을 빌려 오래도록 하고 싶었던 말을 이 책으로 전한다.



그림의 제목은 〈달의 사랑〉. 사랑이란 기울다가 차오르는 달과 닮았다는 게 저자의 설명.

삶을 위로하는 저자가 그림으로 전하는 희망메시지 가득
삶의 상처 가장 간결하고도 아름답게 길어 올린 작품 다수
저자, 깨어 있는 모든 삶 향해 자비와 연민의 마음 보낸다

마음의 폐허에 다시 샘이 솟을 때까지…

시인의 그림에서는 유달리 '밝은 달'이 자주 모습을 보인다. 들판에 누운 채로 바라보기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자유로이 날아 향하는 대상이기도 한 이 달은, 시인의 간절한 마음처럼 모든 존재를 고루 밝게 비춘다. 시인은 "아무리 하잘 것 없는 인생이라 해도" "앵콜 한 번 받지 못한 객석의 삶이라도" 존재의 이유와 가치가 있음을 힘주어 말하며, 빈 몸으로 울고 있는 수많은 삶들을 묵직하게 위로한다. 삶은 때로는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견디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 "홀연 모든 것이 아름답게 다가오는 때도 있지 않냐"며 자기 몫의 생을 버텨내는 이들을 고요히 응원한다. 시인이 하는 일, 그는 이렇게 정의한다. "마음의 폐허에 다시 샘이 솟고, 새가 돌아오도록 기다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시인이라고. 그래서 그의 시에는 슬픔과 상처에 매달려 있던 마음을 쉬게 만드는 힘이 있다. 때로는 실패와 좌절에 주저앉기도 하지만 "굴곡 많은 인생에선 배울 것이 많으니, 실패를 삶의 방향을 수정할 때가 되었음"을 알려준 인생 나침반 삼아 남은 삶을 향해 걸어가자며, 우리의 삶을 빛나는 달에게로 이끈다.

사랑에 의해 세상은 유지 된다

시인은 깨어 있는 모든 삶을 향해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보낸다. 그에게는 "개도, 고양이도, 들판의 풀과 꽃, 소낙비"도 살아 있는 것들로, 모두 "슬픔을 멀리하고 행복"을 구하는 존재이다. 시인은 "미움과 비난이 난무하는 세상서 아픔을 용서로 바꿀 수 있는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의 에너지가 우리의 삶을, 생명력을 강하게 만든다"고 말한다. 함께 존재하는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는 마음만으로도, 이미 아무것도 아닌 자신이 아니라 마음에 '거인'이 있는 강인한 존재임을 상기시킨다. 시인을 따라 두려움 없이 훨훨 세상 위로 날아가자. 슬픔도 아픔도 사랑도 아름다움도 있는 삶이라는 달을 향해. 겨울 시련을 뚫고 솟아오르는 새처럼 자유롭게.

책 속의 밑줄 긋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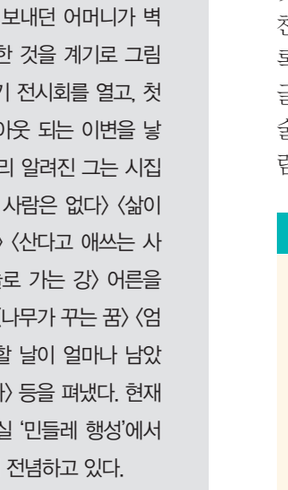
주저앉는 순간, 바닥을 하나의 에너지로 삼아 솟아오를 수 있다면 무너질 사람은 없다. 천길 낭떠러지 앞에서 한 발 내딛으라는 말이 있지만, 물러서려 해도 물러설 곳 없는 위기의 감정이 에너지로 바뀌어 다시 한 번 치솟을 수 있는 힘이 바닥엔 고여 있다. 〈바닥〉중에서

사랑이라 믿었던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감정의 물결이 지나간 뒤 깨닫는다. 상처 또한 마찬가지다. 상처라고 여긴 것이 사실은 성장을 위한 양식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아픔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 상처에도 향기가 있다. 〈상처의 향기〉중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해서 결과가 꼭 최선으로 나타나진 않는 것이다. 혼탁하던 물도 진흙이 가라앉은 뒤 깨끗해지듯 지금 겪는 혼돈 또한 스스로를 정화하는 진흙과 같다. 마음을 가라앉혀 기다릴 수만 있다면 둥근 평화가 찾아온다. 〈둥근 평화〉중에서

인생은 늘 위안받기를 원한다. 지금까지 받아온 그 많은 위안을 돌려줄 생각보다 위안 받을 그 무엇인가를 찾아 두리번거리기만 한다. 꽃들에게 받은 위안, 나무에게 받은 위안, 강이나 산으로부터 받은 위안, 알고 보면 우리가 받은 위안은 도처에 널려 있다. 〈위안〉중에서

무비 스님과 조현춘 교수가
교감한 정본 금강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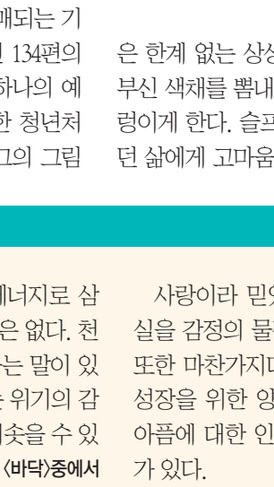


定本 漢文 金剛經

구마라집 본을 저본으로 하고, 유지본, 진제본, 급다본, 현장본, 의정본, 범어본 등을 참고하여, 의미상 가장 적절한 한자와 어휘를 채택하여 완성한 '정본 금강경!'

무비 · 조현춘 공역/크라운판/184쪽/값 12,000원

서양철학 교수가 통도사에
간 까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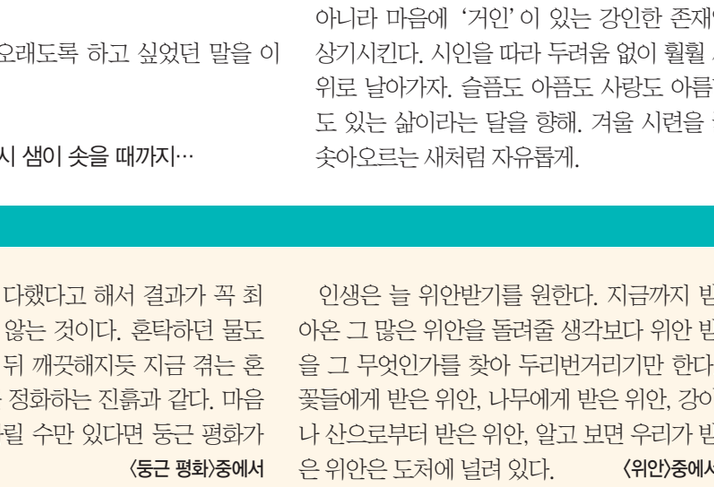


통도사승가대학의 불교철학 강의

불교의 전통적 가르침이 전승되는 한복판에서 서양철학적 사유와 비판적 시각으로 불교철학을 논하고 그 진리성을 증명하는, 진중하면서도 깊은 철학적 사유와 유쾌 발랄한 강의!

홍창성 지음/국판/248쪽/값 15,000원

재미있는
만화로 만나는
용성 스님
일대기!



한국 근세불교의 큰스승, 용성 스님

3.1운동 당시 민족대표로 참여한 독립운동가이자 불교의 근대화와 대중화에 앞장선 한국 근세불교의 중흥조 용성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그려냈다.

정수일 글, 그림/사륙배판/200쪽/값 16,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성스러운 그림들의 특별한 여행



아주 특별한 그림들의 여행
저자 김소연
서해문집 펴냄/1만9천원

속(俗)의 세계에 발을 들인 동아시아 종교회화의 아름다움과 역동성 경험

근대 이전 동아시아 불교회화 여행과 그에 대한 큰 의미들을 고찰해 실어

불교회화가 어떤 이유로 여행 떠났고 아름다움은 어떻게 드러나는지 조망



주계상 · 임정규, 〈오백나한도〉 중 응신관음.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역사 속에서 미술품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사례는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조각, 공예, 서적 등 다양한 장르의 시각물이 운반되어 지역을 초월한 문화 교류의 첨병 역할을 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그림은 적당한 크기로 만들 경우, 어떤 물건보다도 소지하거나 운반하기 편리했다. 종교화도 예외는 아니어서 사람들은 길 위에서 자신을 지켜줄 신의 형상을 두루마리에 담아 품고 다니기도 하고 포교의 목적으로 먼 지역까지 운반하기도 했다.

이 책에서는 일본으로 건너간 중국 송 · 원대의 영파 불화와 조선 불화, 에도 시대 떠돌이 이야기꾼의 불화, 그리고 조선 후기 괘불을 차례로 만나본다. 이 그림들의 특별한 여행길을 따라나서는 일은 성(聖)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속(俗)의 세계에 발을 들인 동아시아 종교 회화의 아름다움과 그 역동성, 그리고 이를 둘러싼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을 경험하는 일이 될 것이다. 크기와 무게도 중요하지만 사실 종교화가 여행을 떠날 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시각적 아름다움이었다. 적당한 크기와 적당한 무게가 그림이 물리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라면 아름다움은 여행의 필수 조건이자 동력이었다.

일반적으로 종교예술을 통해 구현되는 조형성은 작품을 제작한 개인이나 집단의 신앙심 및 예술적 성취의 결과로 인식된다. 이는 종교예술을 경배하고 감상하는 대다수 사람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감상자가 아닌 종교예술의 제작자, 유통자, 전달자 등의 시각에서 보면 어떨까? 이들에게 종교예술의 아름다움이란 각자의 목적(교리 전파부터 상업적 판매에 이르기까지)을 달성하기 위해 개개의 작품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었다. 감상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미술이 아니라 신앙을 바탕으로 제작한 종교미술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지 못하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쉽지 않다. 즉 종교예술의 아름다움은 누군가에게는 시각물을 통해 드러나는 최종 결과물이지만, 때로는 신도, 소비자,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고, 그렇기에 관람 대상의 문화와 취향과도 분리될 수 없었다. 따라서 종교예술품의 '아름다움'이란 모든 작품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영원불변의 어떤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는 초상화나 풍경화와는 조금 다른 아름다움이다. 종교화의 미학이란 숭고함은 물론, 세속적 화려함, 압도적 규모, 흥미로운 스토리텔링, 작품에 자신을 이입할 수 있는 현실성에 이르기까지, 보는 이의 눈길을 사로잡고 마음을 움직이는 다양한 매력을 포괄한다. 그리고 그 매력은 개별 작품이 위치한 맥락과 목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 책은 지리적, 시대적 범위를 한정하여 근대 이전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주류를 이루었던 종교화, 즉 불교 회화가 어떤 이유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이 여행을 가능케 한 이들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이 여행에서 불교 회화의 아름다움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조망한다. 처음부터 타지로 옮겨질 것을 전제로 제작된 작품도 있고, 특정 장소에 봉안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고향을 떠나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며 돌아다닌 작품도 있었다. 때로는 더 많은 관람객을 만나기 위해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상업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작품인 동시에 신의 대체물, 혹은 신의 이야기를 담은 성물(聖物)이기도 했던 종교화는 서예 작품이나 산수화 같은 비종교화보다 더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이동했다. 성스러운 이미지가 성의 세계에서 일시적으로, 혹은 영원히, 속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일이었기에 의례가 동반되거나 전에 없던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기도 했다.

한편, 이 책에서 언급한 작품들은 현재 대부분 박물관에 머물러 있다. 사찰이 소장한 작품도 불당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사찰에서 운영하는 성보박물관에 있거나, 근처 박물관에 기탁 보관되고 있다. 오랜 여행을 거친 낡은 그림들인 만큼 보존과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박물관이 이 작품들이 떠난 여행의 종착지일까? 지금은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덧붙여놓은 감상과 해석이 이 그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설명한다. 미래에는 다른 환경과 문화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새로운 아름다움을 끄집어낼 것이다. 그리고 그 배경에 또 다른 유무형의 여정이 있을지도 모른다.

▲저자 **김소연 교수**는?

국민대 교양대학 조교수.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하고 캘리포니아주립대 로스앤젤레스 캠퍼스에서 고려 〈치성광여래도〉와 성수 신앙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동아시아의 해상 신앙과 시각물을 연구하면서, 자연환경과 종교 이미지의 관계로 관심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함께 지은 책으로 〈한국 미술: 전통에서 현대까지〉가 있고 주요 논문으로는 〈Zoomorphizing the Asterisms: Indigenous Interpretations of the Twenty-Eight Lunar Mansions in the History of China〉 〈성지(聖地)의 재해석: 일본 조쇼지(定勝寺) 소장 '보타락가산관음현신성경도'와 그 유전(流轉)을 통해 본 중국과 일본의 보타락가산 신앙〉 등이 있다.

禪, 문예 미학적 표현 가능할까



한국선어록의 문예 미학
전재강 지음
운주사 펴냄/2만원

한국문학사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연구에서 소외된 불가문학을 고려말 삼사(三師)로 널리 알려진 백운 경한, 태고 보우, 나옹 혜조의 선어록과 선시 등을 대상으로 하여 문예 미학의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탐구한 책이다. 이 책의 필자 전재강 교수는 대학과 대학원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하고, 고우 선사의 가르침을 통해 선에 대한 안목을 갖추었다. 이를 바탕으로 일반 문학 이론과 한문 독해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불가문학 또는 선가문학에 대한 연구를 하였고, 이 책에서는 백운 경한, 태고 보우, 나옹 혜조의 선어록과 선시 등의 내용을 크게 3부로 구성해 풀어나가고 있다.

한국문학사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는 불가 문학은 조선을 거치며 방외의 문학, 비주류문학으로 차별받았으며, 오늘날 연구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유가문학을 비롯한 여성문학, 지방문학 등의 연구와 함께 반드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임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불교문학 연구를 새로운 시각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때야말로 한국문학사의 전모가 온전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고자 불가 문학과 선가문학에 대해 문예 미학적으로 접근한 저술이다. 이를 위해 고려 말 동시대를 살았던 선승 백운 경한과 태고 보우, 나옹 혜근의 문학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세 사람은 선 수행에 몰두한 선사이면서도 그 과정에서 남긴 선시와 선어록은 각기 개성적이다. 그러면서도 이들이 나아간 문예 미학적 성취는 그 어느 시대 작가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을 보여 준다. 이 책은 이들의 개성과 문학적 성취를 그 선적 이념과 연관해 유기적으로 드러내 보여 준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먼저 백운 경한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한다. 백운의 선어록인 〈백운화상어록〉의 편집 체제를 살펴보고 그 산문 서술을 분석하는데, 여기서 쌍방적 말하기, 일방적 말하기, 시적 말하기의 수용과 같은 표현의 다양성을 보여 주고 있음을 확인한다. 이어서 백운이 내세운 선을 집중 분석함으로써 그의 선을 무심선으로 보던 기존의 주장을 교정하고, 조사선과 조사선 수행법으로서의 회광반조(廻光返照)라는 선이 백운 선의 특징임을 밝히고, 어록에서 산문으로 이러한 선을 어떻게 문예 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를 논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태고 보우의 선시와 선어록에서 보인 선의 비언어적 표현 원리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선에서 보이는 비언어적 행위를 동작과 음성으로 나누어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 밝힌다. 그리고 태고 선의 체계성과 문예 미학적 표현 방식을 논한다. 그의 선은 조사선에서 출발해 회광반조와 간화선, 염불선로 이어지는 상하 위계성과 간화선과 염불선 사이에 계열성이라는 두 가지 체계를 동시에 보이고 있어서 그의 선 체계가 매우 역동적이며, 이것이 극적이고 서술적으로 표현되어 선어록의 산문을 살아 움직이는 문예 미학적 작품이 되게 한다는 것을 입증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나옹 혜근의 선이 가지는 성격을 논한다. 우선 나옹은 회광반조를 강조하는데, 간화선 수행법에서는 백운의 선 수행 방식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고, 간화선과 염불선에 있어서는 보우의 선 수행법과 유사하지만 양자의 구체적 수행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어서 나옹이 선시에서 선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한 어휘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논하고 있다. 체언과 용언 계열의 어휘는 선문에서 말하는 살(殺)과 활(活), 살활동시라는 기준으로 어휘를 분류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선에서 사용되는 특정 어휘들은 고도의 상징으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논리적,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그 의미를 추출하여 선시나 선어록의 문예 미학적 특성의 이해를 돕고 있다. 선가문학 연구의 과정은 만만치 않다. 일반 문학 연구 이론과 작품을 보는 안목을 갖추고 한문 독해 능력이 있어야 하며, 더하여 불교 한문 독해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불교 한문 독해력은 문장 이해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작품 내면에 표현된 불교 이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한문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불교와 선을 모르면 선가문학은 접근이 불가능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문학 이론과 한문 독해력은 물론이고 입적한 고우 선사의 가르침을 통해 선에 대한 안목을 갖춘 저자이기에 가능한 문예 미학적, 선적 통찰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김주일 기자

고려말 三師 선어록 · 선시 미학 관점서 탐구

불가 · 선가 문학을 문예 미학적 접근한 저술

▲저자 **전재강 교수**는?

경북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국문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동양대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안동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로 있다. 저서로 〈상촌신흠문학연구〉 〈한문의 이해〉 〈시조문학의 이념과 풍류〉 〈선비문학과 소수서원〉 〈남명과 한강의 만남〉 〈불교가사의 유형적 존재양상〉 〈한국시가의 유형적 성격과 작품 전개구도〉 등이, 역서로 〈서장〉 〈선요〉 등이 논문으로 〈어부가계 시조 연구〉 등 다수가 있다.

꿈이 이루어지는 도량 함안 마애사

천년의 물 흐름 속 영험한 기운이
강하게 흐르는 청룡대불

지성으로 기도드리면
반드시 꿈이 이루어지는 기도도량입니다

미리 부처님 친견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어 발원하는 모든 일들
원만성취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10월 완공 예정
2024년 1월 1일 갑진년(청룡의 해) 새해 점안법회 예정
055-585-5114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 마 애 사



함안 마애사 청룡대불

백금남 소설 아디카야의 검 2



▶한줄요약
종정 스님은 인도 뉴델리 천추사원으로부터 석가모니 부처님이 남기신 성물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받는다.

사라진 아디카야의 검

어느 날 문득 2

종정은 그날 꿈을 꾸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었다. 동굴이 분명했다. 사내 둘이 보였다. 천둥이 치는가 했더니 벼락이 사내들을 향해 쏟아졌다. 사내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허공을 날던 검은 석관 하나가 본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 그대로 푸른 천에 덮였다.

잠시 후 한 사내가 동굴 안으로 들어섰다. 눈빛이 형형하고 깡마른 청년이었다. 헌 누더기를 걸쳤으나 예사롭지 않았다. 그의 뒤쪽으로 사원이 솟아올랐다. 장엄할 정도로 아름답고 웅장한 사원이었다. 하늘에서 낙엽이 떨어져 그 사원에 쌓이고 있었다.

석관을 잡고 울고 있던 초로의 사내가 눈물이 흥건하게 번진 눈을 들어 동굴로 젊은 사내를 건너다보았다. 그들 사이에 석관이 놓여 있었다.

난타(難陀)다!

종정은 젊은 사내를 건너다보고 선 초로의 사내를 보며 꿈속에서 그렇게 부르짖었다. 난타라고 한다면 석가모니 붓다의 이복동생이다. 종정이 그를 본 일이 없고 보면 왜 그가 난타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모를 일이었다.

며칠 후, 스님 둘이 발소리를 죽이며 종정실로 다가갔다. 그들은 종정을 보좌하는 비구들이었다.

종정실로 들어간 그들은 종정에게 밀랍으로 봉인된 종이봉투를 하나 내밀었다. 인도 뉴델리 천추사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날아온 소식이었다.

인터넷이 발달해 메일로 전문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다. 그러나 고집스럽게도 그런 편리함은 이곳에서 용인되지 않았다. 여전히 중요한 문건은 예전의 묵은 모습 그대로 전해졌다.

종정이 봉인을 확인한 후 촛불을 가져오게 하여 밀랍을 녹여 편지를 뜯었다.

속에는 지금까지 잘 지켜지고 있던 아디카야 검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고 쓰여 있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남기신 성물이 사라졌다고?

종정은 이상하다는 생각이었으나 업무 인수를 마쳐야 했으므로 자신의 거처로 갔다.

아랫사람들로부터 업무를 인수하면서 종정은 이상한 편지들을 발견했다. 역시 밀랍으로 봉인되었다 뜯긴 것들이었는데 인도 천추 사원으로부터 전해진 것들이었다.

종정은 편지들을 읽었다.

그 속에는 성물로 인하여 사람들이 체포되거나 죽어 나가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신문 기사와 함께 동봉된 편지도 있었다.

인도 뉴델리안 신문사의 기자 오오스마라는 사람이 쓴 기사가 유독 눈길을 끌었다. 그 성물을 탐내어 접근했다가 목숨을 건진 사람들의 증언을 기사화한 것이었는데 증언한 이들은 하나 같이 보았다고 했다. 성물 가까이 다가들자 성물을 지키듯이 선 한 사내의 모습을. 초로의 사내가 무서운 눈길로 석관을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종정은 기사를 읽으면서 문득 꿈에 보았던 난타의 모습을 떠올렸다.

꿈을 꾸던 날 종정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다시 잠이 들었었고 앞서 꿈에 본 난타를 다시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다. 그런데 사내의 모습이 점차 변하였다. 사내의 모습이 점점 젊어져 청년으로 변하였다. 그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니 한때 자신의 근영을 그린 바 있는 이지안 금어의 아들이었다. 그 아들의 이름을 기억할 수 없었지만, 이지안 금어가 자신의 근영을 그릴 때 데리고 왔던 청년이 틀림없었다.

그가 왜?

다음 날 종정은 아랫사람을 시켜 교계신문사 국장을 불렀다. 그는 국장을 만나는 자리에서 석가모니 붓다께서 남기신 성물이 사라졌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인도로 가 취재해봄이 어떻겠느냐고 제의했다. 종정은 석가모니 붓다께서 남기신 성물을 조사하다 보면 왜 그런 꿈을 꾸었는지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종정실을 나온 국장은 그 사실을 바로 사장에게 보고했고 곧바로 이주석 기자를 불렀다.

3

글을 읽고 난 나는 갑자기 웃음이 터져 참을 수가 없었다.

-하하하 국장님!

국장도 비시시 웃었다.

-지금 소설 쓰십니까?

-글쎄, 이 기자가 그렇게 긁어 놓았다니까.

-그 애 원래 그런데 관심이 많은 애 아닙니까. 윤회라던가 뭐 그런 것에... 그러다 그런 소릴 들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해.

국장이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상해요?

-종정 예하께서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하다며 도대체 그 성물이 어디로 사라져버렸느냐는 것이지. 인도 정부에서도 고개를 내젓는 마당이고...

-그럼 왈리인가 원리인가 하는 후손들은요? 그런데 정말 그런 칼이 있기는 있는 겁니까?

-나도 들어보질 못했는데 있으니까 그런 거겠지. 그렇잖아도 인도 정부에서 조사를 했다는데 왈리의 후손들은 시치미를 떼고 있다고 하고 칼이 든 석관 속은 비었더라는 것이야.

-그런데 석관에 근접하다가 보았다는 사내는 뭡니까? 난타라고 했나요? 그가 누구인가요?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이복동생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

-네. 석존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여동생이 왕비가 되었잖아요. 내가 알기에 그녀의 아들이 이복동생일 텐데요?

-맞아. 그가 바로 난타야.

-그런데 그가 왜요?

-그건 나도 모르겠어. 종정 예하도 그렇다고 하더군. 그런 꿈을 꾸긴 했는데 성물을 지키는 꿈속의 사내가 난타라는 생각만 들었다는 것이야. 문제는 그 난타라는 초로의 사내가 한때 종정 예하의 근영을 그렸다는 이지안 금어 스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야.

나는 또 하하하고 웃었다.

-지금 꿈이 이상하다는 겁니까? 그 성물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게 이상하다는 겁니까? 종정 예하라고 개꿈 꾸지 말라는 법이 없고 보면...?

-그러니 이상하다는 것이야.

-정말 이상한 것도 많네요. 왜 그런지 몰라. 그런 것이 미망이라는 것을 알만한 분들이...

국장이 자신이 생각해도 멋쩍은지 시선을 돌리며 고개를 홰홰 내저었다.

나도 모르게 너무 말을 함부로 했나 하는 생각이 그제야 들어 국장의 눈치를 살피다가 입을 열었다.

-그러니까 종정 예하는 이지안 금어의 아들이 그 검과 관계가 있을지 모른다 그 말 아닙니까?

국장이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끄덕였다.

-거참 이상하긴 이상하네요.

그러면서 나는 국장의 눈치를 살폈다.

국장이 눈을 감았다. 낭패함을 어쩌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그는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눈을 떴다.

-문제는 종정 예하야. 이지안 금어의 아들이 거기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야.

나는 그만 또 하하 웃고 말았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또 느물거리고 말았다.

-무슨 소린지 원.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망가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우리더러 그 꿈 확인하러 가라?

-어떡하겠어. 종정 예하께서 그러시니…

기관지이다 보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말 같았다.

나는 어이가 없어 혀를 찹 찼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하는 말이 나오려다가 꿀꺽 도로 넘어갔다.

-도대체 천추사원이 어디에 있는 절이랍니까?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내가 물었다. 이상하지만 엇나갈 수만도 없는 일이었다. 누구 명령인가. 만약 거역했다가는 어떤 조치가 들어올지 모른다. 잘못하면 국장이 신문사를 그만두거나 평기자로 강등되거나 지방으로 좌천될지도 모른다. 그것은 나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었다. 그러잖아도 윗분들의 감정이 좋지 않은 마당이다. 신문 구독자가 줄어들었다며 영업국장이 하루가 멀다 하고 총무부에 드나드는 마당이다.

국장이 내 눈치를 보다가 입을 열었다.

-뉴델리에 있는 이곳의 말사라고 해. 그곳에 가면 금원이라는 스님이 있다는데 아마 그 양반이 소문의 진상을 알아내어 전문을 보낸 모양이야. 뭐 인도에 있는 그 절 지을 때 이지안 금어가 그곳 탱화를 맡았던 모양인데 그때 아들이 따라가 있었던가 봐.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인도에서 석존이 남긴 칼이 발견되었다? 그 칼이 지금 인도 어딘가에 있다. 종정 예하께서 꿈에 석존의 이복동생인 난타를 보았고 그 사람이 이지안 금어 스님의 아들로 변하더라. 그런데 묘하게 인도의 천추사원에서 전문이 왔더라.

-맞아.

-글을 읽어보니 대충 짐작은 할 수 있겠던데 그 칼인지 검인지 있다는 데가 어디라고 했어요? 스 뭐라고 하던데...?

알고 있으면서도 억지를 부리듯 내가 물었다. 인도라는 나라. 그 나라가 그런 나라였다. 그동안 한두 번 갔다 온 곳이 아니었다. 신통력이나 불가사의한 일에 대한 낭설이 널린 곳이 그곳이었다. 그곳은 불교의 개조인 성인이 살아생전 활동한 곳이요 힌두신앙이 그대로 살아 있는 곳이었다. 그러니 낭설도 저들 마음대로 만들어내고 근거를 들이대고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떠도는 곳이 그곳이었다. 헛소문을 좇아 한두 번 속아온 것이 아니었다. 죽을 고생을 하며 찾아가 보면 헛소문이 태반이었다. 그런데 국장은 또 엉뚱한 헛소리에 휘둘리고 있었다.

-스리나가르.

국장이 속을 감추는 듯한 말투로 간단하게 대답했다.

-그곳은 뉴델리가 아니잖아요?

내가 볼멘소리를 내었다.

-맞아. 자세한 건 모르겠고...

-그곳 어디라고 해요?

-적어 두긴 했는데, 암튼 그 어디쯤이라고 해.

-그 성물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나요? 왈리?

기억을 더듬으며 내가 물었다.

-맞아. 처음엔 왈리라는 사람이 보관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보물을 찾아내는 이들이 다시 찾아내었다고 하더군. 테르텐이라고 하던가?

-테르텐? 들어본 것 같네요.

-예로부터 성자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을 동시대에 받아들여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면 비밀한 장소에 감추어 두는 일이 있었다고 해. 이를 비장문헌(秘藏文獻)이라고 한다는데 이 문헌은 불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 어떤 종교든 성현들은 그 시대에 이해될 수 없는 것이면 오히려 해가 된다고 생각하여 동굴이나 바다 밑, 사원, 호수 같은 곳에 숨겼다고 하니까. 심지어 인간의 의식 속에 숨긴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소위 사자의 서라고 일컬어지는 바르도 쒜돌이 그 좋은 예라고 하더군. 그 문헌은 석존에 의해 파드마삼바바의 의식 속에 숨겨졌는데 오랜 세월이 흐른 후 파드마삼바바가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 자신의 의식 속에서 그것을 끄집어내었다는 것이야. 그는 그것을 문헌으로 남겼고 현대에 이르러 위대한 테르텐 릭진 카르마 링파에 의해 티베트 북부지방의 한 동굴 속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야. 그 문헌을 찾아낸 이가 곧 파드마삼바바의 후생이었다는데…〈계속〉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출강 및 통신 2023학년도 제32기 불교 법사(Dharma-bhanaka)

법사학인 신입 수강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 한국불교법사대학은 32년의 전통과 법사 양성 역량 축적을 자랑과 긍지로 삼고 있으며 법사 활동과 위상 정립에도 기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① 법사자격 법위품수를 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배움 도량입니다.
②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합니다.
④ 법사품수 후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수업 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영상미디어 통신강좌)

02)733-1959
720-1836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 (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 대법사과정(2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23년 2월 24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 전화 문의하시면 모집요강과 입학원서를 보내드립니다.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3층 (견지동, 한선빌딩)
홈페이지 : http://pubsa.net FAX : 02)737-5305

박희승의
현대인을 위한 禪의 지혜 ② 부처님 깨달음 중도와 화두 참선



▶한줄요약
부처님 깨달음 중도와 간화선은 하나다.

부처님 깨달음은 생사 도리 밝히는 지혜

사람으로 태어나 생사윤회의 괴로움에서 해탈하여 영원히 행복을 누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부처님께서는 삶과 죽음의 괴로움에서 해탈하려면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깨달으면, 행복과 불행이 교차 반복되는 상대적인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누린다고 부처님은 설하셨다.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과연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깨달음이란 무엇일까? 예전에 대구에 사는 주부들에게 '대월동화' 라는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었다. '대월동화' 란 무슨 뜻일까? '대월동화' 란, '대구백화점은 월요일에 쉬고, 동아백화점은 화요일 쉰다' 는 말이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월동화' 는 무슨 말인지 알기 어렵지만, 알고 보면 너무나 쉬운 말이다.

그렇다면, 이 '대월동화' 라는 말뜻을 깨달아 알았다고 생사의 괴로움이 해결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말이다. 이와 같이 말과 문자로 아는 것을 지식(知識)이라 한다. 지식은 보고 듣고 사유 분별로 알음알이로 아는 것이다. 삶에 도움은 될지언정 깨달음의 지혜는 아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달음은 나와 우주 만물의 존재 원리, 삶과 죽음의 도리를 밝히는 지혜(智慧)의 깨달음이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무엇인가?

인류 문명사에서 깨달음을 말하는 이는 적지 않았다. 하지만,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영원히 해탈하는 지혜의 깨달음을 말한 분은 부처님이 최초이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알라신, 브라만과 같은 전지전능한 지혜와 능력을 갖춘다고 하셨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삶과 죽음의 공포, 두려움, 절망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고, 범부가 성인이 되는 길이고, 중생이 부처가 되는 길이니 인간의 자기 완성의 길이다.

부처님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해탈하시고 그 길을 알려주신 것이 팔만대장경이다. 잘 아는 바와 같이 부처님의 설법은 너무나 방대하다. 예수교는 〈성경〉 한 · 두 권이고, 이슬람은 〈코란〉, 도교는 〈도덕경〉 〈장자〉, 유교는 사서삼경에 지나지 않지만, 불교에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경전이 있다. 더구나 이 방대한 경전이 팔리어, 산스크리트어, 한자, 한글 등등 여러 문자로 기록되어 전하니 말과 문자, 용어, 개념, 교리, 수행, 믿음, 사상, 종지, 종파가 너무나 다양하고 방대하여 불교 공부는 참으로 어렵고 어렵다.

한국불교는 1700년 동안이나 한자로 된 한문 불경으로 불교를 공부해 왔다. 이 전통은 20세기 후반까지 그랬다. 세종대왕이 우리말과 다른 한자를 공부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한글을 창제하고 세종, 세조대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간경도감을 설립하여 우리말 경전을 펴냈지만, 세조대 이후로는 중화 사대주의와 유교 성리학이 뿌리내리면서 불교의 우리말 역경은 중단되고 말았다. 수백 년 뒤 20세기가 되어 조선왕조의 패망과 일제 식민지 침탈을 당하면서 민족사적인 자각과 민주적인 주체 의식이 고양되면서 불교 한문 경전의 한글 번역이 대중화되었다.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한국불교는 한글로 된 경전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으니 비로소 불교의 대중화가 시작된 것이다.



부처님께서 중도를 설한 초전법륜 성지 인도 바라나시 녹야원

그런데, 21세기 들어서 남방 상좌부 승가에서 전래되어 온 남전(南傳) 팔리어본 경전이 한글로 번역 소개되면서 팔리어 경전이 부처님 원음에 가까운 초기불교이고, '대승과 선종은 부처님 친설이 아니다' 는 주장이 나오면서 지금 한국불교계는 약간의 혼돈과 갈등이 있다.

더구나 얼마 전에는 불교계에 "깨달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논쟁도 벌어졌다. 비록 논쟁은 흐지부지 되었지만, 여전히 불교의 깨달음에 대하여 시비와 혼란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부처님은 삶과 죽음의 괴로움에서 해탈하는 길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국불교에서 불교 공부는 왜 이리 힘들고 어려울까?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은 결코 부처님이 뜻하신 바가 아니고 부처님이 원한 바가 아니다.

부처님의 최초 설법, "초전법륜"

그렇다면, 부처님의 깨달음은 무엇인가?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아 생사의 괴로움에서 해탈한 것일까? 불자라면 누구나 한 번은 이것을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참된 부처님 제자라면 부처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 부처님의 경전에는

인간이 스스로 중도 깨치면
영원한 대자유 길 열린 것

중도 화두 참구해 타파하면
깨달아 생사 괴로움도 해탈

깨달음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아는 바와 같이 부처님의 말씀은 히말라야산맥을 경계로 남방에는 남전 팔리어 경전과 산스크리트어 경전이 전하고 북방으로는 산스크리트어를 저본으로 한 한문 경전이 전승되어 왔다.

한국불교는 20세기까지 북전(北傳) 산스크리트어 - 한문 경전만을 보아 오다가 21세기에 와서 남전 팔리어가 한글로 번역되었다. 그러므로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 깨달음을 확인해 보려면, 팔리어 남전과 한문 북전 경전을 동시에 대조하여 보면 분명한 답이 나온다.

남전과 북전 불교 경전 중에서 부처님이 깨치고 하신 최초 설법을 '초전법륜(初傳法輪)' 이라 하는데 이견이 없다. 그러니 우리가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하여 바르게 알려면 부처님의 첫 설법을 보아야 한다.

부처님의 첫 설법을 기록한 경전들

부처님의 최초 법문을 기록한 경전은 남전 팔리어 〈마하박가 율장대품〉에 자세히 나와 있다. 학자들은 부처님 말씀이 경전 보다 율장이 먼저 결집된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불교 승가(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계율이 정해진 것이 부처님 말씀을 결집한 것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율장〉에 기록된 최초 법문인 초전법륜이 부처님 첫 번째 설법이다.

남전 〈율장〉에는 "가르침의 바퀴를 굴림에 대한 이야기(한국빠알리성전협회)"라는 제목으로 부처님이 깨치고 다섯 수행자들에게 첫 설법을 하는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남전 〈율장〉의 초전법륜의 기록은 남전 〈쌍윳다니까야〉에는 〈전법륜경〉과 〈무아상경〉으로 나눠져 나오며, 북전 한역 〈오분율〉과 〈사분율〉 그리고 한역 〈잡아함경〉, 〈불설중본기경〉 〈전법륜품〉에도 비슷하게 보인다. 여기에서는 한국빠알리성전협회, 〈마하박가 율장대품〉의 "가르침의 바퀴를 굴림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부처님 깨달음에 대하여 알아보자.

부처님의 깨달음, 중도

부처님은 깨치고 죽음의 두려움마저 해탈한 뒤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먼저 전할까를 생각하다가 마침내 6년 동안 함께 고행했던 다섯 수행자에게 하기로 한다. 부처님은 붓다가야에서 다섯 수행자가 있는 바라나시 녹야원까지 무려 200㎞ 넘는 먼 거리를 찾아 갔다. 다섯 고행 수행자를 만난 부처님은 이렇게 역사적인 설법을 시작한다.

"수행승들이여, 출가자는 두 가지 극단을 섬기지 않는다.

두 가지란 무엇인가?

감각적인 쾌락의 욕망에 탐착을 일삼는 것은 저열하고 비속하고 배우지 못한 일반 사람의 소행으로, 성현의 가르침이 아니며 무익한 것이다.

또한 스스로 고행을 일삼는 것도 괴로운 것이며 성현의 가르침이 아닌 것으로 무익한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여래는 이 두 가지 극단을 떠나 눈을 생기게 하고 앎을 생기게 하며 궁극적인 고요, 바른 앎, 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이끄는 중도中道를 깨달았다."

부처님은 당신이 "두 가지 극단을 떠나 중도를 깨달았다"라고 하셨다. 부처님은 중도를 깨달아 생사의 괴로움을 해탈하여 영원한 행복을 누리신 것이다. 부처님은 다섯 수행자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양 극단을 떠나 중도를 깨달았다고 알려주신다. 이것이 바로 중도대선언(中道大宣言)이다. 부처님은 중도를 깨치면 누구나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떠나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인류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이제 인류는 하늘에 있는 신에게 빌고 의지하여 믿음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을 얻는 길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중도를 깨치면 영원한 대자유를 누리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것이 위대한 인간 완성의 종교, 깨달음의 종교인 불교의 시작이다.

부처님의 중도와 간화선은 하나

부처님의 초전법륜을 듣고 "꼰단냐를 비롯한 다섯 수행자는 모두 해탈하여 아라한이 되었고 부처님 제자가 되어 세상에 여섯 명의 아라한이 생겨났다."라고 〈마하박가 율장대품〉에는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불교의 출발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기원 무렵에 인도에서 북방 실크로드로 동아시아로 전해졌다. 6세기경에는 인도 남부에서 달마대사가 해로로 동아시아에 최초로 선법(禪法)을 전했다. 동아시아 선종의 초조 달마대사의 선법은 6조 조계 혜능대사에게 이어졌는데, 혜능대사는 깨달음을 이루고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끝까지 따라 온 혜명스님을 만나 문답한다. 혜명은 6조에게 법을 설해 달라고 청하자, 혜능대사는 이렇게 법을 설한다.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네 본래면목이 무엇이냐?"

이 말을 듣고 혜명은 단박에 깨달아 6조의 인가를 받는다. 이 대목은 〈덕이본 육조단경〉에 기록되어 있다. 간화선에서는 6조 혜능대사의 이 법문을 화두의 효시로 본다. 화두는 선과 악이라는 양변을 떠나 중도를 바로 깨치라고 일러주는 말이다.

부처님이 깨친 중도를 간화선에서는 화두를 참구하여 깨치는 수행법으로 계발하였다. 이것은 불교사상사에서 혁명이다. 부처님이 깨친 중도를 화두를 참구하여 타파하면 바로 깨달아 생사의 괴로움을 해탈하여 영원한 대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부처님의 깨달음 중도와 간화선은 하나다.

〈불교인재원 생활참선 지도교수〉



(사) 영남범음범패 연구보존회
2023학년도 학인모집

사단법인 영남범음범패 연구보존회에서는 신라의소리인 영남범패의식을
6개월과정으로 수련할 학인스님을 모집하여 개강하고져 합니다.

-아 래-

✻ 자 격 : 삭발염의한 스님 (일반불자 제외)
✻ 개강일 : 2023년 2월 9일 (음력 1월 19일 목요일) 오후 3시
✻ 수강일 : 매주 월 · 목요일 오후 3시부터 강의합니다. (주2회)
✻ 장 소 :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86번지 화장사(진영포교당)
✻ 과 목 : 초급반 - 도량석 및 각단예경
중급반 - 사시불공, 49재 및 천도재의식, 관음시식, 사물다루는 법(실전위주)
상급반 - 바라 및 착복무(오공양 작법, 개인지도)
✻ 수강료 : 월10만원 (수시모집가능)
✻ 강 사 : 수암, 덕우 스님 (외전위주 강의)
※ 자세한 문의는 전화로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장사 진영포교당 : (055) 343-2267~8700 수암 : 010-5488-7060

(사) 영남범음범패 연구보존회

노재학의 한국산사 목조각 걸작 ❷ 영주 부석사 범종각 목어



▶ 한줄 요약
범종, 법고, 운판, 목어, 그 넷을 일러 '불전사물(佛殿四物)'이라 부른다. 불전사물의 소리에는 지극한 예경이 배어있다.

비움에서 들려오는 부처님 소리

불전사물, 한국불교 독특한 문화

범종, 법고, 운판, 목어, 그 넷을 일러 '불전사물(佛殿四物)'이라 부른다. 불전사물은 사찰건축의 하나인 범종루, 또는 범종각에 배치한 네 가지 타악기를 이르는 말이다. 범종과 운판은 청동으로 만든 금속악기이고, 법고와 목어는 나무로 만든 타악기다. 금속악기의 음은 맑은 고음을 내고, 목조 타악기는 투박한 저음을 낸다.

불전사물은 통상 한 전각 안에 모두 매달려 있다. 생김 하나하나가 기존 악기 관념과는 거리가 멀다. 낯선 사람에게서 범종루는 마치 입체조형으로 구성한 설치예술의 전시장 같은 느낌을 준다. 묵직하고, 투박하며, 고요함 속에서 그 형세들은 하나같이 의문을 갖게 하고 그로테스크하다. 범종루에서 연주되는 소리는 파격적이다. 연주자는 악기를 때려 부술 기세로 온 몸으로, 때론 춤을 추듯 우아하게, 때론 고요하게 연주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연주한다'는 말은 뭔가 어색하다. 온 몸을 던지고, 우아하게 강약으로 때리고, 속을 휘젓고, 무심히 두드린다. 심지어 커다란 법고 앞에선 서너 명의 스님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리듬을 이어가며 북을 두드린다. 일찍이 그런 연주는 경험한 적이 없다.

악기를 치고 두드리는 스님들의 모습은 사자처럼 용맹스럽고, 학처럼 우아하고, 선승처럼 고요하다. 법을 짓고 펼치는 동작이 스며있다. 타악 동작은 무용에 가깝다. 스님의 무용 몸짓을 '작법(作法)'이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짓으로 만들어 펼치기 때문이다. 타악의 연주 역시 작법의 형식 연장선에 있다. 연주자의 작법으로 펼쳐지는 소리는 웅장하고, 장중하며, 단성률처럼 단순하며, 투박하다. 마치 오랜 침묵 속에 응축해 온 가공되지 않은 '성(聲)'이 사자후처럼 미어터져 나오는 형세다. 예불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이러한 사물 타악기 연주는 어느 나라 불교문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한국불교의 독특한 문화다. 오랜 역사를 통해 유전자처럼 전승해 온 한국인 특유의 가무와 미의식이 깊숙이 스며 있다.

불전사물의 소리는 법음

불전사물 소리들은 예사롭지 않다. 소리에 지극한 예경이 배어있다. 연주자들은 통상 승가대학 학인스님들이다. 승가대학 역시 일반 대학에 해당하는 4년 학제이다. 치문반, 사집반, 사교반, 대교반으로 편제한다. 대체로 범종루에 오르는 스님은 2년차 사집반 이상이다. 종루에 올라 연주할 때는 가사장삼을 갖추고 극진히 예경한다. 법당에서의 예불차림과 같다. 왜 그럴까? 불전사물의 소리는 본질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을 의미한다. 법음을 제 각각의 소리로 우주공간에 퍼트린다. 범종 소리는 법계우주의 중생에게 퍼트리는 일승원음의 법음을 상징한다. 새벽엔 수직적 불교세계관을 아우르는 28천의 모든 중생 구제를 위한 뜻으로 28회 타종하고, 저녁엔 중앙과 사방팔방의 수평세계를 아우르기 위해 33회 타종한다. 소가죽과 나무로 만든 법고는 축생을, 운판은 날짐승을, 목어는 수중생명들을 제도하기 위한 법음의 악기다. 불전사물의 소리를 통해 만유의 생명에게 자비와 진리를 퍼트린다. 연희 성격의 예술 공연 차원을 넘어선다. 정해진 형식과 절제된 규범, 예경의 옷차림은 의례를 더욱 장중하게 하고 거룩하게 연출한다. 울림은 산사의 적막에서 나와 세상의 고요 속에 깃든다. 심장에 파장을 놓는 듯한 두드림의 소리에 세상과 생명은 정화되고 청정해진다.

물고기형 목어, 용두어신형 목어

목어는 나무로 조각한 물고기 형상의 타악기다. 1~2m 길이의 통나무를 물고기 모습으로 조각한 후 배 부분의 속을 파낸다. 탐욕과 집착의 마음을 비워내는 것이다. 그렇게 욕심을 비워낸 울림통은 맑은 소리를 품어낸다. 목어의 물고기 모습은 나무 생김대로 형상화한다. 나무 굴곡 그대로 자연스레 등이 휘기도 하고, 홀쭉하기도 하고, 풍만하기도 하다. 진주 청곡사 목어처럼 배 부분이 유난히 볼록한 우스꽝스런 모습을 하기도 한다.

불전사물, 한국불교 독특한 문화
용주사 목어(1709년)가 현존 最古
목어 타주 방법은 예불마다 달라

불교조형에서 물고기는 초현실주의 경향으로 진화하는 특성이 있다. 용으로 질적 변화하는 어변성룡의 모습이 나타난다. 단순한 물고기 형상에서 이상적인 특성을 두루 갖춘 용으로 변신한다. 그에 따라 목어 조형은 크게 세 가지 모습을 띤다.

첫째, 물고기형 목어는 잉어 형상이고 대체로 북어처럼 메마른 형상이다. 김천 청암사 목어, 순천 송광사 목어, 대구 동화사 목어, 영천 은해사 목어, 장흥 보림사 목어 등이 대표적이다.

둘째, 진화형 목어는 물고기에서 용두어신으로 진화하는 중간형 목어이다. 물고기 몸에 용의 특성을 조금씩 더했다. 용의 귀나 뿔은 없지만 입이나 콧등, 몸통 등에 용의 모티프인 보주를 표현한다. 예산 수덕사 목어, 양산 통도사 목어, 공주 마곡사 목어 등에서 그런 경향을 볼 수 있다.

셋째, 용두어신형 목어는 몸통은 물고기이고 얼굴은 용의 형상을 한 목어이다. 보주를 입에 물고 있고, 용의 귀와 뿔을 가진다. 어변성룡의 질적 변화는 물고기가 여의보주를 갖춤으로써 가능하다. 보주는 물고기에서 어변성룡으로 이행하는 원천이자 깨달음의 상징이다. 그때 물고기는 잠자는 시간마저 아껴가며 깨달음에 용맹정진하는 수행자의 이미지와 겹친다. 용두어신형 목어는 안동 봉정사, 파주 보광사, 진주 청곡사 목어를 비롯해서 해인사, 범어사, 대흥사, 불국사 등에서 두루 볼 수 있다.



영주 부석사 범종각의 목어



각양각색의 목어. 왼쪽 위에서부터 차례로 김천 청암사, 순천 송광사, 대구 동화사, 서산 개심사, 양산 통도사, 공주 마곡사, 안동 봉정사, 파주 보광사, 진주 청곡사 목어. 위 칸은 물고기형 목어, 중간은 진화형 목어, 아래 칸은 용두어신형 목어.

부석사 가람배치와 결합한 목어의 무한무대

목어는 조각가의 개성만큼이나 각양각색이다. 하지만 어느 것도 같은 것이 없다. 목어 대다수는 야외에 메달아 둔 목조각 특성에 의해 시대가 오래된 것이 드물다. 1616년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울진 불영사 목어가 기록상 가장 오래된 것이지만 지금은 도난당해 볼 수 없다. 현재로선 1709년 제작연도가 밝혀진 수원 용주사 목어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국의 그 많은 목어 중에서 조형미가 뛰어난 몇몇을 손꼽을 수 있다. 영주 부석사 목어, 파주 보광사 목어, 양산 통도사 목어, 해남 대흥사 목어, 곡성 태안사 목어 등이 대표적이다. 그 중 부석사 목어의 조형미가 단연 돋보인다. 조형미의 삼요소로 꼽는 형태, 색채, 문양구성 등에서 두루 탁월하다. 부석사 목어 길이는 1.7m이다.

적당한 살집을 갖춘 몸은 유선형 몸매로 군더더기 없이 매끈하다. 반듯하게 편 몸은 유연하면서도 당당하고 힘이 흐른다. 특히 꼬리와 등줄기 지느러미를 살아있는 감성돔 지느러미처럼 대단히 사실적으로 표현해서 눈길을 끈다. 지느러미는 활짝 펼쳐 있다. 금방이라도 살아 헤엄쳐 나갈 듯한 생생한 추진력이 느껴진다. 부릅뜬 눈, 입안에 다부지게 콱 물고 있는 여의보주, 몸통에 표현한 금빛 지느러미와 붉은 화염문 등도 부석사 목어에 특별한 위세와 위신력을 부여한다. 목어에 올린 단청색채도 청색과 주홍계열의 보색관계에 의한 한난대비 원리로 따스하면서도 밝고 선명한 색감을 살려냈다. 무엇보다 부석사 특유의 가람배치와 결합하여 목어의 빈 뱃속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 파장의 확산 범위를 무한대로 펼쳐 둔 점이 깊은 인상을 준다. 법고, 목어의 울림이 소백산 능선을 따라 굽이치며 천지간에 울려 퍼지는 심리적 효과를 느낄 수 있다.

사물 순서와 목어 타주하는 음악 원리

목어를 타주하는 방법은 색다르다. 속을 파낸 배의 양 측면을 채로 교대로 쳐서 소리를 낸다. 소리는 둔탁하고 투박하다. 목어는 불전사물의 타주 과정에서 두 번째, 또는 세 번째로 친다. 통도사와 범어사는 두 번째에, 해인사와 송광사는 세 번째에 친다. 사물 치는 순서가 절 따라 다르고, 새벽예불, 저녁예불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통도사, 범어사, 부석사: (새벽예불) 운판-목어-법고-범종, (저녁예불) 법고-목어-운판-범종 △해인사, 송광사: (새벽예불), (저녁예불) 법고-범종-목어-운판 순서로 동일.

통도사와 범어사, 부석사에선 예불 시각에 따라 운판과 목어 타주 순서가 바뀐다. 오행의 원리에 따른 산물이다. 오행에서 목어는 목(木)으로 동쪽이고, 운판은 금(金)으로 서쪽에 해당한다. 새벽은 서쪽 어둠에서 동쪽 밝음으로 이행하므로 운판-목어 순서로 친다. 저녁은 거꾸로 밝음에서 어둠으로 옮겨가는 시간이므로 목어-운판 순서로 한다.

목어를 타주하는 방법도 절마다, 예불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다. 통도사의 새벽예불 때는 꼬리에서 시작하여 머리로 향하고, 저녁예불 때는 머리에서 시작하여 꼬리로 향한다. 범어사에선 반대 순서로 타주한다. 그럼에도 목어를 타주하는 리듬 원리는 유사하다. 낮은 음-높은 음-낮은 음-높은 음 순서로 음의 높낮이를 파도처럼 변주한다. 음의 빠르기도 머리-몸통-꼬리 부분마다 타주 속도를 달리한다. 목어의 몸 부위에 따라 '탁, 탁, 탁, 탁, 타다다다다다탁, 탁, 탁, 탁, 탁' 형식을 반복한다. 진양조에서 휘몰이로 단숨에 내달리다 극적으로 멈춘다. 머리와 꼬리 부분에선 스타카토 형식으로 한 음씩 짧게 끊어 치고, 몸통에선 빠르게 연속해서 친다. 음 높이와 빠르기에서 리듬을 살려낸다. 짧은 한 마디 안에서 리듬이 무궁무진하게 변한다. 경이로운 변주다.

부석사 저녁예불에선 법고-목어-운판-범종의 순서로 사물을 친다. 범종각에서 미어터진 소리 동심원 파장을 놓을 때 서역 만리로 붉은 노을 뻗치고, 소백산 비로봉, 연화봉, 도솔봉들은 아스라이 내달려 으스름에 잠긴다. 목어 한 마리 탁, 탁, 타다다다탁, 탁, 탁... 제 텅빈 소리를 자내증으로 내놓으며 저녁노을에 고요히 스며든다. 사람도 제 속을 비우면 영혼에 한 마리 목어가 들어와 산처럼 울어 댈 것이다.

〈사진작가〉

장엄하고 은은한 염불소리가

법당과 사찰을 감돌고 휘돌아 불자들의 심금을 울려야 할 깊고 심오한 염불소리! 가 지방 업자들의 단순 시공으로 이장 마이크시설 수준이 되어 염불 스트레스와 성대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스님들에게 ..... 서울 토박이 낙원동 출신 베테랑 음향 전문가에게 맡기시면... 단 한번의 최고 시설로 나머 염불인생이 편하기 그지 없어 보물이 따로 없습니다.

20년간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1천여 사찰 시설했지만 고장없음, 만일 고장이 난다면 입소문 때문에 장사를 고만 두어야 함, 시설비 190만원 ~ 수 천만원까지

전국을 다니며 시설함으로 귀 사찰을 부근을 지날때 견본으로 일단 소리만 비교
(귀 법당소리와 비교시 장난감 수준 차이! 소리비교비용은 커피한잔!)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무선마이크 4개, 본품들은 시중에 없음 (특징 : 중국제 아닌 국산)

원톱 시스템 다목적 방생용
한번에 최고의 성능을 구입하시면 절약
속에 후회가 없다는 뜻!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무선 2 /
유선 2 /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색소폰
무선전용마이크)
실내 40평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정가(스탠드 포함) 89만원

시중에 없음
염불시 마이크와 2m
멀리서도 소리 월등
스탠드 분리형

시중에 없음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가격 65만원
▣ 한국사찰 각종 "재" 전문

방송장비
KBS 및 각 방송사 방송기재 납품업체
마이크 공장직영, Multi-Cube
각종 방송시설
MASS Concert MICROPHONES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TEL : (055) 343-1191
H·P : 010-9471-2026
010-7740-2026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공희



불교인문학살롱

❷ 붓다의 자유와 흄의 해방



▶**김은중 전문연구원은** 연세대 철학과 및 동대학원 철학과 졸업했으며, 연세대 미디어아트연구소 HK연구교수 역임했다. 연세대 인문학연구원 전문연구원과 '더 수필' 선정위원, '철학수필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흄 "아집서 해방"…붓다 설한 자유와 맞닿아

J는 누구로부터 코로나19에 옮았는가?

지난 토요일에 만난 지인 H가 코로나19에 걸렸다고 다음 주 수요일에 J에게 문자를 보냈다. J도 그 다음날인 목요일부터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 주말에 두 사람이 카페에서 대화를 나눈 시간은 약 40분이었다. H는 월요일부터 감기 기운이 있었으며 J는 월요일에는 아무 증상이 없었다. J는 H로부터 코로나19에 전염되었다고 판단했다. H도 그렇게 생각했다. 우리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판단은 정확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이유들에 따라 부정될 수 있다.

첫째, J는 그날 버스와 지하철을 번갈아 타면서 H와의 약속장소에 도착했다. 만난 뒤에도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해 집으로 갔다. 대중교통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로부터 전염됐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따라서 H가 J를 만나기 전에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돼 있었다고 해도 J가 걸린 코로나19가 H로부터 온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왜냐하면 H가 J에게 코로나19를 옮겼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며, 대중교통에서도 누군가가 J에게 코로나19를 선물했고 H 역시 J에게 코로나19를 선물했어도, J가 걸린 코로나19가 어느 쪽으로부터 감염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셋째, J는 H를 만나기 전에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수 있다. H를 만날 때는 잠복기였다. 다만 잠복기가 2일에서 14일 정도이므로, H가 J로부터 감염되어 먼저 양성 반응이 나타났고 J는 하루 늦게 나타났을 수 있다. 오히려 J가 H에게 코로나19를 옮겼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도 우리는 J가 H로부터 코로나19를 옮았다고 생각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출신 철학자 데이비드 흄(1711~1776)은 "우리의 모든 앎은 강렬함이나 생생함으로써 느껴지는 '인상(印象)'의 감정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인상은 '어떤 대상이 마음에 박히는 느낌'이다. 첫인상이 좋다고 할 때 우리가 이해하는 뜻, 바로 그것이다.

우리 사유의 모든 재료는 우리의 안과 바깥에서 형성되는 인상(印象)에서 나온다. 인상은 우리가 듣거나 보거나 느끼거나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욕구하거나 의욕할 때 일어나는 좀 더 생생한 지각이다. 마음에 최초로 등장하는 우리의 모든 감각, 정념, 감정이다. 우리의 모든 사유나 관념은 그런 인상들의 모사이다.

인상들로부터 생기는 인간의 지식

우리는 상처를 보면 고통스럽고, 하늘에 빛이 번쩍이면 천둥이 칠거라고 생각하며, 천둥이 치면 비가 오겠다고 생각한다. 연예인 W가 광고하는 제품은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런 생생하거나 강렬한 사태로부터 받은 인상으로 관념으로 만드는데, 이런 관념들이 이성적으로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각각의 관념을 결합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까닭은, 우리가 유사한 사물들(유사성의 법칙), 시간과 공간에서 인접한 사물들(근접성의 법칙), 원인과 결과로 연결된 사물들(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두고 축적한 관념들을 결합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토요일에 H와 J가 만났고, H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몸살 기운이 있었으며, 수요일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J는 목요일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생각한다. 이것들은 사실 각각의 인상들이다. 다른 인상들도 있지만 그 인상들은 무시한 채-왜냐하면 이 인상들이 가장 생생하므로- 우리는 이 인상들을 관념으로 만들고는 J가 H로부터 코로나19를 옮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지식은 관념들의 결합이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해가 뜬다는 관념들을 결합해 아침이면 해가 뜬다는 하나의 지식을 만든다. 우리는 관념이 이

우리의 지식은 印象의 감정에 불과
흄 "지식, 경험이 만든 허구의 구조"
불교의 무아론과 유사점 적지 않지만
흄은 고립을 붓다는 연결을 생각한다
그래도 붓다와 흄의 지향점은 동일해



사진은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출신 철학자인 데이비드 흄(1711~1776)의 초상화.

성적으로 얻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관념의 기원은 사실 경험에서 얻어지는 인상이다. 그렇다면 지식은 이성적인 추론으로써 얻어지지 않고 얼마나 더 그럴듯한가에 대한 개연성에서 얻어진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만 인식할 수 있고, 경험에서는 필연성이 아니라 개연성에만 도달할 수 있다. 흄은 "문제에 관한, 곧 원인과 결과에 대한 모든 추론은 오직 습관에서 발생하며, 습관은 반복된 지각의 결과로서만 존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연속적 관계를 필연적 관계로 오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인과 결과는 관념의 일정한 연속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인과 관계에 대한 지식은 추론에 의해서 선험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특정한 대상들이 서로 지속적으로 결합된다는 것을 발견할 때에 얻어지는 경험으로부터 생긴다." 이것이 흄의 생각이다.

자연의 운행에서는 유사한 대상들이 지속적으로 서로 연접해 나타나며, 정신은 습관적으로 하나를 보고 다른 하나도 출현할 것이라고 추리하도록 결정되어 있다. 연접과 추리, 이 두 가지 사실이 우리가 사물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필연성 전부를 만들어 낸다.

"유사한 대상들의 지속적인 연접이 없다면, 그리고 연접을 보고 나서 하나로부터 다른 하나로 추리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필연성이나 연관성에 대한 개념은 우리에게 전혀 생겨날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인간이 알고 있는 진리는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이며 심리적이라고 흄은 생각한다.

우린 영혼의 실체에 대해 알지 못한다

여기에서 흄은 한발 더 나아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의 감각뿐이라면, 물질적 실체나 정신적 실체의 실재성을 확언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우리의 지식은 현상의 세계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 · 실체 · 원인 · 영혼 · 자아 · 외부세계 · 우주에 관해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런 다음, 흄은 비물질적이며 분리가 불가능하고 사멸도 불가능한 영혼 및 실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사유하는 실체'(자아)가 단일하며 분리가 불가능한지의 여부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는 확증될 수도 반박될 수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동일하고 단순한 자아'의 관념을 갖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런 단순하고 지속적인 원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경험을 한 적도 없다.

우리의 마음은 "상이한 지각의 다발 또는 모음이며, 이는 파악할 수 없는 속도로 서로 제기하며 영속적 흐름과 운동 가운데 있다. 마음은 몇몇 지각이 계기적으로 모습을 보이고 지나가고 다시 지나가고 흘러 사라지며 무한히 다양한 상태와 상황 속에 섞이는 일종의 극장이다. 그 안에는 하나의 시점에서 단순성이 없으며 다른 시간들에서 동일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음 안에는 단순성도 동일성도 없다. 마음은 어떤 관계에 의해 결합된 상이한 지각들의 모음에 불과하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완전한 단순성과 동일성을 부여 받았다고 가정한다. 이 가정은 증명되지 않았다.

흄이 주장하는 요지를 요약하면 이렇다. 마음은 습관에 따라 하나의 사건에서 다른 결론을 추론한다. 하지만 비슷한 대상의 일정한 연접과 그에 따라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의 추론을 넘어서는, 필연성이나 연관의 개념은 없다. 따라서 흄에서 지식은 인간의 경험이 만든 허구의 구조가 되며, 인성의 실체에 대한 실재성은 확인할 수가 없게 된다.

붓다의 '없다'와 흄의 '알 수 없다'

흄의 이런 주장은 붓다의 무아론과 연결되기도 한다. 아니 우리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다. 연결하거나 연상하는 습관 말이다. 그러나 붓다의 말씀과 흄의 주장이 얼핏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탐구의 방법에서는 다르다. 만약에 붓다와 흄이 같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흄이 말하는 습관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습관으로써 부회(附會)를 저지를 수는 없다.

붓다는 나의 존재가 현상적으로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본체로서의 자아는 없다고 주장한다. 대신 존재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존재다발인 오온(五蘊)을 설정한다. 색(色) · 수(受) · 상(想) · 행(行) · 식(識)이 그것인데, 존재의 물질적(신체적) 요소(色)와 정신적 요소(受想行識)들의 무리로서,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조견오온개공(照見五蘊皆空)"에서의 오온을 가리킨다. 흄의 지식론에는 이런 오온이 없는데 인상 · 관념 · 결합 등을 수 · 상 · 행 · 식과 연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람들은 몸을 구성하는 물질(色)과 함께, 정신적 과정인 느낌(受), 지각(想), 형성(行), 의식(識)을 각각 나이거나 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온에 근거하여 '이것이 나이고 이것이 세상이고 죽은 후에 항상하고, 견고하고, 영원하고, 불변하게 존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온은 모두 공이다. 그것을 제대로 볼 때 도일체고액(度一切苦厄), 일체의 고통과 액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붓다의 말씀이다.

따라서 오온을 분석하고 관찰하면 자아에 실체가 없음이 드러난다.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으니, 모든 것은 조건지어지고 상대적이며 상호의 존적이다. 인간 존재는 오온으로 이루어져, 조건에 의해 생성되었다가 조건에 의해 변하고 사라지는 것일 뿐, 불변의 실체인 자아가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자아의 실체에 대해 흄은 '알 수 없다' 라고 말하며 붓다는 명확하게 '없다' 라고 말한다. 우리의 지식은 마음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흄은 인과율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지식은 개연적이라 했고, 붓다는 깨달음이란 연기법을 여실히 보는 것이라 하여 인과를 인정했다. 연기법을 본다는 것은 이 세계의 모든 현상과 존재, 사물들을 개별적인 고립된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조건적 관계로 보는 것이다. 흄은 고립을 붓다는 연결을 생각한다. 여기에서 붓다와 흄 사이에 차이가 있다.

이렇듯 붓다의 무아론과 흄의 지식론은 다르게 전개된다. 다만 추구하는 목적에서는 닮은 점이 보인다. 흄은 철학적 회의론을 앞으로써 인간이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학문을 탐구할 수 있게 되며, 독단과 불합리성으로 가득 찬 논증들과 쓸데없는 고집으로부터 해방된다고 보았다. 붓다는 연기의 법칙을 깊이 이해하면 '자아의 비어있음' 으로서의 무아를 깨달아 자신과 타자의 상호 연관성을 경험하면, 세계와의 단절감이 사라지며 이기적 욕망과 공격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보았다. 흄의 해방과 붓다의 자유 사이에는 통하는 점이 있다.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경남 고성 대명사, 전국 캠핑장 캠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 등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문의 010-3267-1263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02-523-0708 강남점 (도곡동 467-24)
010-7384-1708 김영숙 대표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마음이 어디 있느냐?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③ 청정한 마음의 본성

〈원문〉 부처님이 아난에게 고하셨다.

"아난아, 너와 나는 동기라. 정의가 천륜과 같으니라. 네가 처음 발심해서 내 법 가운데 무슨 뛰어난 모습을 보았길래 세상의 깊고 무거운 은혜를 한꺼번에 버렸느냐?"

아난이 부처님께 사뢰었다.

"제가 여래의 32상이 뛰어나게 절묘해서 몸이 맑게 사무치는 것이 유리와 같음을 보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모습은 욕애(欲愛)로 생긴 것이 아닐 것이니, 왜냐하면 욕애는 거칠고 혼탁해서 비린내 누린내가 서로 얽히고 고름과 피가 뒤섞인 것이어서 능히 뛰어나고 깨끗해 밝기가 이를 데 없는 금빛의 광명을 발생하지 못하리라 생각하고 목마르듯이 우러러 사모해서 부처님을 따라 머리를 깎았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랬구나. 아난아, 잘 알아라. 일체중생이 시작을 알 수 없는 때부터 나고 죽는 생사를 반복해 온 것은 모두 항상 그대로 있는 참된 마음의 자성이 청정한 그 자체를 모르고 온갖 망상을 쓰고 살기 때문이니라. 네가 이제 위없는 보리의 참되고 밝은 성품을 알려면 마땅히 곧은 마음으로 내 묻는 말에 답해보아라. 시방 여래가 똑같은 길에서 생사를 벗어나느니라. 똑같은 길이 바로 곧은 마음이니라. 아난아 네가 처음 여래의 32상을 보고 발심했다 하니 무엇을 보았고 무엇이 좋아했느냐?"

"세존이시여, 제가 32상을 보고 좋아한 것은 제 눈과 마음으로 하였습니다."

"네가 말 한대로 진실로 보고 좋아한 것은 눈과 마음으로 한 것이니라. 그러나 만약 눈과 마음이 있는 데를 알지 못하면 진로(塵勞)를 항복 받을 수 없느니라. 비유컨대 나라의 왕이 외적의 침략을 받아 군대를 보내 적을 토벌할 때 적병이 어디에 침입해 있는지 있는 곳을 알아야 하는 것과 같으니라. 내가 지금 너에게 묻노니 마음과 눈이 어디 있느냐?"

〈강해〉 대승 경전에서는 부처님의 신체상 특징이 32가지로 나타난다고 한다. 머리 위의 정수리가 상투처럼 솟아 있는 모습을 한 정상육계상(頂上肉髻相)에서부터 발바닥이 평평한 족하안평상(足下安平相)에 이르기까지 부처님 몸에만 생기는 몸매의 특이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다. 더 세밀하게 말하면 80가지가 있다 하여 80종호(種好) 혹은 80수형호(隨形好)라 한다. 거룩하고 성스러운 몸매를 갖추었다는 뜻이다. 이난이 부처님 몸에 있는 이 상호를 보고 발심하여 출가를 했다고 말하자 부처님은 보는 것은 눈과 마음인데 얼굴에 있는 눈은 두고 마음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다.

예로부터 능엄십의(楞嚴十義)라 하여 각 권의 대의를 요약 10가지로 말해왔다. 1권의 대의가 칠처징심이고 2권은 팔환변견(八還辨見)이라 하여 사물을 보는 진견(眞見)은 명(明), 암(暗), 통(通), 옹(擁), 연(緣), 완허(頑虛), 울발, 제(霽) 등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여 참된 견(見)은 사물에 즉한 것도 여읜 것도 아니라는 말을 한다. 능엄십의의 3은 부석제상(剖析諸相2~3권), 4는 회상귀원(會相歸源4권), 5는 육해일망(六海一亡5권), 6은 선택원통(選擇圓通5~6권), 7은 주심묘용(呪心妙用7권), 8은 지위진수(地位進修8권), 9는 오십종마(五十種魔9권), 10은 오음망상(五陰妄想10권)이다.

'마음이 어디 있느냐?' 사실 이 물음은 선가(禪家)에서 말하는 하나의 공안(公案)이다. 부처님이 아난에게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중생이 나고 죽는 생사를 반복하는 청정한 마음의 본성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알면 생사를 해탈하여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망상을 쓰고 산다고 하였다. 〈유마경〉에는 직심이 도량이라 하였다. 망상에 시달리는 마음은 반대로 곡심(曲心)이다. 번뇌 망상이 마음을 더럽히는 것을 진로(塵勞)라 한다. 이 진로를 항복시키기 위해서 마음이 있는 데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외적이 침입하였을 때 그 외적을 토벌하려면 침입해 온 장소를 알아야 한다는 비유를 들기도 하였다.

〈반야불교연구원장〉

愛心 적당히 조절할 수 있어야



구선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③ 자비관

자비관은 중생이 갖고 있는 애심을 대자비로 전환시키는 방법이면서 안팎의 생멸심을 제도하는 또 한 가지 방편이다. 생멸수행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비관이 있고, 진여수행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비관이 있다. 생멸수행의 자비관은 아라한도 이전에 행해지고, 진여수행의 자비관은 보살도에서부터 행해진다. 부처님께서는 생멸수행에서 이루어지는 자비관을 팔해탈법(八解脫法)을 통해 설하셨다.

△첫 번째 팔해탈은 '내유색상관외색해탈(內有色想觀外色解脫)'이다. 이는 중심을 세워서 6식으로 일어나는 생각들을 제도하고 밖에서 인식되는 6식 경계(색 · 성 · 향 · 미 · 촉 · 법)를 제도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팔해탈은 '내무색상관외색해탈(內無色想觀外色解脫)'이다. 이는 중심의 이면을 세워서 7식으로 일어나는 내부 경계를 제도하고 밖에서 인식되는 7식 경계(안계 · 이계 · 비계 · 설계 · 신계 · 의식계)를 제도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 팔해탈은 '정해탈신작증구족주(淨解脫身作證具足住)'이다. 이는 견성오도를 이루고 나서 몸으로 지어지는 모든 업식을 본성으로 제도하라는 말이다. △네 번째 팔해탈은 '공무변처해탈(空無邊處解脫)'이다. 이는 본성을 주체로 해서 감정의 추업과 세업을 제도하는 방법이다. △다섯 번째 팔해탈은 '식무변처해탈(識無邊處解脫)'이다. 이는 본성을 주체로 해서 의식의 세업과 추업을 제도하는 방법이다. △여섯 번째 팔해탈은 '무소유처해탈(無所有處解脫)'이다. 이는 본각과 밝은 성품을 활용해서 의식 · 감정 · 의지를 분리시키는 방법이다.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초입반야해탈, 중간반야해탈, 종반야해탈이 그것이다. △일곱 번째 팔해탈은 '비상비비상처해탈(非想非非想處解脫)'이다. 이는 밝은 성품의 자연적 성향을 제도하기 위한 방법이다. 아홉 단계의 선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자기 제도의 모든 방법이 비상비비상처해탈법이다. △여덟 번째 팔해탈은 '멸수상정해탈(滅受想定解脫)'이다. 이는 아라한과 벽지불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해탈의 방법이다. 아라한도 이전에 행해지는 자비관은 본성과 생멸심을 분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보살도에서 행해지는 자비관은 진여문과 생멸문이 불이문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처음 자비관을 하려면 먼저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는 관여되지 않는 한 자리이다. 둘째는 연민과 그리움이다. 관여되지 않는 한 자리는 각성을 통해 갖추어진다.

위빠사나나 사마타관 그 밖의 방편을 통해 각성이 키워지면 이때부터 자비관을 할 수 있게 된다. 연민과 그리움을 일으킬 때는 애심(愛心)을 적당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자비관을 하기 전에 또 한 가지 갖추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자비서원(慈悲誓願)이다. "나 아닌 것이여! 본래 비롯된 바도 공하고 실체 또한 공하도다. 바르게 쓰여서 성스러움을 갖추어라." 이 서원은 생멸심과 중생에게 바치는 다짐이다. 모든 심식의를 제도할 때 먼저 이 서원을 암송한다.

위빠사나나 방편관을 행할 때 의식 · 감정 · 의지가 일어나면 있는 그대로 보고 측은지심을 갖는다. 이것이 첫 번째 자비관이다. 초선정에 들어가면 중심이 주체가 돼서 6식으로 접해지는 경계를 비춰본다. 지극하게 중심으로 비춰보면서 편안한 마음을 놓치지 않는다. 이것이 두 번째 자비관이다. 이 과정이 '내유색상관외색해탈'이다. 2선정에 들어가면 중심을 표면과 이면으로 분리시킨다. 그런 다음 표면으로 경계를 비추면서 지극하게 그리움을 일으킨다. 이때 그리움이 지나쳐서 편안한 마음이 훼손되면 안 된다. 중심의 표면에서 경계와 일치가 이루어지면 이면의 관여되지 않는 자리로 표면을 비춰준다. 그러면서 7식 경계를 제도한다. 이것이 세 번째 자비관이다. 이 과정이 '내무색상관외색해탈'이다.

〈영양 연화사 주지〉



지흠스님의 〈능가경〉 강설

③ 언어는 독이면서 약

마음이 본연의 일할 때가 '성찰'

인간에게 언어는 의사를 표현하고 소통하는 수단으로서 양면성을 가진다. 어린아이가 사탕의 단맛을 좋아하여 이가 상하는 줄 알면서도 사탕을 멀리하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은 결코 달지만은 않은 고통을 수반하는 언어의 유희에 깊숙이 속박되어 있다. 언어가 자신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느끼겠지만, 생각과 개념이 복잡해지면 표현의 한계에 묶여 본질은 길을 잃어버린다. 길을 잃은 의식작용은 더 많은 논리를 만들기 위해 사고를 쥐어짜며 사변적인 행위로 몸과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들지만 그것으로 어떤 즐거움이 생길 때, 마치 그것에서 통찰력이 생긴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나 행위에서 기인한 무엇으로 얻은 통찰력이란, 인간의 의지에서 나온 망상 같은 것이다. 인간이 의지를 일으켜 움직이는 것은 앞을 알아서 앞으로 가는 것도, 뒤를 알아서 뒤로 가는 것도 아니다. 다만 멈추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 길을 잃은 양과 같이 이곳저곳을 헤매는 것일 뿐이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언어와 문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힘이 아니라, 그것들의 도움 없이도 인간이 머금은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 언어와 문자를 이용하여 서로 소통하는 것에 어려움을 가지지 않는 것이다. 인간에게 내재한 본질을 모르고 상대와 소통의 수단으로만 언어와 문자를 사용한다면, 소통한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알지 못하는 상처를 주는 일이 되기도 한다. 이것을 올바르게 알고 자신이 무엇인지를 참구하여 살아있는 고통에서 벗어난 인간 본래의 성품은 주변으로부터 어떠한 상처도 받지 않음을 아는 이를 찾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다.

대혜대사는 인간이 살아가는 어떠한 좋은 삶보다도, 인간으로 태어나 받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듣고자 부처님께 의식에서 인식되는 108가지의 다양한 견해를 묻는다. 아마 대혜대사가 묻는 물음들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일 것이다. 우리는 답은 귀 기울여 들으려 하지만 자신에게 생긴 의문이 왜 생겨났는지는 궁금해 하지 않는다.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일은 답이 찾아졌을 때의 성취감에 대한 기대와 만족감이 있다. 그러나 자신에게 생겨난 그 의문이 왜 자신에게 의문이 되었는지 의문 자체를 돌이키는 발상은 쉽게 하지 못한다.

달마 스님이 중국에 가서 전한 가르침 중에 중요한 네 가지가 있다. 교외별전(敎外別傳), 불립문자(不立文字),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이다. 이 네 가지는 글자로는 다르지만, 그 내용적인 면에서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네 가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조금 전에 말한 자신에게 생긴 의문이 왜 의문이 되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의정으로 변할 것이다. 우리는 조금 알고 있는 것에 너무 몰입해서,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지나쳐버리기를 반복한다. 그것이 굳어져서 나중에는 모든 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는데 깊이 아는 것처럼 착각한다. 깊이 있는 성찰은 간단하다. 마음이 본연의 일을 하게 두면 된다. 이러한 직관만이 개체가 가지고 있는 흐트러진 사고와 개입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를 꿰뚫는 통찰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면서 언어에서 떨어진 봄이 생겨난다.

부처님께서는 사변적인 질문과 대답을 아주 경계했다. 왜냐하면 그 사변적인 토론은 아무리 서로가 만족하더라도 그것은 본질을 밝힌 해결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사변적인 문제들이 자신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사변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변적인 견해를 먼저 제거해야 하지만, 누리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변적인 견해라서, 그 견해에서 떠나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이다. 불필요한 것을 말하는 것이 진리를 말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피곤한 일이고, 가장 피하고 싶은 일들이다. 만약 진리를 알고자 한다면 심의식(心意識)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체적인 불안이나 근심은 어떤 지식이나 행위로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망념을 일으키는 주체가 무엇인지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정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9245-2357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종 합 향 : 130.000원 • 선 향 : 80.000원
• 불 향 : 10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 가루향(도향) : 90.000원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풍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2023년 1월 18일 수요일 | 불기 2567년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20호 | 17 | 전면광고

너그럽게 살아라.
남에게 손해를 입히지 말고
이익을 얻으면 대중과 함께 나눠라.

부처님 말씀 읽기 - 《유행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부지 : 20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산 밑 주차가능 - 매가 : 40억
- 위치 : 경기 - 부지 : 450평
- 건평 : 약 100평
- 산 밑 주차가능 - 매가 : 30억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 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천년사찰 터 다량 보유

부전, 등, 절집소임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시내 지하철 역세권(150m)
- 3층 건물에 3층 약50평, 옥상 사용가능
- 10년 이상 운영(타지역 이주 관계)
- 도시가스 난방, 가전제품(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집기 일체)
- 방편있는 스님 유리,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5백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5백만원

010-9231-6825

사 찰 안 내

- 청주시청 앞 9층 건물, 7층 100평
- 보증금 4천만원 월 80만원
  최고의 시설, 몸만 들어오시면 됨
- 대웅전 40평, 종무실 20평, 산신각 4평
- 주방 10평, 스님방 25평, 전체생광석 찜질방
  대형 남녀화장실 비구니 스님께만 드립니다.

010-5883-2255
010-8569-6643

양평 전원주택지 및 선원자리 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 331-24번지 일대 (100평, 200평, 360평 등 평수 다양)
- 특징 : 서울에서 1시간 거리, 진입도로 포장 완료, 토목공사 완료, 전망 및 조망 매우 좋음(평당 70만원)
- 참선(명상)자리 : 약 2500평 (계획관리+보존임야)
- 특징 : 개인 수행 정진하기 좋고 조용함, 필요시 인 · 허가 가능(매수자가 비용 부담) 향후 투자성 A급 평당 15만원, 계획관리 약 1400평 나머지 보존임야

010-2215-3657

사 찰 안 내

경남 합천군 대병면 합천호수로 합천호수 아래 무학대사 자연동굴 80평(옛굿당)이 옆에 있습니다.

- 대지 : 410평, 임야 217평
- 요사채 52평, 법당 16평 가건물
- 가액 : 3억 2천만원

010-2078-959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유계리
- 계곡물 흐르는 청정지역
  대지 : 388평
- 대웅전 요사채 1동
  산신각 용왕당 1동
- 가액 : 3억 5천만원(절충가능)

010-4123-7594

사찰·암자 안내

- 위치 : 부안 개암사 앞산 청자박물관, 바닷가 5분거리(3천평 개발가능)
- 토지 5만평, 한옥 1채
- 가액 3억 5천만원(일시불 3억원) 급 양도, 나머지는 산림청 매각대금으로 잔금 완납
- 자연원시림 보존 잘됨, 계곡, 기암절벽, 야생 차나무, 100년 이상된 홍송 수천그루, 부귀 풍수 대명당
- 돌탑을 쌓을 수 있는 옥돌 수천톤 산재 보존

010-9647-0723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부산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온천장 시장 바로 인근
- 2층 약 50평(방, 친견실)
- 시설비 3천 2백만원(2개월 전 완전수리)
- 보증금 2천만원, 월70만원
- 개인사정으로 급 양도

010-3582-8975
010-5511-7000

영험약수 사찰 터

- 향토 · 구들집
- 촌집 97평
- 가액 5억원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적천리

010-4804-2309

멋진사찰 (급) 안내

- 위 치 : 경상북도 영천시
- 대 지 : 약 175평
- 건 물 : 법당 1동 25평(단청) 산신각 1동 약4~5평
- 요사채 : 1동 약 25평 1동 약 25평, 2층 약 6평
- 가 액 : 2억 5천만원

시세 이하로 계산합니다.(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3007-5611

사찰 양도하실 분

희망 매수가 : 5억 ~ 10억 내외

소승은 불교대학을 졸업하고 십 수년간 도심빌딩에서 포교당을 운영해온 학승입니다. 포교당 건물 재건축으로새 인연처를 찾고 있으니 사찰양도 하실 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단독주택의 임법당도 가능합니다.

010-2194-800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북 익산시 춘포면 쌍정길 99-8 불국정사
- 대지 : 206평, 건물 : 전통사찰형태 2층 콘크리트 건물,
  1층 : 방4, 주방, 욕실(40평)
  2층 : 법당(30평), 산신각(5평)
  정원 : 5층석탑, 스님 건강상 급매
- 가액 : 3억원

사 찰 (급) 안 내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종교용지 1996년 터 잡아 현재까지 운영
- 대지 1천평, 건평 70평 내 법당, 공양간, 종무실, 접견실, 요사채
  삼존불, 금동불상, 동진보살, 아미타불 석물, 상석, 상수도, 심야보일러
- 주지스님 건강 관계로 좋은 인연을 기다립니다.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바랍니다.
- 가액 9억5천만원에 양도함(절충가능)
- 모든 불상 등 기물(3억원)은 무보시로 시주, 몸만 오시면 사찰법회 가능합니다.

010-3545-506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감포읍 (문무대왕릉 5분 거리)
- 공기 좋고, 바다뷰 일품
- 대지 : 407평, 건평 1, 2층 70평
- 주택 : 1층 방 3개, 화장실 2개, 2층 큰방, 욕실, 법당
- 100m 지하수 완비
- 가액 : 6억 8천(꼭 하실분만)

010-3000-5359

생활안내 · 불자정보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디자인이 산뜻해 졌습니다.
글자 크기가 커졌습니다.

POINT 01 광고 가독성과 정보전달을 위하여 크기를 1.5배 키웠습니다.

POINT 02 불자정보
기본 5cm ➡ 6cm로 커졌습니다.

POINT 03 생활안내
기본 4cm ➡ 6cm로 커졌습니다.

문의 | 010-4648-8200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218쪽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292쪽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 - 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 15,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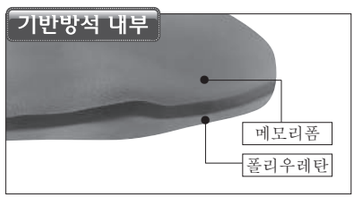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세 계 최 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제품의 특징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2023년 1월 18일 수요일 | 불기 2567년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420호 | 18 | 전면광고

아름다운 말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듣는 이로 하여금 목욕을 한 듯
상쾌하게 한다네.

부처님 말씀 읽기 - 《불소행찬》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사 찰 행 사 전 문

• 특별반 과정 모집 •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육효 강의

4개월 완성
비구 비구니스님(비법전수)
•위치 : 경북 칠곡군 북삼읍 숭산로 185-53
054-972-1080
010-2622-4345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결 혼 정 보

남자, 서울거주, 회사대표, 골프선수
국가인증 자격증 5개 소유,
결혼 준비 잘 되어있음
결혼할 여성 찾습니다.
사찰매매 포교원상담
부전공양주 처사 쓸분, 할분
서울 명동 직통
010-5381-1419



추천-책이름 검색 해보세요 !!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한국불교 환인종 종도 모집

지역과 문중 관계없이 뜻을 함께 하실 인연을 기다립니다.
종정 지훈 스님
010-8536-9853
부산시 금정구 삼차로 18-1(부곡동) 해동정사

세종 명리심리 철학원

사주, 신년운세, 궁합, 택일, 작명
자녀진로, 적성, 진학, 취업, 진로
010-6593-2953
문자, 카톡 상담 환영합니다
톡상담 ID : sejong77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와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강원도와 충북 제천 사이에
경치 좋고 공기 좋은 청정지역에 위치한 사찰(절)에서
염불기도로 업장은 소멸하고 몸과 마음은 힐링하며 후회 없는
회향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부처님처럼 모시겠습니다.
*나이, 학력, 성별 상관없이 출가를 하실분 모십니다.
연락처 010-8945-1424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메주 청국장 판매합니다

스님께서 주문하시면
10% 할인 해드립니다.
010-2089-4143
010-9692-5775
약사사 공덕화 보살

능 가 사

불심이 돈독한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70세 이하, 숙식제공, 출퇴근 가능 (강화군)

010-5301-8613

송파, 보광사

매월 셋째 일요일 오전 10시
조상님 합동 천도재
보광 큰 스님, 법사 집전
• 동참비 : 양가 일십 만원
02-449-5315
010-2344-7304

큰 스님 잘 모실 분

큰스님 회향기도처전통한옥
2층 120평 시주하실 분!
매매가 20억
봉선사 위 국립공원 수목원 옆
소홀읍 직동리 73-5
010-5351-7565 주인 직
보광스님 010-4069-5315

이젠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
hyunbulnews.com에서도
불자정보 · 생활안내를
생활안내
찾아보실 수 있어요
NAVER 불자정보·생활안내 검색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배철완	T 053-985-9191	H 010-6780-9190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문화사업단	구광국	T 02-2004-8213	H 010-3048-400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
단 장 강윤구
포교사 일동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30 불교회관
062-375-0107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진관사
회 주 계 호
주 지 법 해
사부대중일동

부설기관
- (새)진관사수륙재보존회
- 사.복) 진관무위원
- 코끼리 유치원
- 불광노인복지관
- 진관사 불교대학. 대학원
- 불광데이케어센터
- 진관사 템플스테이
- 진관지역아동센터
- 진관사 산사음식연구소
- 구파발어린이집
- 한문화체험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길 73
전화 02)359-8410
www.jinkwansa.org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임병학 교수의
꽃차이야기
① 겨우살이차

강장과 항암효과 있어 항암보조 치료제로도

겨우살이는 한 겨울 높은 산을 오르다 보면 만나게 된다. 나뭇잎이 떨어져 앙상한 키 큰 나뭇가지 위에 황록색 또는 녹색으로 마치 새 둥지와 같은 모양으로 자라고 있다. 겨우살이 열매를 먹은 새들의 배설물이 나뭇가지에 묻고, 그 속의 씨가 발아하여 나무에 붙어 기생한다. 겨우살이 열매 속에 있는 씨앗을 끈적거리는 점액으로 싸여 있기 때문에 나무에 잘 들러붙는다. 겨우살이의 이용부위는 줄기, 잎, 열매이며, 차 또는 약용으로 이용한다. 뽕나무의 겨우살이가 약성이 더 좋다고 알려져 있다.

〈약성〉

겨우살이의 성질은 평하고, 맛은 달고 쓰다. 효능은 풍습(風濕)을 제거하고,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한다. 또 간과 신장을 보하고 지방간을 다스린다. 항산화 활성으로 고혈압과 동맥경화, 암, 심장질환, 노화방지에 좋다. 태동 불안, 종기, 어혈, 비만, 타박상 등에도 효과가 있다.

겨우살이 성분들 중 렉틴은 암세포에 반응하여 항암작용을 하고, 면역 활성을 증가시킨다. 비스코톡신은 암세포를 분해하고 면역체계를 촉진하며, 백혈구의 활동을 증진시킨다.

겨우살이는 암세포 성장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항암 보조치료제로도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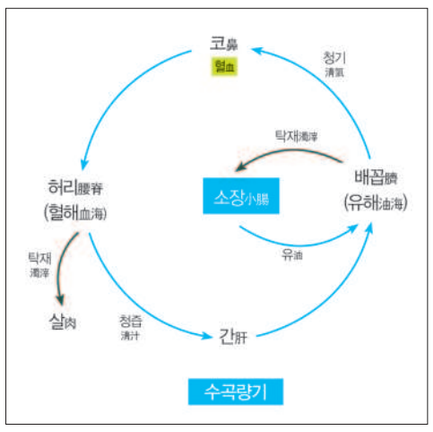
〈마음 · 기(氣)작용〉

겨우살이는 간(肝)에 좋은 태음인의 꽃차이다. 태음인은 간의 기운이 크고 폐의 기운이 작은 간대폐소(肝大肺小)의 장국을 가지고 있다.

맛이 달고 쓴 겨우살이는 간의 기운을 조화롭게 하여 급한 성질의 태음인을 너그럽고 온화하게 한다.

사상의학의 위대함은 우리 몸의 생기(生氣)를 밝힌 것에 있다. 겨우살이는 중하초(中下焦)의 수곡의 량기(凉氣) 흐름을 조화롭게 한다. 수곡의 량기는 소장(小腸)에서 대사산물의 에너지가 생성되어 배꼽으로 들어가고, 그 맑은 기운은 코로 나아가 혈(血)이 되어 혈해가 있는 허리로 들어가며, 허리에 모여 있는 맑은 즙을 간이 흡수하여 원기를 보익한다. (그림 참조)

간당(肝黨)에 흐르는 수곡의 량기(凉氣)의 흐름을 통해 코와 허리 그리고 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간이 좋지 않으면, 허리가 아프고 코가 막히거나 염증이 생기는 현상이 있다. 즉, 코가 좋지 않거나 허리의 통증을 통해 간(肝)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다. 사상의학의 생기(生氣)는 인체의 기본적인 기 흐름이다. 참고로 기존의 한의학에서는 '신허요통(腎虛腰痛)' 이라 하여, 신장의 기운이 허(虛)해서 요통(腰痛)이 있다고 한다.



간당(肝黨)의 수곡량기의 기흐름도


겨우살이

〈제다 및 음용〉

채취 시기는 겨울부터 이른 봄 사이에 하는데 이때가 약성이 가장 좋기 때문이다. 채취한 겨우살이를 흐르는 물에 씻어 잎과 열매와 가지를 분리한 다음 감초 삶은 물로 5분 정도 찐 후 고온에서 여러 번 덖고 식히기를 반복해서 만든다.

음용방법은 겨우살이차 2g에 100℃로 끓인 물 200ml를 넣고 2분 동안 우려 마시면 된다. 임산부는 음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너무 진하거나 오래도록 장기간 마시는 것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사상인별 음용 소감〉

사상인별 음용 소감은 자신의 사상인을 찾는데 참고가 될 것이다. 태양인은 거의 없기 때문에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의 소감을 소개한다.

태음인이 마셨을 때, 느끼는 맛은 처음에는 구수하면서 쓴맛이 감돌았지만, 뒷맛은 박하향 같은 맛이 느껴졌다. 열이 있는 태음인은 지속적으로 마시기에는 거부감이 있다.

소양인이 마셨을 때, 처음에는 초목향이 나면서 구수하고 단맛이 난다. 마시고 난 후 쓴맛을 느꼈으나 나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또 차한 모금이 혀끝에 닿는 순간 쌉싸름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약간 쓴맛이 느껴지기도 하고, 떫다는 느낌도 있지만 끝 맛에 느껴지는 구수함이 좋다.

소음인이 마셨을 때, 나무향이 나면서 현미차를 섞은 듯 구수한 맛이 있어 식수대용으로 마셔도 좋다. 뒷맛은 입안에 감칠맛이 맴돌아 침샘을 자극했고, 쓴맛이 남아있었다. 또 처음 머금은 차는 혀에서 쌔한 느낌의 타격감이 있다. 목 넘김은 혀가 느끼는 것 비해 평범하고 무난하다. 특히 차를 마치고 약 10여분 후, 코끝이 빨갛게 변한다.(약 2시간가량 지속)

〈음용 사례〉

겨우살이를 20년 넘게 음용하면서 암을 이겨낸 사례가 있다. 20여 년 전에 뇌종양 판정을 받았었는데 종양 크기가 밤톨 정도로 크고 혈관 가까이 붙어있어서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런 절망 속에서 오직 부처님께 기도하며, 암에 좋다는 겨우살이를 마셨다고 한다.

처음에는 겨우살이를 차로만 마셨는데 특별한 부작용이 없어서, 밥을 지을 때나 또는 국물김치를 담을 때도 겨우살이를 끓여서 그 물을 이용했다. 항상 지끈지끈 아팠던 머리가 개운해지는 것을 느꼈고, 검진을 받아보니 종양 크기가 많이 줄어 있었다고 한다.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교수〉

연예인불자 신행일기 ① 배우 김혜정

"포교 활성화 위해 최선 다할게요"

계묘년 새해, 한 해의 소망과 안녕을 비는 신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이어지던 성북구의 고즈넉한 산사 적조사에서 '복길이 엄마' 로 유명세를 탄 국민배우 김혜정 씨를 만났다. 각종 예능프로 및 유튜브 활동으로 팬들과 소통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배우 김혜정 씨는 일상에서도 명상과 묵언수행을 통한 자기성찰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대한불교조계종 연예인전법단 탤런트분과 수석부위원장으로 왕성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늘 불교에 '진심' 인 불자 연예인이다.

김혜정 씨의 불교와의 인연은 걸음마를 떼기도 전 할머니 등에 업혀 절에 다니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려서 할머니 손에서 많이 자란 그녀를 할머니는 무척이나 애지중지하시며 예뻐해 주셨고 김혜정 씨도 할머니를 유독 잘 따랐다고 한다.

"당시에 할머니가 김제 금산사의 화주 보살로 계셨어요. 탑돌이를 하실 때에도 저를 품에 안고 머리에 경전을 이고 탑을 도시던 할머니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러나 김혜정 씨가 연기자가 되고 얼마 안 되어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때의 상실감과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이겨내기 위해 절을 자주 찾으며 마음을 추스렸다고 한다.

이후로도 마음이 힘들 때마다 절을 찾아 위로를 받는다는 김혜정 씨는 1992년 대하사극

불연, 할머니 금산사 화주 보살
힘들 때마다 절 찾아 위로 받아

'삼국기' 에서 선덕여왕 역을 맡으며 불심이 더욱 깊어졌다고 한다. 선덕여왕 배역을 연기하기 위해, 삼국유사 및 삼국사기와 같은 역사서에도 관심을 갖고 역사 공부를 많이 하였는데 선덕여왕이 고구려, 백제, 신라 3국으로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통합하는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루는 기틀을 마련하는 과정에 깊은 불심이 있었음을 깨닫고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사진제공=김혜정 씨

"극 중에서 국사였던 자장율사와 국정을 논하는 장면이 많았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 불교는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을 넘어 국가의 뿌리를 형성하는 근간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며 불교에 대한 깊은 자긍심을 드러냈다.

이를 계기로 불교에 대한 공부와 신행활동을 더욱 활발히 하게 되었다는 김혜정 씨는 〈초발심자경문〉을 항상 외며 늘 감사한 마음으로 자연 속에서 비우고 내려놓는 삶을 살고자 노력한다고 한다.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전원일기〉 드라마가 종영된 지 2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꾸준히 재방송이 되고 있고 팬분들이 아직도 많이 기억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는 것도 모두 부처님의 가피라고 생각한다"며 미소짓는 김혜정 씨에게서 신실한 불자의 모습이 그려졌다.

김혜정 씨는 현재 동국대학교 심리학코칭 박사과정에 재학중인데 이 역시도 부처님 인연법으로 가능한 일이 아닌가 하며 학위를 취득하게 되면 불자로서 특히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봉사활동에 힘을 보태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새해에는 불교가 조금 더 젊어지고 다양한 수행프로그램에 많은 불자들이 동참하여 불교의 저변이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연예인전법단의 일원으로서 탤런트 포교 활성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현재 '회장님네 사람들' 이라는 예능 프로에서 20년 전 안방극장을 울고 웃게 만들었던 '전원일기' 의 출연진들과 함께 예전의 추억과 에피소드를 소환하며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김혜정씨는 '속풀이쇼 동치미' 등과 같은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배우 김혜정 tv' 유튜브 채널로도 활발히 활동하며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새해에는 불자 배우 김혜정 씨의 더 멋진 활약을 기대해 본다.

전재영(연예인전법단 사무국장)

일일시호일

세균성 급성폐렴에 내몰린
미얀마 가장의 꿈

가난 대물림 끊고자 한국 찾은 미얀마 이주노동자 타원씨
폐렴에 장기까지 세균 감염돼 신장 투석…치료비도 막막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김병전 대표의 지금, 명상의 시간 ⑬ 명상 디깅



▶한줄요약
호흡에 집중하고 마음을 챙기면 집중과 몰입이 쉬워진다.

새해, '명상 디깅'으로 행복 모멘텀 만들자

자신의 취향에 맞는 한 분야를 깊이 파고드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트렌드코리아 2023〉에서 '디깅모멘텀(Digging Momentum)'이라고 새롭게 정의했다.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분석센터에서는 2008년부터 시대의 트렌드를 키워드로 분석 및 예측하고 매년 〈트렌드 코리아〉 책자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2023년을 전망한 10대 키워드 중 하나로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에 시간과 돈과 열정을 투자하면서 누구보다도 삶에 열심이고 몰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를 '디깅모멘텀'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제시한 것이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의 몰입에는 조금 특별한 데가 있다고 〈트렌드코리아 2023〉은 설명하고 있다. 최근 유행하는 '과몰입'이라는 단어가 말해주듯이 과도한 몰입을 통해 자기를 찾고, 발견하고, 표현하고, 과시하는 것. 바로 이러한 현상을 '디깅모멘텀'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다. 디깅(digging)이라는 말은 '채굴', 또는 '발굴'이라는 의미로 특정한 대상을 깊이 파고들어가 종국에는 자기 존재를 발견하는 경지에 이른다는 점을 중의적으로 표현했다.



인간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몰두하고 몰입하는 존재이다. 일이든 사랑이든 취미든, 우리는 무엇인가에 몰두할 때 자기 삶의 의미를 구할 수 있다. '몰입(flow)'의 개념을 정립한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에 따르면 몰입이란 어떤 활동이나 상황에 완전이 빠져들어서 집중하고 있는 상태로, 사람들은 몰입을 경험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이 몰입해 있는 일을 중요하다고 여기고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굳은 믿음이 중요하다고 했다. 하루 중 잠깐이라도 자신이 진짜로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여 행복을 충전한다면 일상의 스트레스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심리적 유연성이 생기게 된다.

필자는 2023년 새해 행복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명상 디깅이 트렌드화 되기를 소망한다. 명상 몰입을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회복탄력성 강화를 통해 풍요롭고 행복한 삶에 가까이 다가서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신체운동 뿐만 아니라 '마음운동' 즉 멘탈관리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태어나서 지금까지 마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나 기술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들은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 정도 딴생각을 하며 산다고 한다. 멀티태스킹과 휴대폰 알림, 주의를 잡아끄는 영상들, 이런 환경 속에서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하고 몰입하기란 쉽지 않다. 방해요인들 속에서도 내 삶에서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힘은, 마치 코어근육과 같이 우리 삶을 지탱해 주는 능력이 아닐까? 주의력과 집중력을 키우는 좋은 방법이 바로 마음챙김이다. 마음챙김은 의도를 가지고 현재 경험에 주의를 기울여서 판단없이 알아차리는 것이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근육은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우울이나 불안같은 감정을 다스리고, 번아웃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마음챙김이 혹시 종교적이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사람도 있지만, 지난 40여년간 많은 과학연구들이 마음챙김의 효과를 밝히면서, 명상은 이미 과학이 되었다. 명상이 뇌의 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과학연구들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은 전통명상에서 종교색을 걷어내고, 주의력을 계발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마음챙김 명상의 본질을 담았다. 명상이 나에게 힘을 주는 일상의 리추얼이 되고, 더 평온하고, 더 집중하고,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마음 습관이 자리잡기를 위해서 2023년 한 해 명상 디깅을 해보자. 명상 초보라면 과학적으로 검증된 마음챙김 명상으로 출발할 것을 추천한다. 매일 규칙적으로 잠깐 시간을 내어 일상의 습관으로 만들어보라. 혼자 하기 어렵거나 방법을 모른다면 명상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필자가 개발한 명상앱 '하루명상'에서도 과학기반의 마음챙김 명상 입문을 포함한 다양한 명상 콘텐츠를 모두 평생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하루명상의 마음챙김 입문은 7분 내외 분량의 오디오를 통해 7일 동안 스스로 실습할 수 있도록 음원을 제공하고 있다.

초보자가 호흡명상에서 흔히 하는 경험은 인위적으로 집중하려고 애쓰면서 호흡이 불편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명상이 힘들고 부담스럽다고 느낄 수도 있다. 입문과정의 첫날은 잘 해야한다거나 집중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호흡에 가볍고 따스하고 자연스러운 관심을 갖는 단계이다. 첫째날에는 호흡에 집중하는 대신 호흡을 즐긴다는 관점으로 명상에 참여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미소(smile)의 '따스하고 훈훈한' 느낌을 바탕으로 온화한 주의력을 초기설정한다. 컴퓨터에 한 번 설정을 해 놓으면 쭈욱 유지되는 것처럼, 명상을 할 때마다 이 초기 설정을 떠올리고 적용하는 것이 좋다. 한편 마음챙김을 하는 데에는 호기심과 열린 마음, 친절함이 중요하다. 이런 태도를 설정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앞에서 설명한 미소이다. 한 번 따라해보자. 살며시 눈을 감고 입꼬리를 부드럽게 올려서 미소를 지어본다. 마음의 눈으로 눈꼬리를 내려서 입꼬리와 연결된다고 상상해 본다. 어떤가? 얼굴 가득 둥근 햇님같은 환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상상해 보라. 미소의 따스하고 훈훈한 느낌이 몸과 마음에 스며드는 것을 느껴보라. 미소를 통해 만들어진 따스하고 훈훈한 주의력을 가져와서 잠시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본다. 그런 다음, 몸이 바닥이나 의자와 닿은 감각을 느껴본다. 엉덩이나 발, 다리에서 몸의 무게감, 눌리는 느낌, 폭신함이나 단단함을 느껴본다. 이렇게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나 자신을 '지금 여기'로 부드럽게 초대한다. 그리고 몸이 숨 쉬고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져본다. 몇 번 정도 숨을 크게,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어 보고, 입으로 숨을 내쉴 때 한숨을 쉬듯이 '하…' 하고 소리를 내어도 좋다. 턱이 이완되면서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게 느껴질 것이다. 한 번 더 숨을 깊게 들이쉬고, 길게 내쉰 다음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코로 마시고 코로 내쉬는 호흡으로 돌아오면된다. 호흡을 조절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둔다. 코로 숨이 들어오고, 코로 숨이 나간다. 집중하려고 억지로 애쓰기보다는 스마일 설정을 떠올리면서 호흡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즐겨보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주의가 집중되는 것과 비슷하다. 몸으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평화로운 경험에 따스하고 부드러운 주의를 기울여 본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것에 정성을 다해 주의를 기울인다. 따스하고 훈훈한 내면의 미소를 띠고, 숨이 몸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본다. 들숨이 상쾌하게 몸을 채우는 느낌, 그리고 날숨에 긴장이 풀어지는 느낌을 음미해 본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낀다. 잠시 후 주의를 몸 전체로 확장하면서 앉아있는 몸, 숨 쉬는 몸을 느껴본다. 주의를 이 공간 전체로 확장하면서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 피부에 닿는 공기의 온도, 감촉을 느껴본다. 의도적으로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준비가 되면 눈을 뜬다.

한 분야 집중행태 증가
'디깅 모멘텀'으로 칭해
집중과 몰입에 방해요소
마음챙김으로 제거하자

첫날 명상 수련의 핵심 내용이다. 새로운 악기나 운동을 배울 때처럼 명상도 처음에는 어색한 게 당연할 수 있다. 음원을 들으면서 마음챙김 호흡명상이 익숙해지도록 꾸준히 해보라.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느끼거나 마음이 산만할 때, 호흡은 마음의 중심을 잡는 닻이 되어줄것이다.

첫째날에 이어 2일차에는 몸에서 호흡 느끼기면서 동기부여를 위해 수행의 의도를 설정하는 단계이다. 명상이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떠올려보는 것 자체로 명상 전 좋은 준비가 된다. 온화한 주의력과 호기심으로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다보면 자연스러운 호흡을 몸에서 느낄 수 있고, 숨을 쉬는 일이 편안하고 즐겁다고 느끼게 된다. 3일차에는 방황하는 마음에 명칭 붙이는 실습을 한다. 호흡에 점차 익숙해지면서, 호흡을 보다 자세히 관찰(길고 짧음, 깊고 얕음, 거칠거나 매끄러운)해 볼 수 있다. 동시에 주의가 호흡에서 벗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초보자는 이것을 문제라고 여기고 명상이 실패했다고 판단하기 쉽다. 마음방황을 방해요인으로 판단하기보다 주의력의 근육을 키우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편안하게 받아들인다. 스마일 설정을 바탕으로, 부드럽고 친절하게 호흡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반복하는 단계이다. 4일차에는 호흡을 허용하고 수용하는 법을 배운다. 호흡을 관찰하는 동안 '이상적인 호흡'에 집착하거나 자신도 모르게 호흡을 조절하려는 의도나 욕구가 일어날 수 있다. 그 의도나 욕구 혹은 조절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대로의 호흡을 관찰한다. 호흡을 허용하고 수용하는 관점으로 수련을 경험함으로써 받아들임의 태도를 지향한다. 5일차에는 비판단적 태도로 호흡을 관찰하는 훈련을 한다. 명상을 하는 동안 다양한 종류의 판단이 얼마나 자주 올라오는지 알아차린다. 그 판단에 대해 다시 판단하거나 변화시키려고 할 필요는 없다. 단지 그것을 '판단'이라고 알아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우리는 일상에서 지극히 제한된 정보, 과거 경험이 어우러져 형성된 편견이나 고정관념의 필터를 거쳐 상황을 바라본다. 명상에서 체화하는 비판단의 태도는 자동적이고 충분히 숙고하지 않은 의견이나 관념을 넘어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는 분별력의 토대가 된다. 6일차에는 결과를 바라지 않고 수련하는 연습을 한다. 그 동안의 호흡명상에서 편안하거나 유쾌한 경험을 했다면, 그 경험을 다시 하게 되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생겨날 수 있다. 이완이나 고요함 같은 결과를 얻고자 하는 애씀이 있는지 살펴보고,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자연스레 흘려보낸다. 마지막 7일차에는 초심으로 호흡을 관찰한다. 호흡 관찰을 지속하면서 지루한 마음이 들 때, 매 순간의 호흡을 호기심을 가지고 새롭게 바라보고, 순간순간 처음 시작하는 마음 가짐으로 수련을 지속하려는 동기를 분명히 한다.

새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마음챙김 명상 디깅을 소개했다. 명상은 반복할 때마다 항상 비슷해 보여도 매번 다르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매 순간 숨을 쉬고 있지만, 한 번도 같은 호흡은 없었다. 호흡은 존재 자체이다.

〈무진어소시에이츠 대표〉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본방을 놓친 그대에게..

더욱 기억하기 쉬운 방송시간!
BTN 불교TV 대표 프로그램
(2023년 1월 2일 부터)

본방송 당일 재방송!! 그래도 못 보셨다면 주말 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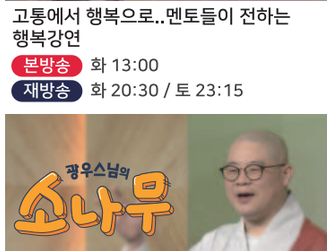
법상스님만의 논리적이면서도 편안한 생활법문
본방송 월 07:30
재방송 월 19:30 / 토 22:30



철학자 강신주의 중국 선종 무문관의 화두 이야기
본방송 월 12:00
재방송 월 20:30 / 토 1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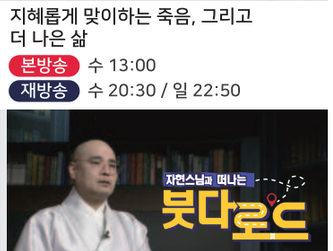
문광스님이 쉽게 해설하는 선문염송
본방송 화 07:30
재방송 화 19:30 / 토 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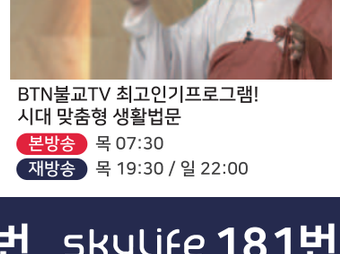
고통에서 행복으로..멘토들이 전하는 행복강연
본방송 화 13:00
재방송 화 20:30 / 토 2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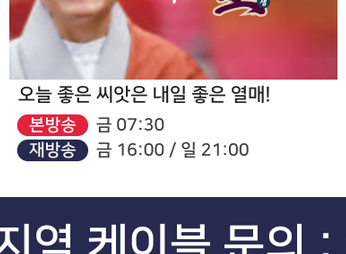
자현스님과 광우스님의 '맛있는 수다', 재미있는 불교공부
본방송 수 07:30
재방송 수 19:30 / 일 1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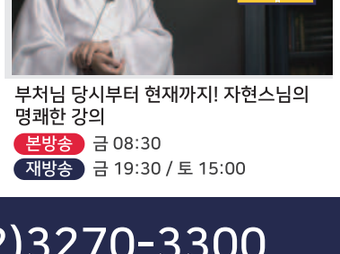
지혜롭게 맞이하는 죽음, 그리고 더 나은 삶
본방송 수 13:00
재방송 수 20:30 / 일 22:50



BTN불교TV 최고인기프로그램! 시대 맞춤형 생활법문
본방송 목 07:30
재방송 목 19:30 / 일 22:00



오늘 좋은 씨앗은 내일 좋은 열매!
본방송 금 07:30
재방송 금 16:00 / 일 21:00



부처님 당시부터 현재까지! 자현스님의 명쾌한 강의
본방송 금 08:30
재방송 금 19:30 / 토 15:00

BTN 채널안내 | olleh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420 호 현대불교
2023년 1월 18일(음 12월 27일) 수요일 / 불기 2567년

참나의 생명수의 맛을 보게 하는 내 스승이 바로 내 마음에 있다

'말은 하면 뭘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이 있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천차만별로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말은 하면 뭘 하나 하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듭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하늘을 쳐다보고 어떤 때는 눈물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는 어떻게 걸어가는지 그것조차도 생각하지 못 하는 채 그냥 무심히 가는 걸 보면 아예 말하기도 싫을 때가 많습니다.

아마도 여러분과 같이 나도 아픔을 겪나 봅니다. 보면 보는 대로 딱하고 그렇게 안됐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래서 좋은 말을 하기 이전에 생활 속에 여러분과 같이 뛰어들어 같이 아픔을 나누고 같이 행을 해서 조금이나마 아픔이 해소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오죽이나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해 봅니다.

때로는 크고 작은 일을 다양하게 이끌어 나가면서 삶이 좀 더 편리해지고, 화목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온 집안에 따뜻하게 돌아간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이 말 저 말 하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답답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답답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죠.

집안이 화목지 못해서, 또는 한 가정 속에서 누가 괴롭다면 서로가 한마음이 돼서 이끌고 갈 수 있어야 나도 쉽고 서로가 다 쉬울 것을, 그렇지 못한 채 그저 자기 하나만 알고 자기 아픔만 알고 마음으로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 서로 뭉치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집안에서 조금만 누구가, 부부가 서로 한마음이 됐더라면 내가 더욱 쉬울 텐데, 나도 쉽고 그 집도 쉽고 서로가 쉬울 텐데 이렇게 답답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높은 부처님의 뜻과 말씀이 있기 이전에 우리들의 아픔 속에서, 그 조그마한 소용돌이 속에서 알아야만 하죠. 그걸 모른다면 부처님 말씀의 그 큰 뜻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처음 오던 해입니다. 어머니가 혼자 딸을 하나 데리고 사는 집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상당히 완고하셨습니다. 아버지 없는 대신으로 엄마 몫 아빠 몫을 다 하면서 딸을 귀중하게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따님은 참 예쁘장하고 잘생겼는데 대학을 다니던 도중에 어느 사람을 사랑했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알고는 "왜 아무나 그렇게 엄마도 모르게 만나러 다니느냐? 사랑할 것 같으면 왜 탁 털어놓고 그 집 부모와 서로 알게끔 하지 않느냐." 하니까 엄마가 알면 거부할 거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니깐 따님을 늦게 다니지 못하게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나가고는 싶은데 나갈 수는 없고 그러니깐 음료수에다가 잠드는 약을 좀 타서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조금, 그저 주무실 동안에 내가 갔다 오리라 생각했는데 그만 너무 약을 많이 탔던 모양입니다. 나갔다 들어오니까 아, 어머니는 돌아가셨잖습니까. 그 따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보니깐 이제 그 사랑하는 남자와 자기 마음대로 하게끔 됐습니다. 집으로 끌어들이고 어린애를 하나 낳았습니다, 결혼도 하기 이전에. 그 쪽 남자의 부모네들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여자 쪽 부모도 없으니 거기서 그냥 살도록 했습니다, 결혼을 시켜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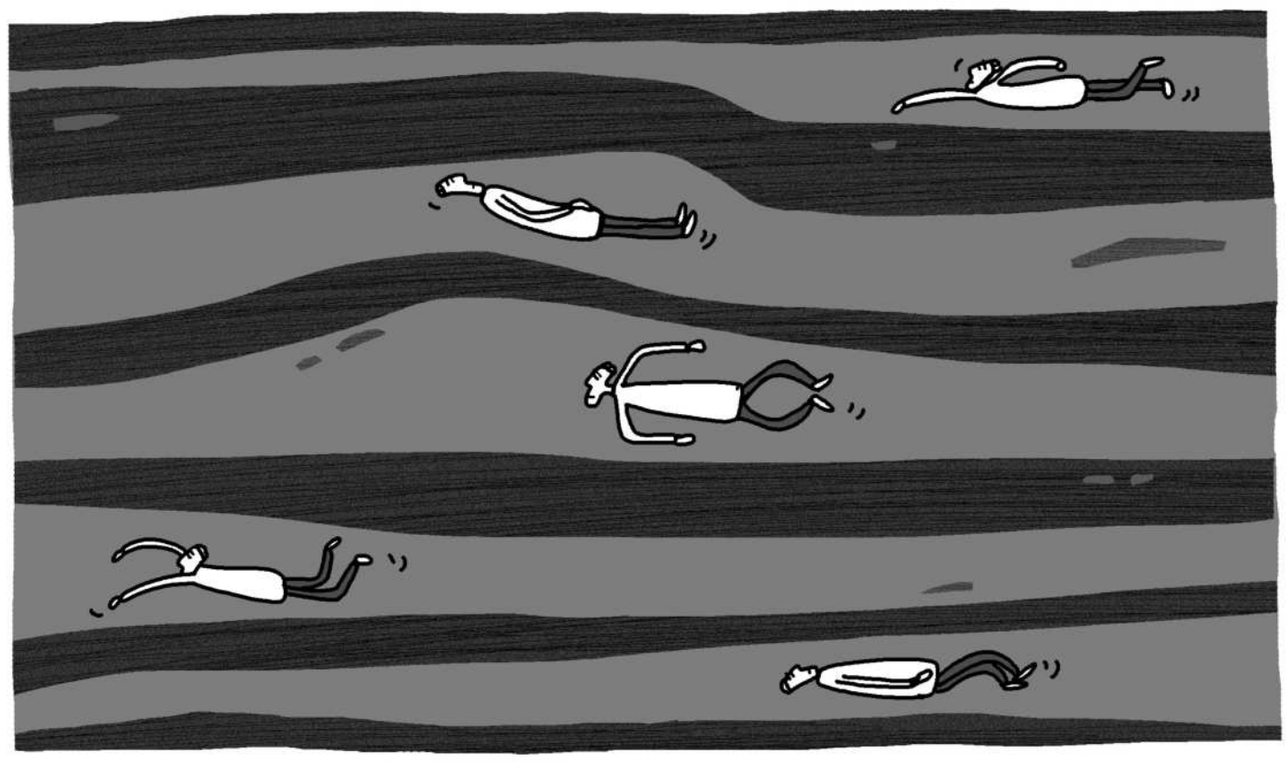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랬는데 어느 날은 어머니가 꿈에 턱 나타나시더니 "네 사랑을 위해서, 네 남편을 위해서 나를 죽이고 살맛이 나느냐?" 하시더랍니다. "너 하나 잘못된 생각으로 그것이 얼마만큼 화를 미치는지 너는 짐작도 못 할 거다." 라고 하면서 "나는 저 사람이 싫다!" 그러더랍니다. 그러고는 깜짝 놀라 깼답니다. 그런데 사흘 되던 날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배고 있던 어린애를 낳았는데 어느 날 그 집의 시어머니가 또 꿈에 보이더랍니다. 시어머니가 하는 소리가 "네 남편을 잡아먹고 잘 살 것 같으냐?" 하더랍니다, 또. 그 시어머니는 살아 있는데도 꿈에 보이더니 어린애를 빼앗아서, 내 자식이니깐 내가 데리고 간다고 그러면서 빼앗아 안고선 물로 들어가더랍니다.

그 꿈을 깨고서는 앞서에도 어머님이 그랬는데, 시어머니로 보이면서 이렇게 되니까 너무 놀라서 어린애를 하루 종일 부둥켜안고 선 놓지를 않았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경기를 하면서 숨을 몰아쉬더랍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달려가니까 병원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냥 진찰하는 도중에 죽고 말았더랍니다. 그 후엔 혼자 살다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후에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그 한 생각이, 그 따님의 한 생각이 그런 불씨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끊어지느냐 하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내 연결되고 얽히고설키게 되죠.

우리에게 현재 생기는 문제들이 우리들이 지어 놓은 것이지 지금 새삼스럽게 다가온 게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끊는 게 아니라 녹이면서, 앞으로 개척하고 계발해서 내 마음의 차원을 질적으로 높여 가야 합니다. 그렇게 질적으로 높아졌을 때 미래에 다가올 것을 다 녹이고 윤회 속, 유전 속, 업보 속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벗어나야 어디고 아니 닿는 데가 없는 손 없는 손, 눈 없는 눈이 돼서 방방곡곡 어디에고, 누구한테나 이익을 줄 수 있고 불쌍한 사람들을 다 거두어 줄 수 있는 능력의 보살행을 할 수 있는 거죠. 남을 건질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바로 보살행이거든요.

우리가 꼭 머리를 깎고 안 깎고 간에 생활 속에서 이익이 없다면 왜 종교를 가져야만 합니까? 종교라는 것은 내 마음으로부터 생기는 것이고 내 마음으로부터 이루는 것이고 내 마음으로부터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넓으면 넓은 대로 우리가 한데 합쳐진 공한 세상을 공하게 보고, 공하게 돌아가는 이 살림살이를 공한 데다가 다시 맡겨 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산다면 급급하지도 않을 겁니다. 가난해서 밥을 굶는다 하더라도 급급한 생각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옛사람 말처럼 '나물 먹고 물 마시니 이만하면은 만족할 것을 그렇게 그랬다' 고 말씀하실는지도 모르죠. 없으면 없는 대로 걱정도 되지 않고 말입니다.

없는 것은 본인들이 더 잘 압니다. 각자 없는 것도 더 잘 알고 아픈 것도 더 잘 알고 매사의 문제들을 본인 자신들이 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픈 걸 알기 때문에 어딘가가 모르게 공심으로 돌아가는 능력으로서 우리는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여축해서 먹으려고 생각을 할 필요도 없다 이겁니다. 여축해서 먹으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오히려 구덩이에 빠지는 수가 허다합니다.

이 부처님 법이라는 건 그렇게 묘한 법이고 광대무변한 법이며, 불가사의한 법입니다. 그리고 그 법이 우리들 생활에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생활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생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그 마음의 능력은 누가 그것을 좇아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보배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바깥으로 돌고 '내가 이렇게 해야 살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그만 거기에 눈이 어둡게 되고 귀가 밝지 못하게 되고 또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뭘 하나.' 하는 생각에서 회의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이 법을 소상히 알지 못한 탓입니다.

☞ 22면으로 계속



요만한 거 하나라도 내가 한 거만치 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 21면에서 계속

우리가 죽는다고 맘대로 죽습니까, 살았다고 맘대로 삽니까? 그렇지만 그런 틈바구니에서도 한생각은 저 강물 흐르듯이 여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은 없어지라 해서 없어지고 생기라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죠? 물은 우주를 덮고도 남고 싸고 돌아도 남습니다. 그렇듯이 한생각의 법도 여여합니다.

또 물과 같이 인간의 마음이 지혜롭다면 내 몸의 피도 물 흐르듯 흐르고, 만약 지혜가 모자란다면 피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피가 잘 소통되질 않는다, 어디가 잘못됐다, 눈이 어둡다 하는 게 다 어디서 오겠습니까? 내 한 생각이 매사에 적합지 않게 자꾸 일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속상해하니까 은근히 그것이 누적이 되는 것입니다. 누적되어서 찌꺼기가 되고, 이렇게 마음이 지혜롭지 못하니까 위막이나 장막이나 간막에 음식을 먹어도 찌꺼기가 항상 누적이 되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누적이 되니까 역시 물질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병이 오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군데가 아프다 그래서 꼭 거기서 고장이 난 게 아닙니다. 딴 데서 고장이 나서 거기까지 오는 것이지.

이런 문제 등등이 하나서부터 열까지 우리 생활 속에 다양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마음이 천차만별로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는 이 만법의 진리를 우리는 생활 속에서 알아야 합니다. 한시도 쉬지 않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듯이 이렇게 돌아가는 진리를 말입니다. 그게 바로 참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때 한 번만 속 끓여 보십시오. 숨이 차고 벌써 눈이 게슴츠레해지고 귀가 멍멍하고 보이는 게 없고 누구가 잘하든 못하든 벌써 보면 신경질이 납니다. 이런 지경에 이를 때는 자기 몸을 자기가 긁어서 피를 내는 거나 같죠. 그러고 아파서 애를 쓰는 거죠.

어저께 텔레비전을 보니까 '추적 60분'에 맨손으로 수술하는 얘기가 나오더군요. 여러분도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너무 요지경 속 같아서…. 예전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는 요지경이다 이거예요. 부처님 법은 손이 가지 않고도 손이 갈 수 있는 마음의 법인 것이지 요술꾸러기처럼 하는 그것은 마술과 같은, 인간의 자비성이 아니라 그것은 사기성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요지경입니까? 인간의 마음들이 진실치 못하고 남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낫는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중한 것은 마음입니다.

또 그렇게 남을 속여서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속고 또 속고…, 자기한테도 속고 남한테도 속고. 그것은 허영심과 욕심 때문이 아닐까 봅니다. 또는 기독교인들이 안수기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뼈가 부러지도록 안수기도를 해서 죽이고 또는 안수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도 그냥 마음을 이리저리 돌려서 마취시킨 것처럼 해 놓고선 하는 문제들….

또 한 가지는 온통 날뛰고 손을 들고 입으로 떠들고 그러는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마구니 짓을 하기 때문에 죽어서 요다음에 다시 생산이 된다 하더라도 마구니로밖에는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인간이 있음으로써 선신도 있고 마구니도 있지, 인간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느니라. 너희가 마음, 행, 말 이 세 가지를 다 하기에 달린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별나게 마음을 쓰고 별나게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에이그, 세상은 요지경 속이야. 저 사람네들 마음들이 왜 저럴까? 저렇게 짐승같이 사는 사람은 요다음에 짐승의 모습밖엔 또 쓰고 나올 게 뭐 있겠나.' 이러는 겁니다.

물론 부처님이 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뜻을 행하시고 행하는 걸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해 나왔으니 선종(善種)일 테지만 그 도리를 지키지 못하고 인간 도리도 지키지 못하고 생활 속에서 진실함이 없는 사람네들이 있기 때문에 선신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 마구니도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 제자라고 한다면 바로 부처님은 자기 마음 가운데 깊숙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가 너무도 잘 압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 법입니다.

이렇게 나도 약을 팔고 있습니다마는 이 약파는 소리가 한데로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도 모든 것을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그 점을 아시고, 나한테 닿지 않는 말이라고 해서 비웃고 나한테 닿는 말이라고 해서 간직하고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스무스하게 그거는 그것대로 받아서 한번 굴려 놓고 좋은 말도 한번 받아 굴려 새겨 놓고 항상 그릇이 비어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의 그 깊은 잠재의식 속에, 참나가 공(空) 안에 들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에게 맡겨 놓으라고 하는 그것도 내가 공했고 이 세상이 다 공했으니 포함해서 공한 주인공에 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게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부처도 이루고 세상이 공한 줄 알았고 나도 공한 줄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공(主人空)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모든 일체 생활을, 들이고 내는 것을 다 몰락 놓고 '다 당신이 하는 거, 들이고 내는 걸 바로 당신이 하는 거니까 당신이 다 알아서 길잡이가 돼 주실 거다.' 하고, 또 길잡이가 될 거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도 안 되는 거는 '나를 테스트해 보는구나.' 하고선 놓고, 또 되는 거는 감사하게 믿고 놓고, 모든 것을 맡겨 놓을 때에 비로소 자기 자신의 은사 아닌 은사, 참 은사를 만날 것입니다, 진짜 은사! 자기를 수시로 이끌고 다닐 수 있는 참자기를 말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가졌을 때 그것을 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도 얘기했죠? 땅에서 싹이 나오는 거와 마찬가지고 어른들이 어린애 낳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입니다. 어린애를 출산했을 때 갓 나와 가지고 어른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한 소식 얻었다 할지라도 어린애 갓 낳은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내가 한 소식 했다는 말 할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내가 갓 나와서 사리를 알고 판단을 할 정도로 커졌을 때는 이 세상 돌아다니면서 크고 작은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체험하면서 놓고 다시 또 체험하면서 놓고 참자기가 그렇게 거침없이 여여하게 돌고 행한다는 걸 알았을 때 어른이 된 것입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한 소식 얻었다고 결론 지어서 꽂아 놓지 말라는 얘깁니다. '한 소식 얻었다고 해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깁니다. 점점 자라서 어른이 될 수도 있고 늙을 수도 있고 늙었다가 또 애가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는 어른이 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심부름도 해 주고 심부름하는 걸 받기도 하죠. 우리가 지금 높은 일만 합니까? 어린애를 낳아 가지고 똥 기저귀도 빨고 똥을 씻기도 하고 어린애를 기를 때에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궂은일을. 어른이 돼서 애의 밑을 씻어 줘야 하고 애는 애기 때문에 또 애 노릇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높아도 높은 게 없고 얕아도 얕은 게 없이 평등한 진리의 그 뜻을 항상 생활 속에서 파악하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스스로 샘물이 솟듯, 솟아나는 그 샘물의 맛을 알고 역력하게 나를 끌고 다닐 수 있는 나의 참주인공이 진짜 생기는 것입니다, 홀연히. 그저 생산이 되기만 하면 그때 가서는 언젠가는 성불할 단계가 오고 언젠가는 열반할 단계가 오죠. 어린애만 낳아 놓으면 저절로 어른 되고 늙어지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그 차원을 알고 차원이 높아져서 나중엔 백지로서 크고 작은 게 없고 내세울 게 없을 때는 또다시 요다음에 모습을 가지고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이 내 모습이기 때문에 따로이 모습을 가지고 나오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자유스럽게, 여기만 내 집이 아니라 우주 삼천대천세계가 다 내 집이니 그저 한 찰나에 이 집도 내 집이요, 저 집도 내 집인데 따로이 내가 내 몸을, 내 모습을 그려서 또 내놓을 게 뭐 있겠습니까?

알아듣기 쉽게 요렇게 말을 해 드리는 건데 이 차이가 얼마만큼 크고 귀중한 뜻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이 도리를 완벽하게 안다면 내가 당신이 될 수 있고 당신이 내가 될 수 있으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모습은 다를지언정 마음이야 어찌 다를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 **높아도 높은 게 없고 얕아도 얕은 게 없이**
> **평등한 진리의 그 뜻을**
> **항상 생활 속에서 파악하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둘이 아닐진대 당신 하나가 이 나라의 임금이라면 국민을 위해서, 어떠한 문제가 잘못돼 돌아갔을 땐 내가 그 대통령 속에 들어가서 내가 대통령이 됨으로써 그거를 잘 지켜 나갈 수 있다는 얘깁니다, 커버해 나갈 수 있고. 대통령의 마음도 그렇겠지마는 그 마음과 이 마음이 둘이 아니어서 마음으로부터 오관을 통해서 정신이 번쩍 들면서 자기가 잘못 끌고 간다는 걸 알게 됨으로써 그것을 확 고쳐서 잘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모습을 따로이 가지고 나오지 않아도, 창살 없는 감옥이나 매한가지인 이런 세상에 내가 그 모습을 해 가지고 나오지 않아도 그 속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여기 저기 나 아님이 없다 이겁니다. 그 뜻은 미생물에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선신에 이르기까지, 부처에 이르기까지 어디고 아니 닿는 데가 없이 내 몸 아닌 게 없다는 얘깁니다. 내 자리 아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이런 것이 옳다, 저런 것이 옳다, 이런 것이 좀 낫다, 이것은 정법이 아니다, 사법이다, 무당이다, 이렇게 흉볼 것도 없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었다면 높이 보이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거를 흉보지 말고 '저런 거는 이렇게 해야 할 텐데….' 마음속으로, 겉으로 입 밖에 내어 구업을 짓지 말고 항상 이익하게 마음을 내주는 데 목적이 있다는 얘깁니다.

어린애들을 기를 때에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면 그 자녀들이 잘못한 거를 드러내겠습니까? 도둑질을 했다 하더라도 어머니는 숨길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내 자식을 사랑하듯이 숨기면서 거죽으로는 말없이 안으로 굴리면서 이익하게 마음을 내 주는 그것이 바로 무주상 보시이며 부처님의 뜻이며 바로 보살의 행이라고 봅니다. 하나서부터 열까지 우리가 남을 해하게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아마도 억겁을 걸쳐 가면서 요만한 거 하나라도 내가 한 것만치 내게 돌아올 것입니다.

세상에 만약에 조그마한 소나무가 없다면 중치 소나무가 없고 중치 소나무가 없다면 큰 소나무가 없고, 또 삐뚤어진 게 없다면 바로 선 게 없을 겁니다. 조화가 이렇게 이루어져서 진리라고 이름을 지었고 산천초목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자연의 조화가 이렇게 보기 좋다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삐뚤어진 사람, 똑바로 곧게 올라간 사람, 옆으로 굴려진 사람, 땅끝에 붙어서 자라지도 못하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사람의 모습은 그렇지 않지만 마음이 그러해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그런 행을 하면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이 중하지 몸이 중한 게 아닙니다. 마음에서 비롯되어서 모든 것을, 몸은 행하게 되고 앉게 되고 서게 되고 말하게 되니깐요. 우린 부처를 이룬다기 이전에, 깨치기 이전에 이 도리를 알아야 깨쳐도 '아하, 다 이렇게 하나하나 나투어 가면서 놓아 가고 돌아가는 이 텅텅 빈 그릇을, 괜히 여기다가 내 마음으로 담아 놓고 무겁게 애를 썼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서야 들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공부를 하게 되면 '아, 그 모습도 없는 것이구나. 내 마음에서 스스로 모습이 천차만별로 화하는 거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되겠죠. 그때는 바로 '자기가 마음 쓰기에 달려 있고 참나의 생명수의 맛을 보게 하는 나의 스승이 바로 내 마음에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하게 내가, 조그만 거라도 진실하게 체험하면서 내가 한번 굴려보고 지켜보고, 지켜보고 또 굴리고 하다 보면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해 보십시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5년 1월 20일 정기법회 법문 중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의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

현불논단

행복의 등불



방영준
성신여대 윤리교육학과
명예교수

윌딩어 교수 "행복은 '관계'에 있다"
부, 명예, 학벌 추구는 불행 가져와

믿지 않는 정보 외면하는 '확증편향'
우리 사회 '관계의 황폐화' 가속시켜
세계 속 폭력과 갈등 확증편향 원인

붓다 강조한 '연기', 현 시대에 필요
분별심과 집착 경계… 열린사회 지향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 언론에서는 지구촌 삶의 문제와 한국 사회에 대한 진단을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이는 인간 삶에 대한 성찰을 통해 새해에 대한 희망을 그려 보고자 하는 바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의 소재로 선택한 것은 '행복'과 '확증 편향'에 관한 특집인데 붓다 가르침의 가치를 새삼 확인해 주는 내용이다.

윌딩어(R.Waldinger) 하버드 의대 교수는 85년간 하버드 학생과 빈민 청년, 그리고 그 자손 2000여 명의 삶을 추적해 "행복은 부, 명예, 학벌이 아닌 '관계'에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다. 위의 내용은 규범적인 교훈 비슷하게 익히 들어온 내용이다. 그래도 새삼 새로운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은 우리의 실제 삶은 부, 명예, 학벌의 지나친 추구로 불행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인간 삶의 양식에 나타나고 있는 관계는 점점 가파르고 메말라가고 있다.

'관계의 황폐화'가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확증 편향'이다. 확증 편향은 자신의 견해, 신념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 취하고, 자신이 믿고 싶지 않은 정보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무시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확증 편향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근현대사에 확증 편향으로 인한 인류의 비극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극단적인 이념대립과 갈등도 그러하다.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갈등은 집단적인 확증 편향으로 일어나는 것이 태반이다.

그런데 이를 어쩌랴. 이번 조사 통계를 보면 한국인의 확증 편향증이 매우 심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 사회운동 영역에서 일찍이 거론되어 온 것이지만 그 실상이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관계의 황폐화는 개인의 행복을 훼손시키고, 집단 간의 갈등과 폭력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관계의 황폐화 현상을 보면서 붓다의 지혜가 가슴에 다가온다. 붓다 지혜의 핵심인 연기론적 세계관은 모든 존재가 상호의존적이라는 것이다. 너와 나 그리고 모든 그들은 상호 의존해 존재하고 또한 멸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인식구조는 이원적으로 사물을 보는 데 익숙하다. 주체와 객체, 나와 너, 선과 악 등 이분법적 사유 틀은 우리의 혼란을 정리해 주기 때문이다. 연기론은 이러한 이분법적 요소들을 통합하여 연기적 질서를 제공한다. 연기론은 상대주의적 존재론으로 절대적인 것, 영원한 것, 무조건적인 것을 거부한다. 따라서 분별심과 그에 대한 집착을 경계한다. 그만큼 열린 마음과 열린 사회를 지향한다.

프랑스의 저명한 철학자 레비나스(E.Levinas)가 주창한 '타자 윤리'는 바로 연기론적 사유 틀에서 나온 것이다. 타자 윤리는 인간을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관념적인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엉키고 느끼며, 서로 나누고 고통받는 몸적 존재로 이해한다.

따라서 인간의 윤리는 관념적 선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과 고통을 배려하는 실천을 향한다. 자아론적 윤리에서 벗어나 관계 중심의 윤리, 감성적 윤리로의 길을 열었다. 서로가 인드라망의 그물코에 걸려 사는 삶의 길에 타자 윤리가 있다.

이러한 타자 윤리는 타자뿐만 제대로 자기를 위한 것이다. 바로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자비행이다. 붓다 가르침의 최종 목표는 이고득락(離苦得樂), 즉 중생의 행복이다. 지구촌과 우리 사회의 행복을 위해 붓다의 가르침을 펼칠 방편은 무엇인가. 모든 불자의 화두이다.



송마나의
시절인연

단박에 잘라라

새해가 밝았다. 한 해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차렷을 해야 한다. 차렷 자세는 직립 인간이 바로서는 인체의 모습이다. 그래서 차렷은 입대한 군인이 처음 배우는 기본자세이며, 일반 시민의 모임에서도 시작할 때 관례적으로 취하는 모습이다.

어릴 때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운동장에서 차렷 자세부터 배웠다. 그래야만 교실 안에서 의자에 앉아 오랫동안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생님이 차렷하고 구령을 하면 학생들은 앞을 바라보며 두 발을 모으고, 두 손을 옆구리에 붙인다. 그 행동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꼿꼿하게 서서 빠르게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이 차렷이다.

〈벽암록〉 74장에서 금우(金牛) 스님은 '막야횡안 봉전전단 갈등과(鏌鋣橫按 鋒前剪斷 葛藤寡)'라고 설한다. "막야 보검을 휘두르니 칼날 앞에 모든 갈등의 뿌리가 잘렸구나"라는 뜻이다. 막야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검이고, 보검의 칼날은 정신력을 상징한다. 우리는 누구나 이런 날선 칼날을 가지고 있다. 그 정신력으로 갈등을 싹둑 잘라버려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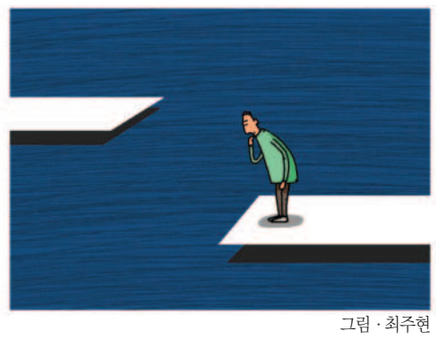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기원전 800년경, 프리기아 왕국 최초의 왕 고르디우스는 자신이 왕이 될 때 타고 왔던 마차를 사바지오스 신전에 바쳤다. 신전의 신관들은 그 마차를 신전 기둥에다 복잡한 매듭으로 묶어 두었다. 세월이 흐르자 그 마차를 묶은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푸는 자가 아시아의 왕이 된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왔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프리기아로 진군하여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려 했으나 워낙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풀 수 없었다. 그러자 알렉산더는 칼을 높이 쳐들어 그 매듭을 단번에 끊어버렸다. 이후, 그는 아시아의 왕이 되어 인도까지 진군했다. 어지러운 것은 단칼에 베어버려야지 조금씩 베어내서는 안 된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담배를 끊었다가 다시 피고, 끊었다가 또 피는데 그렇게 하면 평생 담배를 끊을 수 없다. 마약하는 사람들도 병원 치료를 받고 나와서 마약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면 환청과 환상의 정신질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 마약이면 마약, 술이면 술을 그냥 딱 잘라버려야 한다. 갈애의 뭉텅이를 막야 보검처럼 단칼에 끊어버려야 한다. 자기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집념, 욕심, 애욕을 정신력으로 잘라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구중인출비로인(句中引出毘盧印)'으로, 법신의 광명한 빛이 내 마음속에서 빛나게 된다. 그 빛은 본래부터 있었던 내 안의 불성이다. 얼룩진 마음을 차렷하는 자세로 닦아내면 본래적인 참 자아의 삶이 된다. 계묘년(癸卯年)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다.

〈작가〉

社 說

소통 통해 한국불교 중흥 이끌길

"조계종 제37대 집행부는 신뢰받는 불교, 존중받는 불교, 함께하는 불교를 구현하겠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1월 11일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제시한 목표다. 이를 위한 핵심과제로 △사회적 소통 강화 △승려복지 강화 △한국불교 문화 자긍심 고취를 발표했다.

세 가지 핵심과제를 살펴보면 한국불교의 성장 동력을 결집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불교의 사회적 소통 강화'는 부처님 가르침을 현대적 언어로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승려복지 강화'는 완벽한 수행환경 조성으로 승가공동체의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한국불교 문화 자긍심 고취'는 제37대 집행부의 주요 사업인 경주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 불사를 중심으로 교구특성화, 미래세대 인재 양성 등이 추진된다.

세부적으로는 서울도심권 명상센터 건립과 이곳에서 활용될 종단 표준 명상프로그램 개발이 추진되며 승려의료복지를 위해 안성 파라밀요양병원을 인수해 종단 직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한 승려노후복지를 위한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도 눈길을 끌었다.

이날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진우 스님은 명상 수행을 통한 포교 활성화와 승려복지 강화는 출가자 증진 해법이라고 했다. 포교를 통해 젊은 세대에 불교적 관심을 늘리고, 승려복지를 통해서는 완벽한 수행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다.

'소통'의 사전적 의미는 '뜻이 서로 통해 오해가 없음'이다. 불법(佛法)을 현대적 언어로 전하겠다는 진우 스님의 계획은 일반 대중과의 소통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한국불교 중흥은 포교와 전법의 성공에 있으며, 이는 대중과의 소통에서 비롯된다. 소통을 통한 불교중흥을 기대한다.

'천년을 세우다' 불사에 거는 기대

조계종이 천년 동안 쓰러져 있는 경주 남산의 열암곡 마애여래입상 바로 세우기 불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고 대장정을 시작했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 후 첫 원력으로 1300여 년 전에 조성돼 조선시대 때 쓰러진 것으로 추정되는 마애부처님을 바로 세우겠다는 원력을 세우고 '천년을 세우다' 추진준비위원회를 발족한 것.

'천년을 세우다'에는 '과거 천년'을 세워서 '미래 천년'을 열어가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과거 천년'은 열암곡 마애불을 바로 모시는 불사를, '미래 천년'은 진우 스님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명상센터 건립과 미래세대 포교 등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미래 동력을 결집하는 불사를 의미한다.

마애부처님은 '5cm 기적'이라 불린다. 지진 당시 80톤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에도 이마가 바윗돌을 받쳐준 덕에 큰 화를 피했다. 2007년 발견 당시 콧날과 바닥 사이는 불과 5cm에 불과하다. 상호도 완벽히 보존돼 있어 "당장 국보로 지정해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뛰어난 불상이다.

조계종은 동력결집을 위해 1월 25일부터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앞에 매일 기도 정진에 들어간다.

진우 스님은 1월 11일 진행된 추진위 발족식에서 "부처님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며, 우리 모두의 본성을 회복하는 성스러운 불사"라고 말했다. 종단중흥과 국민행복 시대를 상징하는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일으켜 세워, 미래 천년을 위한 불사가 아름답게 회향되길 바란다. 불교의 천년을 바로 세우는 데 사부대중 모두가 각자의 자리와 역할에서 십시일반 힘을 모으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겸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윌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 行禪 전문 신발 -
수 행 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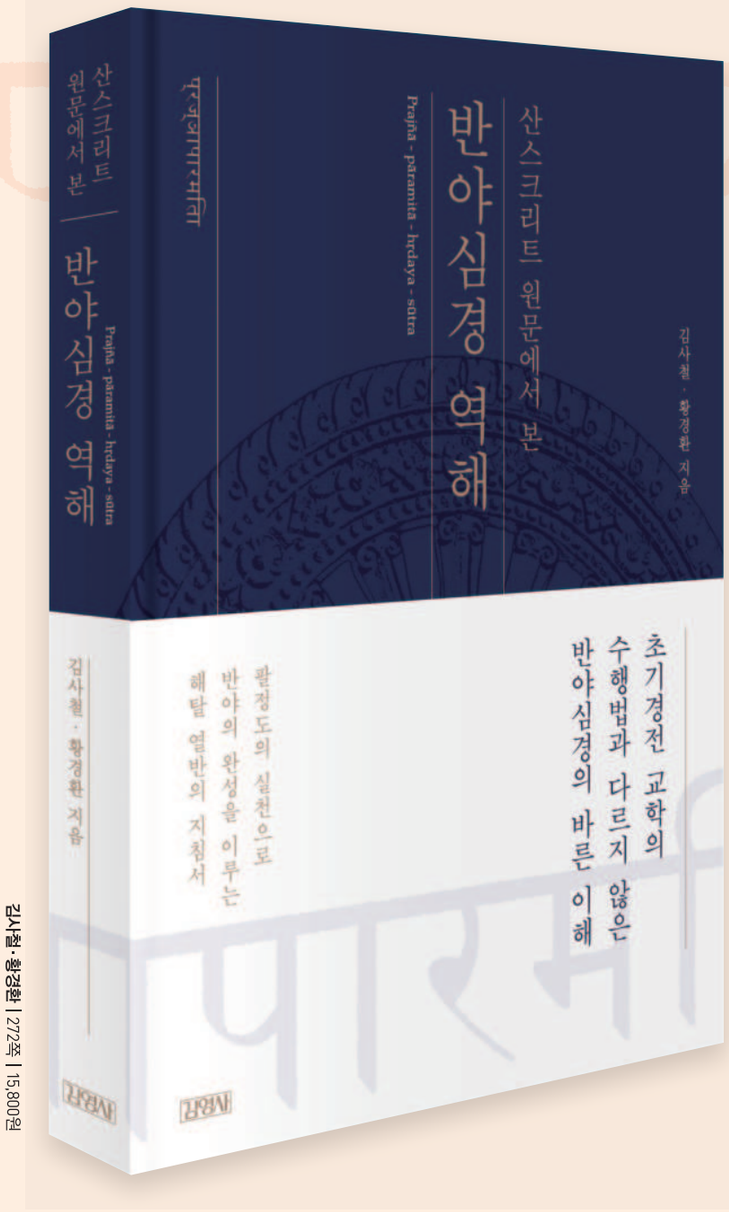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그레이블랙(밑창 검정색)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무압박 양말 증정)

수행화 그레이블랙
Hit 어싱 슈즈 특판가 : 65,000원
무료배송(무압박 양말 증정)
■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 효과
■ 일반인도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기능성 신발
· 소 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적용 캔버스화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바닥으로 땅의 굴곡을 느낄 수 있는 접지기능
일반신발 대비 1/10 수준의 3mm 밑창 두께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비밀스럽고 난해하다면 《반야심경》이 아니다

초기 경전의 교학 이론과 수행법을 통하여 '공'과 '지혜'의 의미를 새롭게 밝힌다



산스크리트 원문에서 본 반야심경 역해

가장 짧지만 가장 많은 해설이 난무하는 《반야심경》 왜 이렇게 많은 해석이 필요할까?

《반야심경》이 어려운 이유는 한문 자체의 난해함과 한역의 부정확성 때문이다. 이 책은 산스크리트 원문을 우리말로 알기 쉽게 풀어내며, 초기 경전의 수행법을 기반으로 하여 《반야심경》을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조망한다. 《반야심경》은 다름 아닌 부처님의 명상 수행과 이를 통한 완전한 깨달음의 여정에 대한 기록이라는 참신한 시각에서, 초기 경전의 다양한 경문을 통해 이를 상세히 설명한다. '지혜의 완성', 즉 '반야바라밀다'란 계·정·혜 삼학, 즉 팔정도의 실천과 완성임을 명쾌하게 밝힌다.

"《반야심경》을 초기불교 수행법에 따라 체득하겠다는 도전과 진솔한 체험이 담긴 이 책은 우리 시대의 방식으로 《반야심경》의 생명력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강성용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황경환 불법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는 불교연구가이자 사업가이다.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윤리교육학과를 수료하였고, 현재 동국대학교 명예 철학박사이다. 1977년부터 한국불교연구원에서 30여 년간 이사 및 연구위원으로 활동했고 국제 PTP(People To People: 세계 평화 구현을 위한 국제 민간 외교 단체) 한국본부 총재직 및 울산불교방송 사장을 역임하였다. 1980년부터 지금까지 국제 PTP 회원으로 활약하고 있고, 현재 초기불전연구원 선임 연구원이며 21세기 불교포럼 공동이사장이다. 저서로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이 있다.

김사철 인공지능 분야의 세계적인 과학자이자 불교 수행자이다. 1934년 경남 마산에서 태어나, 미국 뉴멕시코 주립대학에서 응용수학과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미국 방위산업체인 휴즈사에서 21년간 근무하였다. 1993년 12월 은퇴 후 귀국하여 동국대학교 · 창원대학교 · 한국불교연구원 등에서 '인공지능 개발에 대한 연구' '고타마 명상과 깨달음의 과학' 등을 강의하였다. 현재 미국에서 고타마 명상 수행에 전념하고 있다.

TEL : 031-955-3100 www.gimmyoung.com 책은 서점에 있습니다.

김영사

《무경계》의 저자 켄 윌버가 말하는 종교의 미래, 미래의 종교!

차세대 불교를 모델로 한 혁신적인 변화와 전망



켄 윌버 | 김철수 옮김 | 224쪽 | 13,800원

켄 윌버의 통합불교

Integral Buddhism

오늘의 종교, 어디로 가야 하는가? 세계적인 사상가 켄 윌버는 그 희망과 대안을 새로운 불교의 영적 시스템에서 모색한다.

"인간은 '성장의 길(의식의 구조)'과 '깨어남의 길(의식의 상태)'이라는 아주 다른 두 가지 차원의 발달을 각각 경험한다. 이 둘을 분별하고 함께 탐구하지 않으면 진정한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없다."

전 세계 500만 초대형 베스트셀러 《EQ 감성지능》 대니얼 골먼의 신작

과학은 명상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전 세계 23개국 출간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 · 한국어판 특별 서문 · 장동선 박사 강력 추천 · 차드 멍 탄 강력 추천



대니얼 골먼, 리처드 데이비드슨 | 김한두, 김은미 옮김 | 464쪽 | 20,000원

명상하는 뇌

Altered Traits

과학적 연구로 검증하고 밝혀낸
마음 훈련이 가져오는 기적 같은 뇌의 변화

"감마파는 정신적 요소들이 '찰칵!' 하고 맞아 들어가는 통찰의 순간 잠시 발생한다. 하지만 명상가들의 뇌에서는 감마파가 일상적으로 유지되었다. 전대미문의 발견이었다."